

학교교육연구

제14권 3호 (통권 22호)

2024년 12월 31일

ISSN 2093-5129

논문

역사교육이 나아갈 길, '혐오'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코로나-19 확산과 혐오의 양상 분석을 사례로 김수아 · 신주현	1
16~19세기 서양인이 바라본 중국의 교육제도 과거제 인식 평가를 중심으로 김수연 · 신주현	17
역사'팩션(faction)'의 왜곡과 역사교육에의 활용 방안 이규비 · 신주현	37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기초수학 지도 방안 연구- 대구·경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 김래용	79
예비 수학교사를 위한 기하학 교재 분석 및 지도법-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 김래용	91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과학 교과 성취기준 분석- 2015, 2022 개정 천문학 내용 중심으로 - 안성호	109
중·고등학교 천체 망원경 교육 및 활용도 조사 안성호	119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교육과정 인식에 대한 비교: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 및 과학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최규환 · 박종근	129
중학교 과학과 수업에 적용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 사례 연구 박선영 · 차정호	149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순	167
참가자의 성찰일지를 통해 분석한 해외 교육봉사의 의미-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방채홍	189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역사교육이 나아갈 길, ‘혐오’ 를 넘어 ‘세계시민’ 으로—코로나-19 확산과 혐오의 양상 분석을 사례로

김수아*

신주현**

요 약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무수한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즉 전염병과 동반한 ‘혐오 감정의 확산’에 주목하였다. 코로나의 발산지로 지목되는 중국에 대한 혐오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발전되었고, 혐오 감정은 지역, 특정 단체를 넘어 개인의 특성까지 그 범주를 넓혀나갔다. 이에 따라 ‘나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이었다. 콜레라, 페스트 등의 감염병은 언제나 혐오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옛날부터 감염병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개인이나 집단을 낙인찍어 고립시키는 일이었다.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재했던 시대적 상황에 한해서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의료기술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혐오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코로나의 특수성과도 연관이 있다. 높은 감염률, 세계화로 인해 확대된 피해 범위,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폭력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그 첫번째 단계는 ‘개인’을 ‘타자’의 그룹으로 편성하지 않고, 고유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혐오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식을 교육계에서 끌어안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감염병과 혐오의 연관관계에 대해 교육하여, 역사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계와 교육계의 협업과 연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것처럼 연대를 통해 역사적 사고를 갖추나간다면 혐오의 대물림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코로나19, 혐오, 혐증, 반증, 대구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머리말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당연히 영위했던 일상이 무너졌으며 직장, 학교, 심지어 안식처가 되었던 집에서도 공포심에 휩싸여야 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고, '혹시'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현상의 장기화는 공포에의 적응을 동반하였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일상은 무수한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일 것이다. 확진자가 쏟아지며 사람들 간의 소통은 금기시되었고, 급격한 변화를 거친 사람들은 점차 예민해졌다. 날 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혐오¹⁾와 차별'로 얼룩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사람들은 끝나지 않는 팬데믹 현상에 분노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취소된 일정을, 줄어든 수익을, 무너진 일상을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 희생양은 특정 인종이 되거나, 특정 단체가 되기도 하며 사람들 간의 혐오 감정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최근에는 이러한 혐오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CNBC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자료를 공개하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 급증했다고 밝혔다.²⁾ 혐오 범죄의 대상은 단순히 아시아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해 그 심각성을 짐작하게끔 한다. 본고는 이러한 혐오 범죄의 바탕이 되는 '혐오 감정'에 대해 논의하고, 혐오의 확산이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어떠한 균열을 일으켰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역사적으로 감염병과 혐오 감정이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며 현 상황을 정의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혐오의 양상을 '지역적 혐오'와 '일상 속 혐오'로 나누어 파악한 후 그 원인을 진단하고, '혐오의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혐오(嫌惡)는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을 의미한다.

2) “美,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 <한국경제TV>, 2021.08.31.,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310047&t=NN>>, (접속일 : 2021.09.30.)

II. 감염병과 혐오의 역사적 관계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역사적으로 감염병과 혐오 감정이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 범죄가 증가한 지금의 모습은 새롭거나, 특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장면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과거의 경험 속에서 감염병과 혐오 감정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현재의 ‘혐오’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오랜 옛날부터 감염병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인간은 감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실제로 브라운 등에 따르면, 페스트와 천연두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뿐만 아니라 “유아 사망률을 높이는 덜 극적이고, 이름 없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성 감염병”까지 고려할 경우 감염병에 의해 사망한 인류의 수는 그간 인류가 겪은 모든 전쟁과 비감염성 질병, 자연적 재해에 의해 사망한 인류의 수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오랜 옛날 감염병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마땅한 대응책이 없을 때, 외국인을 배척하고, 생김새나 행동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개인이나 집단을 낙인찍어 고립시키는 일은 그들이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병원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일 수 있었다.³⁾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립된 자들은 그들을 고립시킨 ‘일반적 집단’에 의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헤닝 엔겔른(Henning Engeln)에 따르면, 생명의 역사에서 원초적으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것은 불안이나 혐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다.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타자’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혐오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발생함으로써 개체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과 접촉하거나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그러한 예방을 통해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개체를 보호한다. 혐오는 병원균을 식별하는 “일종의 직관 미생물학”이며,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감염의 위험에 대해 인류가 취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통상적이지 않은 성행위에 대한 반감 등은 진화된 행동 면역계의 결과로서 오랜 기간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류가 진화 과정을 통해 획득한 삶의 전략이다.⁵⁾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 확산 이후 흔히 볼 수 있었던 ‘외국인 혐오’ 역시 역사적으로 흔히

3) 조태구,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 ‘올드 노멀(old normal)’을 꿈꾸며」, 『인문학연구』 vol. 60, 2020.06., pp. 13-14

4) 이종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대학과 선교』 vol. 45, 2020.06., p 73.

5) 조태구, 위의 논문, p 15.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질병과 외국인 혐오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Kraut(1995)는 미국에서 유행한 콜레라(1832년), 림프절 페스트(1900년), 에이즈(1980년대)가 각각 아일랜드계, 중국계, 아이티계 이민자의 탓으로 오인되면서 벌어진 인종차별의 역사를 되짚는다.⁶⁾ 그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결국 '외부자로부터 질병이 시작된다.'라는 의학적 편견을 낳고, 이는 이민 정책과 공중보건 정책, 나아가 일터나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Craddock(2004)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핵, 천연두, 매독 등의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계 이민자들과 차이나타운을 통제하고 규율한 사례에 주목했다.⁷⁾ 그에 따르면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사회·정치적 지형과 큰 연관성이 있다. 이는 어느 사회나 감염병의 책임을 그 사회의 취약집단 또는 소수집단과 연계시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는 국적이 없지만, 감염병에 국적 또는 인종을 부여하고 감염병을 '우리'가 아닌 '그들'의 것으로 타자화하는 관행은 비교적 최근의 사례에서도 목격된다. 2014년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한 당시 언론의 관련 보도 담론을 분석한 Monson(2017)은 에볼라의 유행이 아프리카 서안의 극히 일부 국가들에서 유래되었음에도 미국 언론은 "에볼라=아프리카"로 등식화하여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낙인찍고 타자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003년 유행한 사스를 분석한 Keil and Ali(2006)은 감염병이라는 변수가 캐나다라는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인종주의를 만들어내는가를 분석한다.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정책이 가장 잘 안착된 국가로 손꼽히지만, 사스의 발생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⁸⁾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염병과 그에 따른 혐오의 양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두 요소는 우리의 심성 속에서 언제나 공존해 왔다. 개인이나 집단을 타자화한 후 혐오하는 것은, 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의료기술이 부족했던 시대적 상황에 한해서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감염균보다 감염된 사람 혹은 오염된 대상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심성은 아직도 감염균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되짚어 말하자면, 무지에 기반을 둔 혐오적 전략을 취하는 일은 시대착오적이다. 또 전 세계가 문화-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얽혀 하나

6)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1), 2020.03., p 24.

7) 김수경, 위의 논문, p 24.

8) 김수경, 위의 논문, p 24.

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 외국인에 대한 배척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낙인찍어 고립시키는 일도 근대적 인권 개념 위에 세워진 민주적 사회에서는 비난을 무릅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⁹⁾

현재 기술과 의식의 진보로 사회적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와 그에 따른 범죄의 증가가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혐오의 대상이 ‘외국인’, 혹은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사회집단, 심지어 개인의 행동이나 작은 정체성까지 특정되며 다양한 양상의 혐오가 양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양한 양상의 혐오를 생산해 낸 이유로 바이러스의 본질적 특성을 지목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이전에 유행했던 감염병에 비해 치사율은 낮지만, 확산세가 강해 더 많은 숙주를 감염시킨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코로나-19는 주요 증상인 고열과 기침 등의 특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상태로도 전파력이 강하기에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극대화된다.¹⁰⁾ 또 다른 이유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 피해의 형태도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서 나아가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전 세계가 서로 교류하고 있으므로 ‘희생양’으로 지목될 개인 혹은 집단의 범주가 더욱 방대해졌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감염병의 정체를 알고, 대처법을 알면서도,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팬데믹 상황 속 ‘혐오’는 정확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II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적 차별

1. 반중감정과 아시아인 혐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심을 불러왔다. 초기에 주목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원된 곳으로 알려진 우한 화난(華南) 수산

9) 조태구,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 ‘올드 노멀(old normal)’을 꿈꾸며」, 『인문학연구』 vol. 60, 2020.06., p 17.

10) 이종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대학과 선교』 vol. 45, 2020.06., p 66.

시장의 불결한 위생 상태였다. 위생 관념 없이 다양한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이 시장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렇게 불결한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 '팬데믹'으로 진행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우한의 실험실에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고, 중국이 그것을 고의로 확산시켰다는 의심까지 나왔다.¹¹⁾ 이러한 여론은 중국을 '야만적인 악의 국가'로 형상화했다. 이탈리아는 "중국인들이 쥐를 먹어서 코로나-19가 생겼다"라면서 중국발 여행자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일부 극우파 조직폭력배들은 유럽 곳곳의 거리에서 이주민을 폭행하기도 했다.¹²⁾ '중국에 대한 보상 요구'가 시사적 이슈로 떠오르며 어느덧 중국은 전 세계의 적이 되어버렸다. 특히 미디어의 보도는 중국에 대한 혐오가 조성된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에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등의 단어를 바탕으로 작성된 비판적인 기사가 산발적으로 보도되었다. 뉴욕타임스는 2020년 1월 31일 자 기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반중 정서도 함께 퍼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며, 독일의 대표적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은 2020년 2월 1일 "코로나바이러스-중국산"이라는 표제 아래 관련 기사를 다루었다.¹³⁾ 이러한 언론 보도에 따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더불어, 책임을 기피하는 듯한 중국의 대처 역시 반중 정서에 불을 붙였다. 2019년 12월 8일 우한 화난 수산물시장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중국은 전염병 확산 사실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12월 30일 의사 리원량이 SNS를 통해 사실을 폭로했을 때, 경찰은 그를 연행하여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죄를 물었다.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 SNS를 통해 내부고발의 형태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차단하기에 급급했다.¹⁴⁾ 아마 중국 측은 우한시의 의료 인프라를 신임하며, 우한시 당과 정부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과거 사스 사태를 겪은 경험이 있으므로, 외부에 알려 문제를 키우지 않고도 감염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우한의 상황은 물질적 인프라 축적이나 선진적 의료시스템 구축, 관료조직의 상명하달식 대응이 전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앞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었다.¹⁵⁾ 이러한 중국의 정보 '은폐'는 코로나를

11) 김진공,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와 사회 체제의 신뢰 위기」, 서울대학교 중국어문학과집 72, 2020.08., p 210.

12) 이종원, 위의 논문, pp. 61-90.

13)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1), 2020.03., p 23.

14) 김진공, 위의 논문, p 215.

15) 김진공,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와 사회 체제의 신뢰 위기」, 서울대학교 중국어문학과집 72, 2020.08., p 214.

‘폭발’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중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불신을 바탕으로 반중감정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중국에 대한 비난과 그에 따른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 흔히 아시아인 혐오 범죄를 바탕으로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의 반중감정을 떠올리지만, 반중감정은 서양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초기 중국에 대한 혐오는 아시아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 예로 한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 트위터에서는 ‘#중국인들일본으로오지말라(#ChineseDontComeToJapan)’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쏟아졌다. 국내에서도 역시 76만 명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 청원에 서명하는 등 중국인 차별에 대한 움직임이 일었다.¹⁶⁾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사드 보복과 동북공정,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차츰 쌓여온 국내 반중 정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었다.¹⁷⁾ 이러한 사례들로 팬데믹 초기에는 비난의 대상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상지인 ‘중국’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혐오는 어느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변질되었다. 본질적인 이유는 인상착의로 국적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혐오의 대상이 된 아시아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의 보균자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계속 유럽에 거주하던 자인지, 우한에서 온 자인지, 결국 감염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 불확실성에서 괴리감이 자라났다. 아시아인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의 상태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인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거리에서 만난 아시아인은 타인을 감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누구’이기보다는 바이러스를 가진 ‘무엇’이다.¹⁸⁾ 한 마디로, 반중감정에서 비롯되어, 아시아인이 원초적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작된 ‘아시아인 혐오’는 급격한 혐오 범죄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아시아태평양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월과 7월 사이 최소 2,100건의 반아시아 혐오 범죄가 발생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아시아인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21% 증가했다고 보고했다.¹⁹⁾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아시아인 혐오 범죄의 사례가 폭발

-
- 16) 김민수 외, “[코로나 시대 혐오] 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증오하는가”, <동아사이언스>, 2020.11.2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1779>>, (접속일 : 2021.09.29.)
- 17) 류지민, “반중감정 어느 정도길래... 66%는 ‘中 싫다’”, <매일경제>, 2021.05.0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33506/>>, (접속일 : 2021.09.30.)
- 18) 조태규,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 ‘올드 노멀(old normal)’을 꿈꾸며」, 『인문학연구』 vol. 60, 2020.06., pp. 8-9
- 19) 김민수 외, “[코로나 시대 혐오] 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증오하는가”, <동아사이언스>, 2020.11.2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1779>>, (접속일 : 2021.09.29.)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가 불러온 혐오는 단순히 '인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혐오의 대상이 된 '아시아인' 내에서도 혐오 감정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한국 내 '지역 차별'과 '감염자 혹은 관련 집단에 대한 혐오'를 들 수 있다.

2. 대구발 코로나와 지역감정

팬데믹 초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피해 수치가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고, 슈퍼 전파자의 등장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그 시작점은 대구 지역의 31번째 확진자였는데, 주목할 점은 그가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동선이 겹친 신천지 교인들의 연이은 확진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른바 '대구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대구발 코로나의 특징은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단체가 지목되었다는 것이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확산이 시작되며 전 국민의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2020년 2월 23일 시작된 신천지 예수 교회를 강제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어선 것²⁰⁾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확산세가 지속되자 '신천지'와 '신천지가 아닌 대구지역 주민' 간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더는 '신천지'라는 프레임이 확진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대구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이 자라났다.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의 'TK 봉쇄 발언'과 대구지역 주민의 입장을 금지한 식당의 사례를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국회의원과 미디어는 '대구발 코로나', '대구 코로나'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구지역은 '지역 혐오적 발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제적인 모습과도 유사했다.

시간이 지나며 '대구발 코로나'라는 용어가 지양되고 '대구지역 확진자 수'도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하며, 대구에 대한 혐오적 시선도 점차 거두어졌다. 이로써 국내 확산세가 감소하는 듯했으나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이른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가 발생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재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732명, 경기 671명, 인천 126명으로 수도권이 74.2%(1529명)²¹⁾이다. 누적 확진자 비율은 서울

20) 강성영, 이상철, 「코로나-19시대의 타자의 윤리 - 본회퍼와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혐오 극복의 윤리학」, 한신대학교 神學思想 194, 2021.09., p 133.

2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검색어 “국내 시도별 발생 동향”, <<http://ncov.mohw.go.kr/>>, (접속일 : 2021.10.04.)

32.4%, 인천 5.1%, 경기 29.1%, 대구 4.9%, 기타 28.5%²²⁾로 대다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대구에서 시작된 1차 대유행 시기와는 현저히 달랐고, 이러한 차이가 대구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대구발 코로나’ 시기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된 본질적인 원인은 ‘타자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데에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위기 상황 속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낙인찍어 고립시키고, 그들을 혐오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초기, ‘신천지’는 한국 내에서 고립되어야 할 타자로 지목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신천지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대구 전역에 퍼졌을 때는 ‘대구’라는 지역 전체가 타자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대유행 시기부터는 그 범주가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타자와 자아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신천지, 대구를 이어 희생양으로 특정된 것은 ‘특이 케이스의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관련된 ‘특이 케이스의 집단’이었다. 이제 코로나가 한국 전체에 퍼져버렸기에,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혐오는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 시민들의 분노를 책임질 대상이 명확히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지역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피해 보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경계했던 이 현상은 서로의 지역감정을 부추길 뿐이었으며 국외로부터 받아온 인종차별을 국내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꼴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생양을 찾기 위한 혐오와 차별은 점점 우리의 삶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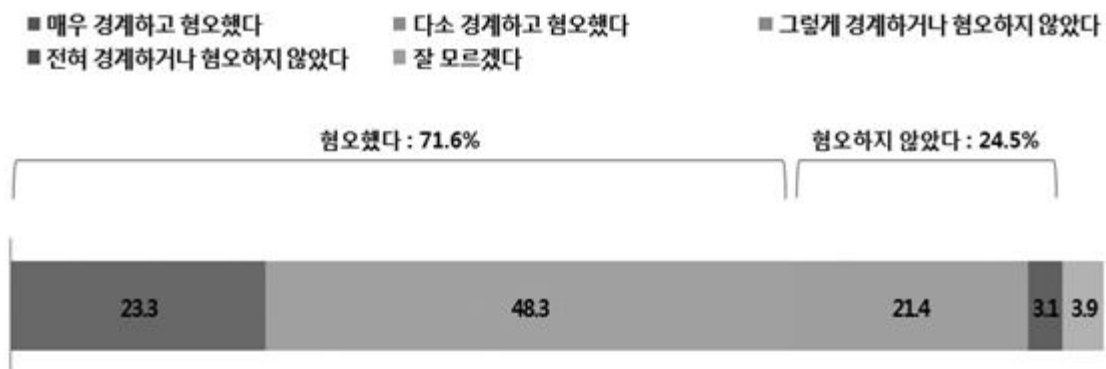
IV. 팬데믹 일상 속 혐오의 양상

혐오는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확진보다 무서운 것이 ‘확진자에 대한 비난적 시선’이라는 말이 있다. 팬데믹 초기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했다.²³⁾ 이러한 무차별적 신상 공개와 이에 대한 미디어의 산발적 보도는 확진자를 ‘악인’으로 만들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일상을 지속한 사람, ‘이 시국’에 굳이 종교 예배를 나간 사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클럽에서 춤을 춘 사람.

22) 이창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6명…수도권 비율 74.2%”, <경향신문>, 2021.10.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30944001#csidx5cd29b6cd532cd394b72d2f10512448>>, (접속일 : 2021.10.4)
23) 박성진, 「코로나(Covid-19) 확진자에 대한 폭력의 양상과 의미: 코로나 발생 초기 상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vol. 19(1), 2021, p. 116

이러한 사람들은 확진이 결정되는 순간,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들이 영화 속 악인처럼 묘사되는 순간이다. 확진자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만연해지면, 그들의 신상이 까발려졌다. 지자체의 실수로 신상이 적힌 공문서가 유출돼 온라인으로 급속히 퍼지는 사례가 잇따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²⁴⁾ 이렇게 드러난 '악인'에게는 우려와 걱정이 아닌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생활과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을 자신의 일상을 깨어 버린 '범죄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나왔는데, 심지어 확진자가 속한 집단 전체가 손가락질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를 바탕으로 파생된 '성 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5월 2일 새벽 이태원에 있는 클럽 5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²⁵⁾ 그리고 이번에는 성 소수자가 비난의 화살을 받아내야 하는 과녁으로 떠올랐다. 특히 강남구청이 '블랙수면방 방문자 검체검사 필수'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²⁶⁾한 이후 더욱 선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졌고,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조장됐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구발 코로나'와 같은 맥락이며, 확진자의 특성을 기점으로 특정 집단이 다시 지목된 것이다.



[그림 1]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집단에 대한 경계/혐오 반응

24) 박한호, 「사회적 재난과 범죄 현상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6(2), 2020.06., p. 79.

25) 문소현, "어느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하소연.", <관훈 저널> 62.2, 2020.06., p. 13, (접속일 : 2021.09.14.)

26) 문소현, 위의 기사, p. 1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조사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후 동성애자에 반감 증가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반감이 커졌다”라고 답한 사람이 65.3%,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이 26.3%, “잘 모르겠다”가 8.4% 나왔다. 종합적으로 코로나-19 진원 집단(신천지, 해외 입국자, 이태원 클럽)에 대한 혐오를 물었는데, “경계하거나 혐오했다”라는 응답이 71.6%, “혐오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4.5%로 조사되었다.²⁷⁾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과반수의 사람이 확진자와 관련된 특정 집단에 혐오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 감정은 때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을 지목하기도 한다. 최근 언론에서 ‘거짓말 강사’로 통용되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그 예시이다. 그의 직종은 학원 강사로, 이태원 클럽에 방문 후 확진되었으며, ‘무직’이라는 그의 거짓말로 인해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²⁸⁾ 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를 향해 쏟아진 비난은 방역수칙의 위반, 거짓말을 한 행위, 교육직 종사에 대한 책임감 등을 얘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확진자의 행동, 직종, 취향 등 ‘작은 정체성의 차이’마저 비난의 근거로 전락해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확진자에 대한 비난은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 본질은 확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 내려왔다. 현재 한국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과 집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법적인 처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비난이라는 도덕적 처벌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와 동시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위반자를 혐오한다. 그 내면에는 누리지 못한 자유에 대한 박탈감과 허무함, 억울함,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의 감정이 뒤섞여있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위반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 단합과 협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군과의 전쟁을 자초했다. 평화롭던 일상은 어느새 전쟁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는 점점 불어나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았다.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품으면서 말이다.

27) 강성영, 이상철, 「코로나-19시대의 타자의 윤리 - 본회퍼와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혐오 극복의 윤리학」, 한신대학교 神學思想 194, 2021.09., pp. 134-135.

28) 문소현, “어느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하소연.”, <관훈 저널> 62.2, 2020.06., (접속일 : 2021.09.14.)

V. 맺음말: 역사교육에서 팬데믹의 교훈

코로나-19는 여태껏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태였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가상의 적'을 찾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중국, 아시아인, 신천지, 확진자 등에 대한 혐오가 그 예시이다. 이러한 사례들로 짐작해 보자면,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혐오의 양상은 그 시작점이 한 지점으로 귀결된다. 모두 그 산하에 바뀌어버린 일상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혐오 현상에 대해 내재해 있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평소에 알뜰고 만만한 대상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문제 해결이라는 실질적인 이슈보다는 감염병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오가 싹트는 것”이라고 진단했다.²⁹⁾ 여기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집단들의 공통점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집단들이 이미 혐오에 노출되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없던 혐오를 양산해낸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의식에 정당성을 부여해 표면으로 드러냈을 뿐이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들의 내면에 이미 실존해오던 '혐오의식'에 불을 붙인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혐오의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 '한 번 만들어지면 끝없이 양산된다.'라는 바이러스와 혐오의 본질적인 공통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혐오'라는 감정은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는데, 혐오 표현의 사용이 그 예시이다. 이는 의료계에서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계와 학계에서도 혐오라는 의식과 표현의 확산을 경계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혐오 표현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지적하고 그와 동시에 표현의 사용자를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타인을 혐오함과 동시에 스스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혐오의식'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언젠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지만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얼룩진 혐오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일상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저 '변화'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자를 찾아낸다고 해서 일상이 복구되지는 않기에 '책임 전가의 무의미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희생양 찾기'를 멈추고, 서로를 혐오하며 검열하는 구조적 폭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29) 김민수 외, “[코로나 시대 혐오] 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증오하는가.”, <동아사이언스>, 2020.11.2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1779>>, (접속일 : 2021.09.29.)

그 첫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을 고유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다. 즉, 인종, 종교, 취향 등을 근거로 그에게 혐오적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특정 집단에 귀속시켜 낙인찍거나, 혹은 특정 행동이나 특징을 바탕으로 그를 ‘타자’의 그룹으로 편성하는 순간, 혐오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이제 혐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가 중국인이든, 신천지이든, 성 소수자이든 나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일 뿐이다. 팬데믹 이후 사회는 ‘자아-타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의 연대’가 이뤄져야 하는 단계로 이행하였다. 혐오의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백신은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포용의 자세와 이타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혐오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식을 교육계에서 적극 끌어안아 확산과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학계는 앞서 규명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반복돼왔던 질병과 혐오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와 사범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혐오를 대물림하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일선 교원이 앞서 이루어진 학계와 교육계의 노력을 자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학계와 교육계의 협업과 연대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성영, 이상철(2021). 코로나19 시대의 타자의 윤리 본회퍼와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혐오 극복의 윤리학. 한신대학교 神學思想, 194.
- 김민수 외(2020). [코로나 시대 혐오] 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증오하는가. 동아사이언스, 2020.11.2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1779>> (접속일 : 2021.09.29.)
- 김수경(2020).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1).
- 김진공(2020).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와 사회 체제의 신뢰 위기. 서울대학교 중국어문학과집, 72.
- 류지민(2021). 반중감정 어느정도길래... 66%는 '中' 싫다. 매일경제, 2021.05.0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33506/>
- 문소현(2020). 어느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하소연. 관훈 저널, 62(2).
- 박성진(2021). 코로나(Covid-19) 확진자에 대한 폭력의 양상과 의미: 코로나 발생 초기 상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9(1).
- 박한호(2020). 사회적 재난과 범죄현상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6(2).
- 시도별 발생동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 이종원(202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대학과 선교, 45.
- 이창준(202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6명...수도권 비율 74.2%. 경향신문, 2021.10.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30944001#csidxb5d29b6ed532cd394b72d2f10512448>
- 조태구(2020).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 '올드 노멀(old normal)'을 꿈꾸며. 인문학연구, 60. 2020.06.
- 한국경제TV(2021). 美,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 2021.08.31.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310047&t=NN>

The Way Forward for History Education, Beyond 'Hate' to 'Global Citizenship' : Analyzing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Patterns of Hate as a Case Study

Kim, Soo-ah
Sheen, Joo Hyun

<Abstract>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which began in China in late 2019, has changed our daily lives in countless ways. Among the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nge in social climate” and the “spread of hateful sentiments” that accompanied the pandemic. The hatred of China as the source of the coronavirus has evolved into hatred of Asians, and the scope of hatred has expanded beyond regions and specific groups to include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s has led to social anxiety about being labeled as an object of hatred, but this is nothing new and has been repeated many times throughout history.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holera and plague have alway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repugnant emotions. Infectious diseases have long been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human survival, and the most effective coping strategies have been to stigmatize and isolate individuals and groups that fall outside of the norm. This may have been an effective response strategy in a time when knowledge about infectious diseases was limited. Today, however, we have knowledge, and we have effective medical technologies. Nonetheless, the rapid spread of disgust is also related to the uniqueness of the coronavirus. The high infection rate, the global reach of globalization, and the presence of asymptomatic infections. In an effort to move away from this structural violence, we call for social and educational efforts. The first step is to respect individuals as individuals with unique personalities, rather than organizing them into groups of “others”. The second step is to raise awareness in education and society about social distancing from hate. Educating students about the historical link between infectious diseases and hate can be an effective way to foster historical thinking. This education will require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academia and education. If we build historical thinking through solidarity, just as we have built knowledge and technology, we will be able to break the cycle of hate.

Keywords: COVID-19, Hatred, Sinophobia, Anti-China, Daegu

16~19세기 서양인이 바라본 중국의 교육제도 과거제 인식 평가를 중심으로

김수연*

신주현**

요약

본고는 16세기 이후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남긴 과거제의 인식 평가를 통해 서양인이 바라본 동양에 대한 인식 평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시대에 따라 서양인의 과거제 인식 평가를 통해 동양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달라짐을 살펴보고, 제국주의적 시각이 동양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남긴 과거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중국 대륙의 광대함, 다양성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을 대변 하듯이 유럽과 중국의 교육제도의 비교를 통한 소개, 개인적 소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제는 훌륭한 시험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서와 저서를 통해 유럽인들은 중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었다. 18세기는 과도기로 산업혁명과 프랑 스혁명을 거치며 동양은 더 이상 이상적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유럽의 성장과 비교하는 장치로서 중국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진다. 유럽인들의 과거제에 대한 평가도 평등의 상징 에서 전제주의를 강화하는 산물로 인식되어갔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을 비롯한 서양은 문명, 그 외 세계는 야만으로 여겨지는 제국주의적 사고는 확고해졌다. 과거제는 열등한 중국의 시험제도에 불 과했다. 이처럼 서양인의 과거제 인식 평가를 시대에 따라 비교하여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인식이 19세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의 과거제에 대한 사료 비교를 통해 제국주의적 시각이 서양에서 바라보는 동양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 연구가 많지 않았던 과거제의 인식 변화 를 고찰하고 나열·비교를 통해 19세기 제국주의적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핵심어: 제국주의, 과거제, 예수회, 계몽주의, 개신교, 선교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중국 사회는 文을 숭상하던 나라였다. 유가 사상은 중국의 문화, 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과거제 자체가 文을 중시하는 중국 사회를 상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일을 분담해 하는 관료들은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충과 효를 실천하는 관료들을 선발한다. 이를 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다. 핵심적인 관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귀한 가문의 자제더라도 반드시 과거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했다. 중국문화를 성립했던 지식인들은 모두 과거제로 인해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거제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¹⁾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인들은 중국에 머물면서 과거제를 비롯한 중국의 교육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국의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양의 교육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서양과 동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였는데, 선교사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한다. 특히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과 19세기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의 저작에 관한 연구 중, 중국의 제도, 문화에 대해서 서양에 소개하는 사료들이 남아있고 이를 분석한 다수의 보고서가 존재한다.²⁾ 사료들을 살펴보면, 중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거제와 중국의 전통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선교사들의 과거제를 바라보는 인식은 제국주의적 시각의 입각하였다는 연구들은 왕왕 찾아볼 수 있었다.³⁾ 근세와 근현대의 분기점에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세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동양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

1) 金靜, 강길중,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중문, 1994. p. 9.

2)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히라카와 스케히로 지음/노영희 옮김,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동아시아, 2002.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김성규 옮김,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휴머니스트, 2009. 신주현, 「마테오 리치 이후 明末 예수회 適應主義의 微視的 轉換點 探索 — 徐光啓와 알폰소 바노니의 ‘天主’ 用語使用 問題를 中心으로 —」, 『중국사연구』 121, 2019, pp. 111-137. 노재식, 「19세기말 미국선교사의 中國觀 —사무엘 윌리엄스(Samuel Wells Williams)의 『The Middle Kingdom』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58, 2018, pp. 1-21. 신정수, 「『紅樓夢』 초기 영문 자료 해제 및 번역 —19세기 전반기 淸나라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42, 2018, pp. 197-232. 스킵스, 우성민, 「19세기 말 서양선교사의 조선에 대한 관찰과 인식 『교무잡지(敎務雜誌)』를 중심으로 한 고찰」,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2, pp. 99-117.

3) 해당하는 논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노재식,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청말 사회의 비판에 관한 고찰 —과학제도(科學制度)와 중국 전통 교육제도 비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4, 2010, pp. 103-123. 장의식, 「청말 중국 주재 서양 선교사의 과거 및 교육 개혁론」, 『중국사연구』 112, 2018, pp. 73-109. 노재식, 「19세기 중엽 서양인의 중국 과거(科擧)제도에 대한 인식—사무엘 윌리엄스(Samuel W. Williams)의 『The Middle Kingdom』(중국총론(中國總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89, 2019, pp. 299-325. 노재식, 「『The Middle Kingdom』에 나타난 중국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중국사연구』 78, 2023, pp. 273-290.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제국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중국의 문화나 제도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담긴 논문들은 찾아볼 수 있다. 반면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남긴 사료에서 과거제 및 중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논평, 그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필자는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본고는 기존에 잘 다루지 않았던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남긴 과거제의 논평을 포함하여 서로 상호 비교하는 노력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19세기 이전과 이후 사료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고, 그 결과 서구중심주의적 사고가 중국의 과거제 및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동양과 서양의 기술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방면에서는 동양이 앞서갔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우위를 점했고 서양은 동양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18세기 계몽사상가 중 중국의 제도와 문화에 대해 높게 산 인물들도 더러 있었다. 볼테르는 중국의 모습을 전해 듣고 중국을 평등의 나라로 생각했다. 중국에서는 재상의 아들이라도 과거를 보아야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처럼 세습 귀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⁴⁾ 계몽사상가들은 과거제를 평등한 관료 선발체제로 인식했고 서양이 따라야 하는 일종의 모델로 제시하게 되었다. 실제로 프랑스혁명에 의해 실시된 공무원 채용 시험으로 나타나게 된다.⁵⁾ 앞선 사례와 같이 1800년대 이전 특히 1500년대부터 1800년까지의 문화 교류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양방향 적이었다. 문화적 동경을 서양이 동양보다 더 가지고 있었다. 동양에 대한 우월함을 가진 오리엔탈리즘은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시작하여 서구우월주의가 우세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이후에는 편향된 오리엔탈리즘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다.⁶⁾ 우리는 이 시기 계몽사상가들을 통해 동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아편전쟁, 청일전쟁과 같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완전히 편향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지니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가파른 기술의 발전을 비롯해 이른바 근대화에 이룩했다고 생각한 서양 열강들은 중국을 더 이상 이상향의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중국은 후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나아가지 못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제도와 유교적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1800년대 이전에 사용된 “방대하고 위대한 중화제국”이라는 찬사는 19세기 제국주의 이후 “수수께끼 같은 알

4) 이동희, 「라이프니츠를 중심으로 본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있어 중국철학 수용 문제」, 『철학논집』 10, 2005, pp. 32-33.

5) 위의 저서, pp. 33.

6)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김성규 옮김,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휴머니스트, 2009. pp. 15-16.

수 없는 동방”으로 전락해버렸다.⁷⁾ 위와 같은 태도는 19세기 선교사들의 발언 속 확인이 가능하다. 과거제에 대해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서양의 교육제도를 본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19세기 이전에도 과거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자료를 확인하면 유의미한 뉘앙스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과거제와 교육제도는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했으므로 19세기 이전의 서양인이 과거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19세기 서구중심주의 사고가 들어서고 과거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면 19세기가 호혜적인 동서교류의 만남이 끝나는 분기점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사고가 19세기 이후에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유교 국가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제도인 과거제를 통해 19세기 이전과 이후 인식의 전환을, 사료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은 국내에서 시도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례적인 호혜적인 동서교류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16~17세기 선교사들의 과거제에 대한 평가와 19세기 이후, 청 말에 활동했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과거제 및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까지 계몽사상가들을 통해 인식 변화가 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6~17세기와 19세기 선교사들의 사료를 통해 과거제 인식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비교사적 접근을 통해 19세기를 기점으로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변화, 즉 지금까지 존재하는 서구중심주의의 시작을 사료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중국 과거제를 바라보는 초점을 서양인의 시각으로 한정하고자 하고자 한다. 본론 내용과 같이 서구중심주의 사고가 중국의 교육제도, 과거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과거제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병폐들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 지식인들도 과거제 개혁, 나아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했다. 따라서 과거제가 완벽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이 매몰된 시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과거제를 비판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간에 따라 과거제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각이 달라진 변화의 흐름을 나열하여, 다양한 원인 중 하나를 분석하고자 함을 밝힌다.

7) 위의 저서, pp. 222-223.

II.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과거제 인식

기원전부터 시작한 동서 문명 교류의 역사에서 16~17세기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항해술의 발달, 예수회의 적극적인 해외 선교와 같은 이유들로 1500~1800년대 활발히 동서양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처음 서양인들은 동양에 대해 많은 점을 몰랐었고, 궁금해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동양에 대한 서양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예수회는 가톨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선교로 눈을 돌리게 된다. 선교사들이 전해오는 동양에 대한 문화, 제도, 정치 등은 서양인들에게 이상향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교양 있고, 정중하며, 세련된 태도와 우아한 중국의 문화에 감동한 많은 서양인들은 중국을 통해 현 유럽 사회를 비판하려 하였으며 성찰의 도구로 삼았다. 중국의 광대함과 다양성에 경외를 느끼기도 했지만 선교사들은 중국의 이면도 보았다. 중국의 윤리 체계와 과거제에 기반한 관료제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영아 살해, 인신매매와 같은 어두운 측면도 서술하였다.⁸⁾

초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을 때, 다양성을 인정하는 비교적 개방적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서양인들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서양인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하였다. 처음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하였을 때, 중국은 외국인들의 여행과 교역을 제한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하였다. 시계 같은 서양 문물이 황제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그 기술이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이처럼 19세기 이전에 동양과 서양의 상황은 19세기 이후와 반대였다.⁹⁾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외국 문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라고 할 만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 풍습, 역사, 정치 등을 이해하였다.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하였다. 이런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였다. 그는 이후 선교사들의 모델이 되었으며 예수회의 선교 방식인 적응주의¹⁰⁾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중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중국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기게 된다. 리치는 중국의 관료제를 이루고 유학적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의 대한 기록도 서술하였다. 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

8) 위의 저서, pp. 6.

9) 위의 저서, pp. 7.

10) 중국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당시 폐쇄적이었던 사대부층들의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기존 선교는 복음만을 전파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제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기존의 선교 방식의 문제점을 느끼고 먼저 중국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였다. 예수회는 실제로 해외 선교를 위해 엄격한 교육을 거쳐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냈다. 특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시 생각했는데, 언어가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통역을 통해 선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예수회의 교육과 선교전략은 그 자체만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조은식, 마테오 리치의 중국선교 방법론 연구, 선교신학 17, 2008, pp. 1-2.

문에 과거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시험제도는 중세 이래로 구두시험을 원칙으로 하였다. 리치는 중국은 구두시험 없이 오직 필기만으로 관료를 선발한다는 것에 놀란 최초의 서양인이었다. 실제로 리치의 영향을 받아 서양에서 최초로 필기시험을 채택한 곳은 예수회 학교였다. 그는 처음으로 중국의 과거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한 최초의 서양인이었다. 리치는 유럽의 제도와 비교해서 서양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유럽과 달리 중국은 문치주의 국가였고 기반은 과거제였다. 리치는 과거제가 중국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¹¹⁾

중국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우선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과 계통의 학문과 여러 학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문과 학위가 중국 통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점에서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국왕이 철학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왕이 철학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¹²⁾

리치는 과거제에 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이 과거로 시험을 치른 사람은 세 단계의 호칭을 받습니다.

첫 단계는 황제가 각 지방에 임명한 제학이라 불리는 대학자의 감독 아래, 각 도시에 있는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제학이란 제독학 정의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이때 수여되는 학위가 수재로, 이것은 서양의 학사에 해당합니다. (중략) 제2의 학위는 거인으로 이것은 서양의 석사에 해당합니다. (중략) 거인의 학위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각 지방에 할당해준 특정 수만큼의 성적 상위자에게만 수여합니다. (중략) 제3의 자격은 진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양의 박사에 해당합니다.¹³⁾

사서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는 매우 훌륭한 것으로, 역대 황제의 결정에 따라 중국의 사대부는 이 책들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이 윤리학 학위는 세상의 존경받는 것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국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분량으로 치면 사서오경을 전부 합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작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곳에 적힌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을 세우는 연습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사서오경 전체를 통독하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해 시험장에서 멋진 문장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¹⁴⁾

11) 히라카와 스케히로 지음/노영희 옮김,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동아아시아, 2002. pp. 140.

12) 위의 저서, pp. 146.

13) 위의 저서 pp. 148-155.

이처럼 리치는 유럽에서 각 단계가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비교 서술하면서 서양인들의 과거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리치는 과거제는 놀랄 만큼 정비된 시험제도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과거제 문제의 근본이 되는 사서오경의 윤리는 매우 훌륭하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험 전 단계에 있어야 하는 교육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놀랐다. 학생들은 각자 스승을 찾아 떠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존에 서양인은 동양에도 유럽의 대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리라 짐작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서양인에게 놀라운 발견이었다.¹⁵⁾ 리치는 과거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문치주의에서 비롯된 문관들의 권위주의는 비판하였다.

무거인은 거의 출세하지 못하며, 무진사의 경우에는 연줄을 동원하고 뇌물을 많이 쓰면 어딘가 좋은 사령관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시험의 위원장과 시험관과 감독을, 문과시험뿐 아니라 수학·의학·무과시험 역시 모두 문관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학자나 의사 및 군인 등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는 서양인에게 참으로 신기하게 보입니다. 이 왕국에서 문관의 신용이란 대단한 것이어서, 문관이라면 비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리치는 문관 위주의 사회를 비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관들이 주요 관직에 앉게 되었고, 그 외의 무관, 의사와 같은 중요 직종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았다. 이는 관료제의 부정부패를 발생시키고 그들의 직위가 낮아짐에 따라 하향평준화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였다. 위 비판의 내용을 보면 19세기 이후에 나오는 선교사들의 비판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¹⁶⁾ 밑에서 비교하겠으나 그와는 다르다. 리치는 본 것에 기반에 비판을 하고 있다. 드물게 자신의 감정을 섞은 문장이지만, 유럽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병폐가 있고 자신의 소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이후 선교사들은 인종주의에 기반해 과거제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세기 서양 문명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는 문과 학문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무관들의 힘이 약해졌고, 발전에서 뒤처졌다고 19세기 이후 서양인들은 말한다. 하지만 리치는 19세기 유럽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비판을 했다는 것은 과거제의 병폐를 인지한 진정한 비판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4) 위의 저서, pp. 147.

15) 위의 저서 pp. 147.

16) 위의 저서, pp. 159.

마테오 리치가 적응주의 선교의 포문을 열고, 리치의 뒤를 이어 롱고르바디, 판토하, 아담 샬, 페르비스트 등이 중국 상류층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그중 페르비스트¹⁸⁾의 『타타르 여행기』에 소개된 교육제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페르비스트의 눈으로 서양인의 과거제와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테오 리치가 과거제를 설명할 때 유럽의 학사, 석사, 박사와 비교한 것처럼 페르비스트도 유럽과 비교하였다. 서양의 교육제도가 당시 중국에 어떤 방식으로 소개되었는지, 다른 두 문명의 제도와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접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특히 서양의 교육제도를 중국에 소개하였다. 유럽 대학에 대한 설명을 중국의 교육제도와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적응주의 선교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 문학을 숭상한다. 국왕은 널리 학교를 개설하여 한 나라와 郡에는 大學과 中學이 있고, 한 고을과 마을에는 小學이 있다. 小學에서는 학문과 덕행이 있는 선비를 선발해 스승으로 삼고, 中學과 大學에서도 학문과 덕행이 가장 뛰어난 선비를 선발해 스승으로 삼는데,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수만 명에 이른다. 소학은 文科로 네 과목을 배우는데, 고대 성현의 명철한 가르침, 각국의 역사, 각종 시문, 문장 토론이다. 학생은 7,8세부터 배워 17,18살에 이르면 학문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학교의 스승이 시험을 친다. 우수한 자는 중학에 진행하는데 理科라 하고 세 가지 전문 과목을 배운다. 1년에는 시비는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2년에는 性理를 살피는 도를 배우며, 3년에는 性理를 살피는 것을 배운다. 이상의 학문이 이루어지면 해당 학교의 스승이 시험을 친다. 우수한 자는 대학에 진행하는데 네 분야로 나뉘어진다. 듣는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데 첫째 道科는 교화를 진작하는 것을 주로 배우고, 둘째 教科는 가르침을 지키는 방법을 주로 배우고, 셋째 治科는 政事를 익히는 것을 주로 배우고, 넷째 醫科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주로 배운다. 모두 몇 년을 배워야 학문이 이루어진다. 학문이 이루어지면 스승이 다시 엄격하게 시험을 친다. 한 스승이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고 나면 다시 다른 선생이 질문한다. 한 사람이 여러 선생들의 질문에 두루 다 대답하고 이렇게 합격을 해야 일을 맡기는 것이 허락된다.¹⁹⁾

17) 최형섭, 「동양과 서양의 만남-페르비스트의 「타타르 여행기」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92, 2020, pp. 110.

18) 페르비스트는 플랑드르 예수회 소속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였다. 강희제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마테오 리치, 아담 샬의 뒤이어 중국 내에서 선교활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마테오 리치처럼 중국어에 능통했으며, 특히 만주어, 타타르어를 익혔다고 한다. 그가 저술한 『타타르 여행기』는 1682년 만주 지역을 여행하며 쓴 기행문이다. 동서 문명 교류의 역사를 그의 저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타타르 여행기』 중 교육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의 논문, pp. 110-111.

19) 諸國皆尚文學. 國王廣設學校, 一國一郡有大學中學, 一邑一鄉有小學. 小學選學行之士爲師, 中學大學又選學行最優之士爲師, 生徒多者至數萬人. 其小學曰文科有四種. 一古賢明訓, 一各國史書, 一各種詩文, 一文章議論. 學者自七八歲學, 至十七八學成, 本學師儒試之. 優者進於中學曰理科, 有三家. 初年學辨是非之法, 二年學察性理之道. 三年學察性理. 以上之學學成, 本學師儒又試之. 優者進於大學, 乃分爲四科. 聽人自擇, 一曰道科主興教化, 一曰教科主守教法, 一曰治科主習政事, 一曰醫科主療疾病, 皆學數年而後成. 學成, 師儒又嚴考閱之. 一師問難畢, 又

유럽에서는 소학·중학·대학의 교육제도와 학위 제도가 보편적이었다. 중국도 국립교육기관이 존재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서당이나 서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여 과거제를 통해 임용되는 시스템이었다. 페르비스트는 두 문명권의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그 둘을 대등하게 비교하였다.²⁰⁾ 제국주의적 관점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고자 비교함이 아닌 각 문명권 사람들의 교육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서 비교법을 활용하였다. 동서 문명의 상이한 교육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흔적들을 『타타르 여행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²¹⁾

예수회 선교사는 과거제를 자신이 살던 유럽의 교육제도와 비교하여 유럽에 소개하려고 하였다. 이는 적응주의 선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평가라고 생각된다. 이런 적응주의 선교를 통해 이례적인 호혜적인 동서 교류가 가능했다.

III. 18세기 동양에 대한 서양의 인식 전환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서와 저서들을 통해 유럽인들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잘 알지 못하던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유럽과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7세기~18세기는 종교개혁의 움직임에 힘입어 과학혁명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사고도 신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 중세의 제도, 정치에 대한 불만도 커지면서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고 왕의 권위가 높아져 절대왕정 국가들이 생겨났다. 절대왕정의 옹호자와 반대하는 계몽사상가로 하여금 중국의 전제군주정은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²²⁾

특히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군주와 계몽사상가들에게 중국의 군주제는 정치적 이상으로 여겨졌다. 기존의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에서 중국의 군주는 덕을 추구하는 도덕적 군주, 높은 학문과 문화 수준을 가진 계몽된 군주로서의 모습이었다. 이런 틀에서 절대왕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루이 14세와 그 주변 인물들은 중국을 모범국가로 생각하였다. 그는 실제로 로셀신부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보내어 중국을 견문하게 하였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강

輪一師，一人遍應諸師之間，如是取中，便許任事。(南懷仁，坤輿圖說，pp.84-86.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20) 위의 논문, pp. 141.

21) 위의 논문, pp. 142-143.

22) 이동희, 「라이프니츠를 중심으로 본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있어 중국철학 수용 문제」, 『철학논집』 10, 2005, pp. 29.

희제를 루이 14세와 비견하면서 찬양하였다. 루이 14세를 이상적인 군주로 생각하던 절대왕정 시기, 강희제는 그와 비견되는 인물로 제시될 만큼 중국에 대한 이상향이 컸었다.²³⁾

중국은 평등의 나라로 불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과거제였다.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는 귀족은 귀족, 평민은 평민일 뿐 계급 간의 위치 변화가 불가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제처럼 개인의 능력으로 출신성분을 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이런 일이 합법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초기에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도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과거제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다.²⁴⁾ 그 당시 중세 봉건사회에 불만을 지니던 계몽사상가들에게 과거제는 이상적인 교육제도로 여겨졌다.

특히 볼테르는 유럽에서 견고하던 제삼신분과 세습되던 귀족계층에 대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중국은 전제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국의 정치체제는 전제주의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과 효 위에 기초해 있다고 보았다.²⁵⁾ 1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서양인의 인식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그런 그에게 과거제는 혁신적으로 다가왔다. 과거제는 가문보다 실력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제가 지식인들에게 의해 통치하도록 보장하여 상하계층민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한 가문의 독점화를 막고 권력의 세습화를 방지하는 제도로 바라보았다.²⁶⁾

프랑스의 중농학파의 대표자인 케네는 저서 『중국적전제주의』에서 정식으로 중국관 고시제도를 모방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의 제도가 소개되자 가장 먼저 프랑스에서 과거제를 본떠 문관고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무원 임용제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후에는 영국에서도 과거제를 채용하게 된다. 『대영백과사전』에 있는 과거제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장 빠른 고시제도는 중국에서 채용했던 선거제도이며, 정기적으로 시행했던 시험이었다며 소개하였다. 그 전 유럽 세계에서는 고시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특히 필기시험은 18세기 이후에 유럽 대학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제는 문관고시제도의 근원이 되었고 유럽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했었다.²⁷⁾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을 더 이상 이상적인 국가로 여기지 않게 된다. 첫째, 전례 논쟁으로 예수회가 해체되면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무역 증가에 따라 상인들에 의한 기록이 더 이상 중국을 신비롭게 만들지 못했다. 셋째, 18세기

23) 위의 논문, pp. 30-31.

24) 金諤, 강길중,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중문, 1994. p. 3-4.

25) 위의 논문, pp. 33.

26) 위의 저서. p. 4.

27) 위의 저서. p. 3.

중반 이후 시기 내부로는 부패가 생겨났고 당시 유럽과 대비되어 중국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넷째, 중국을 옹호하던 사상가들의 이미지는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중국의 도덕적 군주,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통치는 이성을 중시하던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았다. 중국의 정치제도와 문화는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상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²⁸⁾

몬테스키외 이래로 중국에 대한 혐오 논조가 증가하였다. 기존에는 유가적 규범과 그에 따른 관료제도, 관료제도를 만든 과거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몬테스키외는 그것들이 도덕적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을 강제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안정성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무기력의 산물이었다고 그 결과 중국은 문명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근거를 들어 중국의 전제주의적 정치는 후진화의 상징물로 인식되어갔다.²⁹⁾ 18세기 이후 몬테스키외의 인지도는 커져갔다. 또 루소의 저서 『과학과 예술에 대한 논고』(*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 1750)에 보면 건전한 이성과 감성의 타락시키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이라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의 유가적 관료제도를 들었다. 중국에서 최고위 국가 관료를 낳는 것은 학습에 대한 공포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교육제도를 비판하였다.³⁰⁾

18세기 중반 이후, 후반에 이르러 유럽에서 가장 산업화가 진행되던 영국을 필두로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세속적인 보고서와 여행기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을 옹호하던 지지자들이 사라져갔고 중국 문명을 비난하는 경향이 다수가 되었다. 유럽의 성장과 대외적 팽창, 계몽사상가들의 내부적 변화에 맞물려 중국은 혐오의 대상이 되게 된다.³¹⁾

중국에 대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유럽에 확산되게 된다. 중국의 제도, 정치, 문화 등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제는 유럽 교육제도와 관료 선발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과거제의 평등함과 선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서양의 태도는 18세기 중반을 전후로 역전하게 된다. 중국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국가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거대한 역전은 서양의 흥기와 동양의 쇠퇴라는 거대한 분기(*Great Divergence*)의 현실이 들어가 있다.³²⁾ 이런 상황이 되면서 과거제도 같이 폄하 받게 된다. 과거제는 평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전제주의를 강화하는 산물로 인식되어갔다.

28) 위의 논문, pp. 41-42.

29) 박상현, 「계몽주의와 ‘중국논쟁’」, 『사회와역사』 113, 2017, pp. 414.

30) Harvey, 2012: 6; Zhilian, 2010: 101; Millar, 2010: 725,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pp. 421.

31) 위의 논문, pp. 416.

32) 위의 논문, pp. 420.

IV. 19세기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의 과거제 인식

1807년 모리슨을 시작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아편전쟁, 청일전쟁 등 많은 전쟁과 그에 따른 조약을 맺으며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많은 서양인이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들이 남긴 기록들은 당시 중국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사료들이다.³³⁾ 과거제의 관한 기록을 보면, 19세기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인들은 중국의 교육제도와 과거제, 서양의 교육제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점은 예수회 선교사들 동일하다. 그렇지만 과거제에 대한 인식 및 비판의 논조는 비슷한 듯 보이나 결론은 다르게 나타난다. 19세기 선교사들은 중국의 교육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주장한 이면에는 제국주의적 동기가 작용하였다. 중국을 보호국화해야 한다거나 영미 제국의 학부 교수를 초빙하여서 중국의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과 달리 중국을 폄하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조는 심화되었다.³⁴⁾

그중 사무엘 웰스 윌리엄스(Samuel W. Williams, 이하 윌리엄스로 약칭)의 『*The Middle Kingdom*』과 존 알렌 영(John. Allen. Young, 이하 알렌으로 약칭)의 『만국공보』에 적힌 과거제의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9세기 제국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윌리엄스의 『*The Middle Kingdom*』³⁵⁾은 과거제에 대해서 긍·부정적인 면 모두 서술하였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과거제는 경쟁사회를 부추기지만 중국인들로 하여금 교육을 중시하게 하여서 독서량 상승에 기여하였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제의 공개적이고 평등한 원칙은 중국의 정치체제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평등의 사상은 서양에서 추구하는 자유, 평

33) 노재식, 「『*The Middle Kingdom*』에 나타난 중국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중국사연구』 78, 2023, pp. 273-274.

34) 장의식, 「청말 중국 주재 서양 선교사의 과거 및 교육 개혁론」, 『중국사연구』 112, 2018, pp. 90-92.

35) 당시 미국인들은 주로 유럽인들의 저작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였다. 하지만 1차 사료가 아닌 2차 사료로서 접했고, 작자들은 중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 윌리엄스는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1차 사료 저작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윌리엄스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국을 서술하여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자 이 책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필수 서적이 될 만큼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 이 책은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서술했다는 인정을 받는다.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고, 종교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노재식, 「『*The Middle Kingdom*』에 나타난 중국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중국사연구』 78, 2023, pp. 273-290.

등사상과 맞물리는 것으로 서양 사회의 지향점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선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하였다.³⁶⁾

하지만 윌리엄스는 19세기 선교사들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과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9세기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은 중국의 교육은 유교 경전 학습에 치우쳐있고, 윤리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과 교육을 강조하며 교육의 목표도 전제주의적 통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서양의 근대식 교육은 자유와 평등, 민주적인 사상을 중점으로 과학기술의 전파와 보급을 강조한다고 생각했다.³⁷⁾ 서양의 교육방식이 옳았기 때문에 서양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중국의 교육방식은 구시대적이기 때문에 서양의 교육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윌리엄스도 이와 다르지 않은 비판을 하였다.³⁸⁾

일체의 모든 학문이 과거시험을 위한 것이다. 경전과 역사 외에 다른 학문과 보조적인 내용이 없다. 수학을 비롯한 본국의 지리, 세계 지리, 자연과학, 博物學, 기술공예 등의 학문을 배우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제도가 낳은 결과이다.³⁹⁾

윌리엄스는 과거제 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지식 외에는 등한시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중국의 과거제도의 의도는 매우 좋다. 하지만 단지 문장으로서 우열을 가리고 있고 그 策論은 空虛하다. 과거시험의 내용은 중국 선비들의 수족을 얹매이고 있고 사고를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耳目을 가리게 하여 見聞을 없게 한다.⁴⁰⁾

윌리엄스는 서양의 교육과 중국의 교육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중국은 강압적인 교육으로 진정한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거제는 학자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이는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었다. 위와 같은 의견은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⁴¹⁾

36) 노재식, 「19세기 중엽 서양인의 중국 과거(科擧)제도에 대한 인식—사무엘 윌리엄스(Samuel. W. Williams)의 *The Middle Kingdom*(中國總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89, 2019, pp. 315-318.

37) 위의 논문, pp. 308.

38) 위의 논문, pp. 308.

39) 『中國總論』(上), 376쪽.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0) 『中國總論』(上), 361쪽.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1) 위의 논문, pp. 309.

과거제도로 선발된 이들은 대부분 對外교섭 사무에 능통하지 못하고 중국을 오히려 더 쇠약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고 社稷을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 민심을 이롭게 할 수 없다.⁴²⁾

학생 개인의 학습방법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지혜를 비뚤어지게 하고 천부적 재능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해서 배양되는 것은 “金科玉條”처럼 노예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중국미래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불리하다.⁴³⁾

과거제도의 목적은 중화제국의 가장 학문적 역량이 있는 지식인들을 王權 주변으로 집 중시키기 위함이다.....서양의 문관 채용방식과 매우 다르며 심지어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는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수있다.⁴⁴⁾

한편 윌리엄스는 중국의 교육 목적은 통치계급에 복종시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45)중국의 전제주의적 제도가 학생들의 발전을 억제시키고 있고 사회발전 저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윌리엄스는 교육 목적이 과거제에 합격하는 것이었고 지식의 폭이 매우 협소해졌다고 본다. 또 당시 교육체제는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국가 통치의 안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켰고 사회의 유연성을 가져다주지 못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이 처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었고 인재 부족 현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⁴⁶⁾

이런 배경하에 윌리엄스는 중국 교육을 이해하였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윌리엄스는 중국과 서양의 교육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⁷⁾ 중국과 서양의 격차는 너무 크기에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서양의 기독교 국가를 모델 삼아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⁴⁸⁾ 이런 표현은 서양 기독교 문명 우월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윌리엄스는

42) 미국 선교사 마틴, 林樂知, 「中國專尚學論」, (萬國公報)704卷, 1882年 9月), 臺北: 華文書局影印本, 1968, 9261-9262쪽,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3) 『中國總論』(上), 376쪽,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4) (美)M. G.馬森 (Mary G. Mason) 著, 楊德山 譯, 『西方的中國及中國人觀念, 1840-1876』, 北京: 中華書局, 2006, 193쪽.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5) 『中國總論』(上), 361쪽.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6) 林家有, 『政治・教育・社會-近代中國社會變遷的歷史考察』,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4, 128-129쪽 참조.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7) 『中國總論』(上), 382쪽.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8) 『中國總論』(上), 379쪽.

49) 위의 논문, pp. 317-319.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국 교육제도를 바라보고자 했다. 하지만 서양 교육의 시각을 가지고 중국을 평가하려고 하였고, 결론적으로 중국은 패배자, 서양은 승리자라는 제국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서술을 하였다.

알렌의 『만국공보』 50)에서는 “지금의 중화는 예전의 중화가 아니다. 국력은 크게 약해졌고 백성들은 빈곤하고 어리석다. 사람이 비릇 많지만 별로 소용이 없고 영토는 크기만 하고 국력은 약하여 항상 침입만 당하고 있다.”⁵¹⁾라고 망하였다. 중국은 과거를 중시하고 서양은 현재를 중시하기에 중국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민족적 차이를 언급하면서 민족 성격의 차이가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⁵²⁾

『만국공보』에서 과거제의 가장 큰 폐단은 팔고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과거제를 통해 선발된 관리들은 대다수가 대외 교섭의 사무에 능통하지 못했기에 외교적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더 낙후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런 관리들을 선발하는 과거제는 진정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⁵³⁾팔고문 외에 다른 학문을 배우지 못했기에 실용적인 학문 발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제는 사서오경이 중심이었기에 그 외의 지식은 천대받았다. 알렌은 중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실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관하기도 하였다. 과거제도의 원래 취지는 매우 좋으나 유학만을 강조하고, 팔고문을 중심으로 하는 형식이 가장 큰 잘못이다. 지식인들을 틀에 얹매이게 하여 학문의 폭을 좁혀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⁵⁴⁾

『만국공보』에서 지적한 내용은 어느 정도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다. 체계적이고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과거제와 특히 팔고문 형식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중국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20세기 한 중국의 지식인은 ‘과거라는 시험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데 있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비판을 보듯, 과거라는 제도는 신뢰성을

50) 알렌은 교육, 신문, 출판, 번역 등 간접적 선교방식을 취한 선교사 중 한명이다. 『만국공보』라는 신문은 근대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처음에는 기독교적 내용이 주였으나, 서양의 지리, 역사, 정치등을 소개하는 종합적 시사 신문으로 바뀌었다. 서양을 중국에 소개한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였다. 알렌은 『만국공보』를 통해 서양의 발전된 과학, 정치, 교육 등에 관한 지식을 소개하고자 편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지식인층과 관료층들은 서양의 사상과 기술들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노재식,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청말 사회의 비판에 관한 고찰 -과거제도(科舉制度)와 중국 전통 교육제도 비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4, 2010, pp. 104-105.

51) 狄考文, 「擬請東師創設總學堂議」(『萬國公報』 27冊, 1891年 4月, 臺北華文書局影印本, 1968), p.16858.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52) 위의 논문, pp. 107.

53) 위의 논문, pp. 111.

54) 林樂知, 「中西關係論略」(『萬國公報』 358卷, 1875年 10月), p.1583.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알렌을 비롯한 서양인들은 과장해서 중국 및 교육제도를 폄하했다.

과거제도는 중국 지식인들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인격의 상실을 야기시켰다.⁵⁵⁾

당시 중국 사인들의 목표는 이익과 권세뿐이고 이것은 과거제도가 조성한 것이며 과거 제도는 중국 사인들의 인성을 비뚤어지게 만들었다.⁵⁶⁾

하지만 이런 과도하고 주관적인 비판은 옳지 않았다. 중국의 교육제도를 자신들의 시각으로 재단하여 비판하였고 중국의 과거제를 지나치게 부정하였다. 이는 서구중심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본문 내용을 통해 19세기 이후 선교사들의 비판 기초에는 제국주의적 시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거제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교육제도는 유교만을 중시했기에 실용적인 학문이 발전하지 못했고 인재들이 양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서양에 패배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과거제 같은 관료 선발제는 전제군주정을 강화시켰고 이는 국가의 유연성과 학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비판이 일부 사실이지만, 이런 비판을 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 보호국화를 주장하고 서양 교육제도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는 이면에는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임을 증명해준다. 이런 점이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과 다른 비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V. 결론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의 교류는 항상 있었다. 많은 서양인이 중국을 방문했고 서양인의 눈으로 중국의 문화, 정치, 교육, 제도를 바라보았다. 특히 1500-1800년대 선교사를 통해 유럽으로 전해진 동양은 서양인들로 하여금 문화적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양방향적인 문화 교류였지만 균등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19세기 이후의 동서양의 교류와는 다른 것이었다.⁵⁷⁾ 19세기 이후 제국주의적 시각이 도래하면서 더 이상 양방향적 교류가 아닌 서양에서 동양으로 문명이 수입되는 단방향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55) 花之安, 「續養賢能論」(『萬國公報』555卷, 1879年 9月), p.6649.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56) 林樂知, 「中國孤立之關係」(『萬國公報』185冊, 1904年 4月), p.22647.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57)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김성규 옮김,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휴머니스트, 2009. pp. 40.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사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과거제 인식과 19세기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의 과거제 인식을 비교하였다. 또한 18세기 중반 이후 중국에 대한 비판 기조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계몽사상가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19세기 이후 편견적인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주었음을 사료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16~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은 적응주의 선교 노선을 택하면서 중국의 문화, 정치, 풍습을 받아들이고 현지인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선교사임에도 겉으로는 신앙적 열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언어 학습을 통해 현지인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⁵⁸⁾ 언어를 익히는 것의 중요성은 19세기 이후 윌리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미국인들은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어에 능통했던 윌리엄스는 중국을 보다 잘 이해했고, 그가 쓴 저서는 큰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마테오 리치를 시작으로 페르비스트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서양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평가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것처럼 과거제의 비판 논조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가지로 답을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적 사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을 남긴 선교사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큰 공통점이 존재한다. 언어를 능통하게 다뤘고 중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서양인이지만 누구보다 중국인에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즉 그들은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제 및 교육제도를 비판하였다. 또한 중국 입국 목적은 선교활동으로 같았다. 물론 시대적 배경과 환경이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 기조가 달라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동양을 바라보는 것에 있었다. 서양과 동양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중국을 보호국화하고 서양의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서양은 이미 세계의 승리자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과거제는 뛰어난 관리선발제도임에도 지속적인 병폐가 존재하였다. 과거제는 중국 사회를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집단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과거제는 지식에 대한 관의 지배, 관직 존중과 관존민비 사상, 황제의 전제적 지배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등, 사회 전체를 보수적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시험은 실무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암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때문에 과거출신자들은 현장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었고 서리가 부정을 저지

58) 조은식, 「마테오 리치의 중국선교 방법론 연구」 『선교신학』 17, 2008, pp. 10.

르게 되었다.⁵⁹⁾ 19~20세기 중국의 지식인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서양 선교사들이 지적한 과거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유사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유로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미조성, 실무에 맞지 않는 과목, 팔고문의 폐해 등 서양인들의 시각에서도, 중국인의 눈에서도 공통적으로 반드시 과거제는 개혁이 필요한 존재였음은 분명하다. 19세기부터 중국인들이 느낀 서구 문명에 대한 충격과 이로 인해 생겨는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는 교육제도 개혁 방법을 논의하고 나아가는데 반드시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본고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생각된다. 우선 예수회와 개신교의 차이이다.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 방식의 차이다. 적응주의 선교 노선은 획기적인 방안이었고 실제로 성공적이었다. 반면 19세기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은 적응주의 노선을 택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19세기 이후 선교사들은 동양을 존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즉, 19세기 이후 선교사들이 적응주의 노선을 택하지 않은 요인 중 하나로 제국주의적 사고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16~17세기에 비해 19세기 이후 과거제의 폐단이 심화되었으므로 비판이 강화된 것이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제국주의적 시각은 과거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서히 변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앞으로 후속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잠정적으로 이와 같은 결론은 내리고자 한다.

본고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으나 기존에 연구가 많지 않았던 과거제에 대한 서양인들의 사고 변화를 시대별로 관찰하고 나열해본 시도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제국주의적 사고가 들어 서기 전, 1500~1800년대 사이에 있었던 호혜적인 동서교류와 대조하면서 19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서구우월중심주의가 동양에 들어온 시기와 비판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에 대한 단순한 반감만을 가지는 것보다 기존에 호혜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가 우월하다는 교육에 기반해 동양이 갖고 있던 훌륭한 역사들을 실제로 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⁶⁰⁾ 지금도 극복하고 있지만 서구중심주의에서 탈피해 다시한 번 동서간의 호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고를 마친다.

59) 오금성, 「중국의 과거제」, 『한국사 시민강좌』 제 46집, 2010, pp. 260-261.

60)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김성규 옮김,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휴머니스트, 2009. pp. 17.

참고문헌

- 김성규(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 휴머니스트.
- 노영희(2002).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히라카와 스케히로 지음. 동아시
아
- 노재식(2010).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청말 사회의 비판에 관한 고찰 -과학제도(科
學制度)와 중국 전통 교육제도 비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4, pp. 103-123.
- 노재식(2019). 19세기 중엽 서양인의 중국 과거(科擧)제도에 대한 인식-사무엘 윌리엄스
(Samuel. W. Williams)의 *The Middle Kingdom*(중국총론(中國總論))의 내용을 중
심으로-. 중국학연구, 89, pp. 299-325.
- 노재식(2023). *The Middle Kingdom*에 나타난 중국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중국사연구, 78, pp. 273-290.
- 박상현(2017). 계몽주의와 ‘중국논쟁’. 사회와역사, 113, p. 414.
- 오금성(2010). 중국의 과거제. 한국사 시민강좌, 46, pp. 244-262.
- 오금성(2023). 등용문, 중국의 과거시험 1300년. 지식산업사.
- 이동희(2005). 라이프니츠를 중심으로 본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있어 중국철학 수용 문제. 철
학논집, 10, pp. 5-47.
- 장의식(2018). 청말 중국 주재 서양 선교사의 과거 및 교육 개혁론. 중국사연구, 112, pp.
73-109.
- 전혜선(2016).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역사비평사.
- 조은식(2008). 마테오 리치의 중국선교 방법론 연구. 선교신학, 17, pp. 1-16.
- 최형섭(2020). 동양과 서양의 만남-페르비스트의 「타타르 여행기」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92, pp. 109-150.
- 표정훈(1998). 신유학 사상의 새로운 해석 중국의 ‘자유’ 전통. Wm.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이산.
- 金淸, 강길중(1994).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중문.

Westerners' Perceptions of China's Education System in the 16th-19th centuries: A Focus on Assessing Perceptions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Kim, Soo-yeon

Sheen, Joo Hyun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Western perceptions of the Orient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past system left by missionaries in China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We will examine how Westerners' perceptions of the East changed over time through their evaluations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identify how imperialist perspectives influenced their evaluations of the East. Jesuit missionaries' accounts of the examin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re characterized by introductions, personal reflections, and comparisons of European and Chinese educational systems, reflecting the curiosity about the East at the time and the European interest in the vastness and diversity of the Chinese continent. Overall,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s seen as an excellent bureaucratic appointment system. The reports and writings of Jesuit missionarie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provided Europeans with a great deal of information about China,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18th century was a transitional period,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the East was no longer seen as an ideal. China was increasingly viewed as an object of loathing, as a device for comparison with European growth. Europeans' evalua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also changed from a symbol of equality to one that reinforced despotism. By the 19th century, the imperialist idea that the West, including Europe, was civilized and the rest of the world was barbaric had become entrenched. The past system was seen as a test of the inferior Chinese. By comparing Western perceptions of the past system over time, we can see that Western perceptions of the East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19th century.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the Chinese examination system from the Western perspective to confirm that the imperialist perspective influenced the change in the West's perception of the East.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t examines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past system, which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the past,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imperialist perspective in the 19th century through listing and comparison.

Keywords: Imperialism, Civil Service Examination, Society of Jesus, Enlightenment, Protestantism, Missionary

역사 ‘팩션(faction)’의 왜곡과 역사교육에의 활용 방안

이규비*

신주현**

요약

본 연구는 ‘역사 팩션(faction)’의 왜곡과 역사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팩션의 유행 배경과 양면성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팩션을 올바르게 수용하도록 돕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팩션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 프로슈머 등장, 원 소스 멀티 유즈가 발 전하는 배경 속에서 확산이 되었다. 이러한 팩션의 순기능으로는 과거 경험을 통한 카타르시스, 역사 인식의 확장 등이 존재하였으나,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역기능도 존재하 였다. 특히 팩션 왜곡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팩션 왜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역사 인식과 관련된 문항에서 팩션이 자신의 역사 적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팩션 왜곡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 식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팩션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긍정적인 효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을 고민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규비판단 모형’은 소비자가 팩션을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어: 역사교육, 팩션, 프로슈머, 영화, 역사 왜곡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서 론

현재 대한민국은 팩션 콘텐츠의 전성기다. 팩션(faction)은 역사적 사실(fact)에 문학적 허구(fiction)를 가미한 장르를 의미한다. 역사와 문학의 결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사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¹⁾ 팩션의 등장과 유행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 현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팩션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과 영향은 무엇일까? 부각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본 연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역사 팩션에 대한 여러 관점과 논쟁을 확인하였다. 대체로 선행 연구들은 시대별로 공유하는 특징이 존재하였다. 동시대에 이루어진 연구 간의 관점 차이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는 연구사가 나타났다. 팩션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널리 확산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 이전의 연구²⁾들은 대부분 당대 팩션의 개념과 특징, 유행 배경에 대해서 주목한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시대가 직면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인 비교적 최근의 연구³⁾자료는 팩션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을 자세하게 탐구한다. 문제 인식에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
- 1) 박문정, 『팩션(faction)문학 콘텐츠의 현실 예측력과 파급력: 안토니오 타부키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6, p.58.
 - 2) 본 논문에서 참고한 2013년 이전의 역사 팩션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상민, 『역사 in 영화 - 영화로 보는 역사 신년특집 팩션 - 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3)』, 「역사&문화」, 2006, 문흥술, 『역사소설과 팩션』, 「문학과 환경」, 2006, 김기봉, 『팩션으로서의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2007, 한기호, 『왜 팩션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2007, 강현구, 『한국 팩션의 서사전략-인물 설정과 역사성 확보의 서사전략을 중심으로』, 2008, 김시무, 『사극(史劇)과 팩션영화의 경계 -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009, 김기봉 외 2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만남』, 「시민인문학」, 2009, 나인호, 『팩션과 역사교육』, 「대구사학」, 2010, 김영성, 『역사적 공백을 서사화하는 소설의 방식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팩션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012, 김미경, 『역사문학의 글쓰기 전략 및 글쓰기 미학: 팩션과 기록극 -안나 제거스의 <1431년 루앙에서의 잔 다르크 재판>을 중심으로-』, 「혜세연구」, 2013.
 - 3) 본 논문에서 참고한 2013년 이후의 역사 팩션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문정, 『팩션(faction)문학 콘텐츠의 현실 예측력과 파급력』,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6, 최배석, 『실재스토리 팩션 영화 대(對) 허구스토리 팩션 영화의 수용자 평가에 대한 비교연구: <명량, 2014>와 <군도, 2014>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6, 김기봉, 『사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꿈꾸는 역사’로서 사극』, 「인문콘텐츠」, 2016, 이병철, 『역사콘텐츠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드라마와 영화를 토대로-』, 2017, 류경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뉴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유형 연구 -‘국내외 사적지 탐방 콘텐츠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021, 권태경, 『역사 대중화와 역사 왜곡의 문제』, 「인문사회」, 2022, 진은경, 『‘세종’팩션영화의 스토리텔링 유형과 전략』, 「인문사회」, 2022, 유병준, 『역사학의 방법에서 역사문화콘텐츠적 접근으로의 전환』, 「스토리콘텐츠」, 2023.

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별 구분을 통해 픽션 장르의 발전에 따른 양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까닭이다. 역사 픽션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방안은 대부분 창작자나 역사가와 같은 전달자의 입장 위주로만 서술되었다. 지금까지의 픽션 연구사가 가지는 한계이다. 생산과정에서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정보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창작물을 소비하게 될 수용자 측면에서 방안을 탐구해야 한다. 수용자가 비판하는 능력과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문제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째, 역사 픽션 대중화로 인한 전문 서적의 소외현상이다. 김기봉은 픽션의 문제점으로 대중이 전문가가 쓴 서적을 읽지 않는다⁴⁾는 점을 지적한다. 나인호도 전문 역사서가 대중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⁵⁾고 이야기한다. 역사 픽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역사 학문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의 전문적인 서적을 딱딱하다고 여기며 멀리할 가능성 또한 있다. 대중은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분명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확장의 출발점은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탐구 내용 공유이기 때문이다. 대중화는 전문적인 탐구 결과를 비전문가에게 알려주며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⁶⁾ 픽션 대중화가 역사학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둘째, 김상민은 명예훼손을 비롯한 왜곡의 위험성⁷⁾을 강조했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⁸⁾ 픽션이 왜곡 문제를 직면하는 원인은 픽션 특성상 오락성과 상업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픽션 속 왜곡된 역사를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없이 무조건 습득하는 시청자들의 태도도 역사 왜곡으로 가는 지름길이다.⁹⁾

김기봉도 픽션을 실제 역사로 착각하는 대중을 지적했다. 동시에 대중이 픽션에 열광하는 현상을 병리학적 현상일지도 모른다¹⁰⁾고 언급했다. 대중이 픽션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은 동의한다. 픽션은 역사서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픽션의 특성상 허구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왜곡 없는 픽션’이라는 말이 오히려 모순적이다. 따라

4) 김기봉, 『픽션으로서의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2007, p.7.

5) 나인호, 『픽션과 역사교육』, 「대구사학」, 2010, p.308.

6) 오향녕,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 「역사와현실」, 2016, p.94.

7) 김상민, 『역사 in 영화 - 영화로 보는 역사 신년특집 픽션 - 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3)』, 「역사&문화」, 2006, p.26-33.

8) 김상민, 『역사 in 영화 - 영화로 보는 역사 신년특집 픽션 - 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3)』, 「역사&문화」, 2006, p.34.

9) 권태경, 『역사 대중화와 역사 왜곡의 문제』, 「인문사회」, 2022, p.613.

10) 김기봉, 『픽션으로서의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2007, p.18.

서 진실과 왜곡에 대한 정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관련 내용은 III장에서 역사학과 팩션의 관계를 다루며 자세하게 탐구한다.

셋째, 역사 팩션의 상업화 문제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홍술과 나인호가 다르게 바라본다. 문홍술은 정보사회로 인한 모든 것의 상품화와 획일화를 지적하였다.¹¹⁾ 나인호는 팩션이 우세할수록 역사학은 위기를 겪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동시에 현실적인 지향점을 제시한다. 역사의 상업화와 역사의 대중문화화¹²⁾가 바로 그 지향점이다. 나인호는 팩션의 상업화를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역사학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책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논의 중에서 나인호의 입장에 가깝다. 직면한 현실을 피하고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팩션이 가져온 문제를 막기 위해 생산을 막을 것인가? 이는 팩션의 긍정적 효과를 등한시하는 행동이다. 나인호의 연구는 팩션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행해진 문제점을 부각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점차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였다. 문홍술이 언급한 정보사회의 특성 중 나타나는 획일화에는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획일화로 잃게 되는 개성과 독창성, 인간다움, 비판 정신을 충족시키고자 팩션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팩션 속 고증을 찾으려 비판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홍술이 지적한 사항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공통적이게 언급한 문제점은 아니다. 팩션이 정보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기능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이다.¹³⁾ 해당 입장에 비동의한다. 문홍술의 연구가 진행되었던 2006년 당대 사회의 모습은 정보사회이다. 팩션이 정보사회의 모습보다 전사로서의 역사 이야기를 담아내는 경우가 많았을 뿐이다. 정보사회를 통해 세상 밖으로 갓 나온 팩션이 세상을 비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현재는 팩션도 정보사회의 모순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문홍술이 언급한 문제점은 팩션 장르 자체로서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모순 비판은 팩션의 주제와 내용으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다.

역사 팩션이 앞으로 역사학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며, 대중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역사 팩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창작활동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팩션을 보는 대중에게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 특히 역사 팩션의 주요 문제인 역사 왜곡은 정보를 수용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선행 연구들이 대중보다는 역사가와 창작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하였던 점이 아쉽다. 이제는 한 발자국 나아가 대중에게도 열쇠를 건네주어야 한다. 팩션 속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는

11) 문홍술, 『역사소설과 팩션』, 「문학과 환경」, 2006, p.76.

12) 나인호, 『팩션과 역사교육』, 「대구사학」, 2010, p.310.

13) 문홍술, 『역사소설과 팩션』, 「문학과 환경」, 2006, p.78.

열쇠를 본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역사 픽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소비자 중심으로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선행 연구자료는 역사 픽션의 양면성 중에서도 역사 픽션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소비자 중심으로 해결하려면 소비자 파악이 우선이다. 따라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역사 픽션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역사 픽션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을 역사 왜곡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의 대상은 70명의 10대와 20대로 설정했다. 설정 기준은 1인 미디어 시대 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장과 가까운 연령대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와 설문 조사에서 중점으로 바라볼 역사 왜곡과 잘못된 인식은 현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정보를 바로 습득하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설문을 통해서 대중이 픽션 속 배경과 실제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픽션이 역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¹⁴⁾하고자 한다. 실시 전에 설문의 결과가 역사 픽션의 역사 왜곡 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혹여 결과가 본 연구 계획의 가설과 일부 다르더라도, 역사 픽션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최근 현황을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픽션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예정이다.

설문 속 역사 픽션의 장르와 시청률, 방영 시기를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 반영했다. 문항 속 작품 선별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픽션의 역사적 배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업영화 장르로 선별한다. 둘째, 근 10년 작품인 2014년 이후에 방영한 작품으로 선별한다. 셋째, 한국사를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대를 골고루 선별한다. 넷째, 관객이 100만 이상으로 흥행한 작품을 선별한다.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¹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개봉한 역사영화의 전국 관객 수를 정리했다. 관객 수가 100만 이상인 작품을 흥행 작품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1,000만 이상 1편, 900만 이상 0편, 800만 이상 1편, 700만 이상 4편, 600만 이상 3편, 500만 이상 2편, 400만 이상 3편, 300만 이상 6편, 200만 이상 6편, 100만 이상 12편이었다.

14) 이병철, 『역사콘텐츠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드라마와 영화를 토대로』,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p.57.

15) 이교신,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픽션 역사영화의 활용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5.

<표-1> 2014년 이후 역사 영화의 전국 기준 관객 수¹⁶⁾

역대 역사 영화 흥행 작품 (단위:명)	
1,000만 이상	명량(1,761만), 국제시장(1,424만), 암살(1,270만), 택시운전사(1,209만)
900만 이상	항목 없음
800만 이상	해적: 바다로 간 산적(864만)
700만 이상	밀정(748만), 한산: 용의 출현(726만), 1987(723만), 인천상륙작전(704만)
600만 이상	군함도(659만), 사도(624만), 연평해전(604만)
500만 이상	덕혜옹주(559만), 안시성(544만)
400만 이상	봉오동전투(477만), 군도: 민란의 시대(477만), 남산의 부장들(475만)
300만 이상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387만), 역린(384만), 남한산성(382만), 국가부도의 날(375만), 귀향(358만), 영웅(327만)
200만 이상	서울의 봄(295만), 말모이(281만),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242만), 박열(235만), 명당(208만), 천문: 하늘에 묻는다(200만)
100만 이상	노무현입니다(185만), 대호(176만), 임금님의 사건수첩(163만), 창궐(159만), 스윙키즈(147만), 궁합(134만), 해적: 도깨비 깃발(133만), 동주(116만),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114만), 간신(111만), 오빠생각(106만), 1947 보스톤(102만)

총 41편의 작품 중에서 설문 조사에서 사용할 작품 14개를 선별하기 위해서 분야를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었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시대 파악이 어려운 작품이나 청소년 관람 불가인 영화는 선별 과정에서 배제했다. 단순히 외면적·단편적·피상적인 역사적 소재를 사용했다고 판단되지만, 실태 파악을 위해 넣은 작품도 있다.

<표-2> 2014년 이후 흥행 영화의 시대적 분류

전근대	<명량>,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한산: 용의 출현>, <사도>, <덕혜옹주>, <안시성>, <봉오동전투>, <군도: 민란의 시대>,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역린>, <남한산성>,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박열>, <명당>, <천문: 하늘에 묻는다>, <대호>, <임금님의 역사수첩>, <창궐>, <궁합>, <해적: 도깨비 깃발>
근현대	<국제시장>, <암살>, <택시운전사>, <밀정>, <1987>, <인천상륙작전>, <군함도>, <연평해전>, <남산의 부장들>, <국가부도의 날>, <귀향>, <영웅>, <서울의 봄>, <말모이>, <노무현입니다>, <스윙키즈>, <동주>,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오빠생각>, <1947 보스톤>

분류한 결과는 전근대 배경 영화가 20개, 근현대 배경 영화가 20개이다. 전근대 배경 영화들은 세부적으로 고대부터 조선까지의 시기를 골고루 반영하고자 하였다. 근현대 배경 영화

16) KOBIS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연도별 개봉일람, www.kobis.or.kr.

또한 개화기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설문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하였다. 그 외에도 역사 픽션 속의 왜곡된 내용이 문항 구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영화도 함께 포함하였다.

전근대 배경 영화는 <명량>, <사도>, <안시성>, <남한산성>을 선정하였다.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영웅>, <암살>, <택시운전사>, <1987>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근대 배경 영화가 4편, 근현대 배경 영화가 4편이다. 총 8편의 영화를 활용해 문항의 질문 형태를 구성하였다. 상위질문은 4개, 하위질문은 12개이다. 연령 조사 질문은 표에 따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설문 조사지에는 포함된다.

<표-3> 설문 조사 14개 문항의 질문 형태

상위 질문 형태	하위 질문 형태
역사 픽션 장르에 대한 관심	역사 픽션에 대한 흥미도를 별점으로 표현
	보기에 주어진 8개 중 시청한 픽션 선택형
역사 픽션의 영향 파악	역사 픽션이 자신의 역사적 지식에 영향을 끼친 수준 선택형
역사 픽션의 왜곡성 인지	최근 시청한 역사 픽션 왜곡의 심각성을 묻는 선택형
역사 픽션 속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	<남한산성>의 내용 중 사실인 것을 고르는 객관식
	<명량>의 내용 중 허구인 것을 고르는 객관식
	<안시성>의 내용 중 사실인 것을 고르는 객관식
	<사도>의 내용 중 허구인 것을 고르는 객관식
	<암살>의 내용 중 사실인 것을 고르는 객관식
	<1987>의 내용 중 허구인 것을 고르는 객관식
	<택시운전사>의 내용 중 허구인 것을 고르는 객관식
	<영웅>의 내용 중 사실인 것을 고르는 객관식

상위질문 중 역사 픽션 속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을 묻는 문항은 특정된 영화를 기준으로 사실과 허구를 묻고 있기에, 영화의 포스터를 넣어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영화의 제목만 주어지는 상황보다 포스터에 주어지는 기본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설문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하였다. 포스터가 영화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화에 등장한 인물과 배우, 시놉시스와 같은 요약된 줄거리, 연출자에 대한 정보, 평론가의 별점 등이 있다. 포스터마다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은 영화를 본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하위질문을 통해서 픽션을 통해 얻은 역사적 지식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보기를 보고 허구와 사실을 구분하는 역사적 통찰력에 대한 능력도 함께 볼 예정이다. 문항의 내용

은 모두 영화 속 내용을 기반으로 설정한 역사적 사실과 허구이다. 이렇게 구성한 까닭은 영화를 본 대상자가 문항의 내용이 봤던 장면이라고 고르는 착오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영화를 보지 않은 대상자 경우에도 영화 속에서 각색된 사실과 허구를 문항으로 접할 때 역사적 통찰력이 발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정한 팩션을 고르는 하위질문에서 시정한 영화가 하나도 없다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 속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진실과 허구를 판단한다는 설문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지 않아도 설문 내용을 풀 수 있지만, 최소 1개 이상의 영화를 본 사람을 대상화하였다. 해당 설문은 단순 역사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설문 참여 후에 사실과 허구에 대한 정답을 확인할 수 없게 설정하였다. 인식 조사이기에 정답을 바로 공개할 경우 다른 설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문 조사의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폼 형식의 전자설문이다. 더불어 해당 설문은 대상의 연령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연령 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연구의 근거로 제시한다. 설문 조사 결과와 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의 시작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록-1〉 설문 조사지 양식

[illegible]

II. 역사 팩션의 양면성

1. 현대 역사 팩션의 유행

역사적인 사실이나 설정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팩션의 종류는 다양하다. 역사소설, 역사영화, 사극 드라마, 역사 웹툰 등이 예시이다. 역사 팩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영화, TV, 연극 등 넓은 범위의 문화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¹⁷⁾ 조선 시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를 예시로 들고자 한다. 포털사이트에 해당 인물을 검색하면 영화 <사도>,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드라마 <비밀의 문>, 역사소설 <빙애> 등 많은 자료가 나온다. 모두 사도세자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한 창작물이다. 이러한 팩션의 유행 및 확산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팩션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산물이다. 현대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한다. 따라서 대중은 인터넷에 떠도는 과잉 생산된 정보를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은 대중이 허구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거창한 이론보다 사람·사물·사건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따진다는 것이다.¹⁸⁾ 대중들은 가상의 허구적인 이야기와 동시에 그 속에 담긴 현실성을 원한다. 역사 소재의 팩션은 사실을 통해 대중들의 욕망을 충족시킨다.¹⁹⁾

둘째, 팩션은 탈근대적 주체와 소통 공간의 출현에 영향을 받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는 독자 또는 관객과 같은 소비자가 콘텐츠를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유희할 수 있다. 더불어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 ‘프로슈머(Prosumer)’이다. 프로슈머는 앨빈 토플러(A. Toffler)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단어로, ‘생산적 소비자’를 의미한다. 탈근대적 주체인 프로슈머의 등장과 사이버 공간이 소통공간으로 활용되는 배경은 새로운 장르²⁰⁾인 팩션이 등장하도록 이끌었다. 탈근대는 타인은 구원이라는 문장으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소통의 시대이다. 그러나 대중은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타자를 찾기 어렵다. 그들이 허구의 공간에서 타자를 구하는 이유²¹⁾이자, 팩션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다.

17) 문홍술, 『역사소설과 팩션(faction)』, 「문학과 환경」, 2006, 5(2), p.69.

18) 한기호, 『왜 팩션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2007, p.279.

19) 진은경, 『‘세종’팩션영화의 스토리텔링 유형과 전략』, 「인문사회」, p.533.

20) 박문정, 『팩션(faction)문학 콘텐츠의 현실 예측력과 파급력: 안토니오 타부키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6, p.60.

21) 김기봉, 『팩션(faction)으로서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2007, 63, p.63.

셋째, 팩션은 'OSMU(one/single source & multi-use)'에 매우 적합하다. 원 소스 멀티유즈는 특정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마케팅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본래 원 소스 멀티유즈는 정보 활용의 측면, 팩션은 창작적인 예술의 측면의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콘텐츠 산업은 각 분야의 단독 존재보다 서로 연결될 때 강력해진다. 이러한 매개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팩션이 적합하다.²²⁾ 또한, OTT(Over-The-Top) 플랫폼의 발달로 대중은 세계 각국의 콘텐츠를 쉽게 시청할 수 있다. 팩션을 잘 활용한다면 전 세계 공략이 가능하다.

팩션은 위와 같은 배경과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팩션의 확산과 유행은 역사 대중화와 영상 역사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확히는 역사와 팩션이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팩션의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역사와 팩션의 관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역사 팩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팩션과 역사학의 관계

피카소는 예술을 사실에 관한 진실을 말하는 허구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충족하는 현대의 예술 장르가 바로 팩션이다.²³⁾ 팩션(faction)은 역사적 사실(fact)에 문학적 허구(fiction)를 가미한 장르이다. 팩션의 요소인 역사적 사실은 많은 문화 예술 작품의 원천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는 대중에게 역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역사적 사실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을 해석할 때 역사적 의미²⁴⁾를 얻을 수 있다.

팩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은 팩션과 역사학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팩션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역사학의 개념도 알아야 한다. 역사학이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여러 활동에 대한 제반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과거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다. 접근과 방법에 따라서 역사학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분류되기도 한다. 하나의 사건을 지리, 과학기술, 사상, 종교,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관점에서 뜯어보는 역사학의 특성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역사학의 대표적인 특성

22) 한기호, 『왜 팩션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2007. p.283.

23) 김기봉, 『팩션(faction)으로서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2007, 63, p.5.

24) 류경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뉴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유형 연구 - '국내외 사적지 탐방 콘텐츠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021, p.91.

으로는 사실(fact)이 존재한다. 과거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라면 역사란 그것에 관한 스토리텔링이기도 하다. 전자는 원본, 후자는 재현물이다.²⁵⁾

김기봉은 역사학과 팩션의 관계를 하이퍼 리얼리티(hyper-reality)로 바라봤다. 하이퍼 리얼리티란 실제 경험과 가상 혹은 모방 된 경험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술과 문화의 발전과 관련 있는 용어이다. 그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닌 허구성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 속 진실을 대변하며, 허구가 실제로 일어난 사실보다도 현실적인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²⁶⁾ 역사가 팩션화를 거치며 산문성과 진실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하이퍼 리얼리티이다. 그는 근대 사실주의가 사실과 허구의 이분법이며, 역사학과 문학 사이에 넘지 못하는 강을 위치시켰다고 언급하였다.²⁷⁾ 이는 역사적 진실이 허구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문장이다.

나인호는 김기봉의 주장 중 역사가 가지는 허구성을 인정한다. 동시에 틀린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근대 사실주의가 사실과 허구의 이분법을 강조했다라는 말은 당대 역사가들이 서사를 등한시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랑케가 말한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과거를 완벽하게 복원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보다, 과거의 일회적 사건에 내재 된 보편적인 의미를 탐구하자는 것이다. 랑케 외에도 19세기의 역사가 중 이야기체로 역사를 서술한 인물²⁸⁾이 많다. 서사는 고대부터 19세기 근대 역사학을 비롯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적 역사학²⁹⁾까지 전해져 온 역사학의 전통적인 서술 방식³⁰⁾ 중 하나이다.

둘째, 근대에 역사서술이 역사학으로 전문화되면서 김기봉의 주장과는 반대로 역사학과 문학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³¹⁾ 이에 동의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역사 팩션이다. 역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사실과 사실을 재구성한 상상력의 경계선³²⁾이 모호하다. 앞으로의 역사 연구는 객관적 사실에 매달린 채로 따분하고 지루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아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으로 신선하고 독창성 있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작업에 가까워질 것이다.

25) 김기봉 외 2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만남』, 「시민인문학」, 2009, p.71.

26) 김기봉, 『팩션(faction)으로서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2007, 63, p.7.

27)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프로네시스」, 2009 p.113.

28) 대표적으로 로마사가인 ‘테오르드 모젠’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29) 역사학의 접근방식 중 하나로, 20세기 후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0) 나인호, 『팩션과 역사교육』, 「대구사학」, 2010, p.313.

31) 나인호, 『팩션과 역사교육』, 「대구사학」, 2010, p.314.

32) 류경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뉴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유형 연구 - ‘국내외 사적지 탐방 콘텐츠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021, p.90.

이처럼 역사학과 문학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존재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는 명백한 증거에 기초하여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려는 역사와 시인이 창작한 이야기의 차이 강조하였다. 당대의 역사학자 폴리비오스도 역사가는 시인이나 작가처럼 과장하지 않으며,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말을 기록함을 주장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와 시인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와 과학자로 더 많이 알려졌으나, 그가 한 주장이 당대 작가와 시인의 입장을 잘 대변하였기에 활용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보편적 진리, 역사는 개별적인 사실을 말하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보편적 진리와 개별적 사실을 구별하여, 보편적 진리는 개별 사실들이 허구에 의해 일관성 있게 엮인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시가 역사보다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대립은 19세기 근대 역사학에 오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역사가 라인하르트 코젤렉은 보편적인 역사적 의미를 추구하는 작업을 추구하며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사건 간의 내적 연관성과 보편적인 역사적 의미를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방식이 중요해진 것이다.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여러 사건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 대신에, 사건을 플롯에 기반하여 연속적이고 극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서사적 통일성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³³⁾

이처럼 역사학은 사실과 허구가 결합 된 것이다. 역사학과 픽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학과 문학의 차이를 살펴보면 역사서술 방식의 변화도 함께 바라보았다. 픽션을 문학의 측면에서 바라본 인물도 있다. 문홍술은 문학의 측면에서 역사 픽션과 역사소설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두 장르가 뚜렷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개념에 따르면 역사소설은 역사 픽션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그는 문학사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역사소설을 예시로 들어 역사 픽션과 비교하였다. 하지만 역사소설과 픽션의 질적인 차이는 장르의 차이가 아니라, 평가 대상인 픽션 작품이 지닌 특징 차이이다.

소설가 최인훈도 문홍술과 같이 문학의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4·19혁명과 같은 역사가 자신을 소설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최인훈은 역사가 비춘 조명에 따라 소설을 썼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에게 문학은 무기이자, 역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역사가 문학적 창작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된 경우이다.

역사학과 픽션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역사 서사는 '진실을 추

33) 나인호, 『픽션과 역사교육』, 「대구사학」, 2010, p.317.

34) 문홍술, 『역사소설과 픽션(faction)』, 「문학과 환경」, 2006, 5(2), p.69.

구하는 허구’, 문학은 ‘허구를 통한 진실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또, 팩션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의 속성보다는 역사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다.³⁵⁾ 그 외에도 목적과 성격, 진실성과 창의성, 도구 및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역사학과 팩션은 공통점도 존재한다. 두 장르 모두 플롯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플롯의 측면에서 역사가나 팩션 창작자는 과거 사실을 역사 이야기로 구성하기보다 역사 이야기가 과거 사실을 선택하고 배치한다는 점에서 같다. 특히 역사학의 경우는 정보가 지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더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패턴으로의 배열이 필요하다. 배열 이후에는 다른 패턴과 연결되어야 한다.³⁶⁾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역사가는 자신이 상상하는 언어적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재현·설명한다. 소설가와 마찬가지로 시적(poetic)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역사학과 팩션의 관계는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로도 바라볼 수 있다. 팩션 장르는 탈근대에 나타난 돌연변이가 아니라 사학사적인 계보 속에서 이어진 것이다. 서구 서사는 대부분 신화가 먼저 생성된 뒤에 사실서사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역사서 경우에는 이와 반대다. 김부식이 고려 인종 시기에 『삼국사기』를 먼저 편찬하였다. 약 150년 뒤에 일연이 집필한 책이 『삼국유사』이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쓴 이유는 역사로서 기록될 가치가 없다고 배제된 꿈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김부식은 사실적 연관관계를 기술해야 한다고 믿음으로써 역사와 신화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반면에 일연은 사실적 연관 관계의 배후에서 작용했던 상징적 힘들을 추적하며 역사와 신화의 접합을 추구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역사서사로 이루어졌으나 일연의 『삼국유사』는 허구서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³⁷⁾

그러나 설화가 허구이고 역사만이 사실이라는 이분법은 승자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테오도르 레싱은 역사를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로 정의하였다. 사실과 허구를 모순된 관계로 보기보다는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 관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짝을 이룬듯한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³⁸⁾

일부는 팩션의 확산과 유행으로 인해 역사학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학과 역사 팩션의 관계가 모호해질수록 상황에 따라 역사학은 팩션을 통해서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위기를 모면해 성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탈근대에서 팩션의 등장은

35) 나인호, 『팩션과 역사교육』, 「대구사학」, 2010, p.317.

36) 김기봉 외 2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만남』, 「시민인문학」, 2009, p.71-73.

37) 김기봉, 『팩션(faction)으로서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2007, 63, p.9-12

38) 김기봉 외 2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만남』, 「시민인문학」, 2009, p.76-78.

역사학의 종말보다는 근대 과학 담론으로 상실된 수사학 전통으로의 회귀라고 표현할 수 있다.³⁹⁾

김기봉은 역사학과 픽션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관계일 때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현실과 꿈을 모두 경험한다. 현실의 그림자가 꿈이기도 하다. 꿈은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혼돈의 시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것이 픽션의 기능이다. 역사학과 픽션이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하되, 끊임없는 대화와 융합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역사학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존속하는 방법이다.⁴⁰⁾

3. 역사 픽션의 다양한 영향

현대 역사 픽션은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과 화려한 감각, 탄탄한 극작법으로 무장했다. 픽션은 때로 실제 역사와 전혀 다른 내용을 전개하는 기획으로 시의성, 흥미성, 즉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⁴¹⁾ 예시로 전윤수 감독의 <미인도>는 실존 인물인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을 실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화가로서의 삶과 작품세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인의 일대기를 영화적으로 재조명하는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역사적 사실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와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⁴²⁾ 창작물은 동일한 인물과 시기를 다루는 텍스트라도 안에 들어가는 글의 소스에 따라서 반응이 제각각으로 나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작품 외에도 역사 픽션은 대중에게 호평을 받을 수도 있고, 역사 왜곡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역사 픽션은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역사 픽션의 양면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역사 픽션은 역사의 대중화를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중이 관심을 가지기 쉬운 역사는 암기를 요구하는 딱딱한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 섞인 내용의 흥미로운 역사다. 하지만 역사 픽션은 역사 왜곡의 측면에서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취향을 반영하여 관심을 가지는 역사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거나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이라면 왜곡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39) 김기봉 외 2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만남』, 『시민인문학』, 2009, p.73

40) 김기봉, 『사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꿈꾸는 역사'로서 사극-』, 『인문콘텐츠』, 2016, p.19.

41) 이병철, 『역사콘텐츠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 드라마와 영화를 토대로』,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p.55.

42) 김시무, 『'픽션'과'픽션'의거리』, 『현대미학사』, 2009, p.37.

이것은 ‘역사’와 ‘역사적인 것’의 차이에 따른 문제이다. 단순히 외면적·단편적·피상적인 역사적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만으로는 팩션을 창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⁴³⁾ 예시를 들자면, 조선시대 영조의 어머니가 숙빈 최씨로, 무수리 출신이었다는 기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해당 설정은 ‘역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없이 조선시대의 무수리만으로 팩션을 창작한다면 조선시대 신분제라는 소재를 가져온 ‘역사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역사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사’로 채우느냐와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비교적 후자에 가까운 팩션은 대중이 관심 가지고 학습해야 할 역사의 교육적 측면에서 위험한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 대중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복어를 즐겨 먹는다. 자격이 있는 전문 요리사가 복어를 손질하여 독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역사 팩션 또한 ‘허구성’이라는 내포된 위험성을 손질하는 능력이 있다면 팩션이 가진 매력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업전문가들은 오히려 팩션을 통해 허구와 진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과 역사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⁴⁴⁾한다. 특히 영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의 경우에는 영상에 익숙한 현시대 학생들이 과거의 실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기 쉬운⁴⁵⁾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팩션은 실제 사건을 소재로 담았다는 점에서 진실이 주는 감동과 현실감, 소비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대안이기도 하다. 특히 역사영화의 경우에는 창작자가 결과론적 흥행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역사영화를 통해 과거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⁴⁶⁾ 팩션은 대중이 현실을 되짚어보고 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⁴⁷⁾

주의할 점도 있다. 대중화된 역사 팩션은 실제 사건에 자극적 설정이나 흥미로운 사건을 추가하여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화가 신윤복이 여자였다는 설정으로 각색된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나, 조선시대 세종과 장영실의 브로맨스를 다룬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이 그 예시이다. 역사 팩션은 소비자가 진실과 허구를 구별하기에 모호하다. 사실 기반으로 허구와 접목되었다는 특징상, 진실의 수위와 허구의 비율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다.⁴⁸⁾

43) 문홍술, 『역사소설과 팩션(faction)』, 『문학과 환경』, 2006, 5(2), p.72.

44)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45) 공병규, 『중학교 한국사 수업을 위한 역사영화의 선정과 활용방안』,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46) 김상민, 『역사 in 영화 - 영화로 보는 역사 신년특집 팩션 - 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3)』, 『역사&문화』, 2006, p.31-32.

47) 김미경, 『역사문학의 글쓰기 전략 및 글쓰기 미학: 팩션과 기록극 -안나 제거스의 <1431년 루앙에서의 잔 다르크 재판>을 중심으로-』, 『혜세연구』, 2013, p.178

최근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실제 역사적 사건인 '12·12 사태'인 군사 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김성수 감독은 영화 속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하였으나 자신이 넣은 허구적 상상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은 명예훼손 문제를 조심하고자 실제 인물을 연상할 수 있는 선에서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는 자신이 창작한 이미지에 가까운 인물일수록 실제 인물과의 성도 다르게 하고, 이름을 많이 변형하였다고 언급했다.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한 기자는 감독에게 영화 속 진실과 허구의 비율을 묻는다. 감독은 이에 대하여 퍼센트와 같은 수치로 정확하게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⁹⁾ 검열하는 것은 꿈을 현실로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⁰⁾ 역사서에 기록된 짧고 간단한 한 줄로도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면 수십 페이지가 되는 것이 창작의 세계이다. 창작의 제한보다는 역사 팩션의 올바른 인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역사 팩션에 대한 올바른 인식

1. 팩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부록>의 설문지 양식으로 팩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계획에서 언급하였듯이 10대에서 20대를 대상이었다. 혹시나 다른 연령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타 칸을 넣었다. 확보하고자 했던 참여자의 수는 70명이었으며 계획대로 달성하였다. 설문 조사의 기간 3일이었으며,⁵¹⁾ 설문지는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과 SNS 어플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

설문대상을 10대와 20대로 정한 이유는 1인 미디어 시대에서 필요성이 커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장과 가까운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관련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미디어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설문의 목적은 I 장의 연구 범위 및 방법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대중이 팩션 속 배경과 실

48) 김상민, 『역사 in 영화 - 영화로 보는 역사 신년특집 팩션 - 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3)』, 『역사&문화』, 2006, p.29.

49) 영화 <서울의 봄> 제작발표회 영상을 참고하였다.

50) 김기봉, 『사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꿈꾸는 역사’로서 사극-』, 『인문콘텐츠』, 2016,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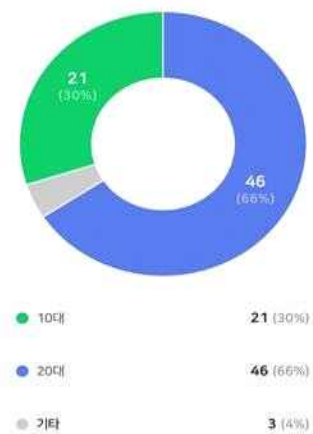
51) 본 설문조사는 2023.12.21.~2023.12.23.에 시행되었다.

제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팩션이 역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실시 전에는 역사 팩션의 역사 왜곡 문제를 부각하는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예상한 바와 다른 점도 존재하였다. 조사 결과는 역사 팩션 문제해결과 관련된 최근 현황을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되었으며, 더 나아가 역사 팩션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을 탐구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이 팩션을 통해 얻은 역사적 지식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보기를 보고 허구와 사실을 구분하는 역사적 통찰력에 대한 능력도 함께 보았다. 문항의 내용을 모두 영화 속 내용을 기반으로 설정하여, 영화를 본 대상자가 문항의 내용이 봤던 장면이라고 고르는 착오가 없도록 예방하였다. 영화를 보지 않은 대상자 경우에도 영화 속에서 각색된 사실과 허구를 문항으로 접할 때 역사적 통찰력이 발휘된다고 판단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8편의 영화를 활용해 문항의 질문 형태를 구성하였다. 전근대 배경의 영화와 근현대 배경 영화를 각각 4편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영화는 <명량>, <사도>, <안시성>, <남한산성>, <영웅>, <암살>, <택시운전사>, <1987>이다. 영화별로 문항과 결과를 분석하고, 문항 제작 과정에서 느낀 역사적 고증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결과를 종합하여 조사로 얻어낸 결론에 주목 바란다.

<문항-1> 설문 참여자 연령대



<문항-2> 역사 팩션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설문 참여자의 연령은 <문항-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0명의 참여자 중에서 10대가 21명, 20대가 46명, 기타가 3명이다. 참여자의 연령 중 20대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20대의 높은 참가율은 설문 조사지가 공유된 어플 중 하나가 특히 대학생 대상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고 예상한다. 20대 참여자가 10대 참여자의 약 2배이다. 그 외에도 기타를 선택한 참여자가 3명이었다. 주요 대상은 10대, 20대였기에 기타 참여자의 경우는 <문항-2>부터 설문 결과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역사 팩션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는<문항-2>와 같다. 최대 별점 5점 중에서 1~5까지를 고르는 문항이었다. 조사 결과는 1점<2점<3점<4점<5점 순으로 나타났다. 팩션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5점으로 고른 사람이 전체의 36%로 24명이었다. 평균 별점은 3.7점으로 나왔다. 대체로 팩션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평균 별점은 10대가 약 3.3, 20대가 약 3.8로 나타났다. 10대보다 20대의 참여율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별점이 더 높게 나왔다.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며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두 연령대의 수치는 모두 최대 5점의 중간값인 2.5를 넘는다. 10대와 20대의 팩션에 대한 관심·흥미가 높다는 사실을 <문항-2>의 수치가 증명한다. 그들은 21세기 첨단과학 기술의 시대에서 영상 역사학과 같은 역사 아카이브의 확장⁵²⁾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세대이다. 그 말은 해당 연령이 많은 팩션을 접하였으며, 팩션의 양면성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기도 하다.

<문항-3> 시청한 역사영화 선택



위의 <문항-3>은 시청한 역사영화를 선택하는 문항이다. 8개의 팩션은 모두 연구 계획 단계에서 나름의 선별을 거쳐 선정된 영화들이다. 택시운전사가 17%로 시청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명량이 16%, 암살이 14%, 1987이 40%, 남한산성이 35%, 사도와 안시성이 10%로 동일하다. 제일 시청 인원이 적었던 영웅은 9%이지만, 참여자 수 67명 중 인원은 30

52) 권태경, 『역사 대중화와 역사 왜곡의 문제』, 『인문사회』, 2022, p.613.

명이 시청한 것으로 적지는 않다. <문항-2>로 살펴본 팩션에 대한 관심 중에서도 특히 영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로 볼 수 있다.

<문항-4> 역사 팩션의 역사적 지식 영향



<문항-5> 팩션 역사 왜곡 위험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문항-4>에서는 역사 팩션의 영향 중 지식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신의 역사적 지식수준이 팩션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를 선택하는 문항이다. 특히 <문항-4>와 <문항-5>는 역사 팩션에 대한 양면성을 파악하는 질문이다.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아니다, 2점=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 문항 응답의 크기 정도를 살펴보았다.

<문항-4>에서 43%의 많은 참여자는 역사 팩션이 자신의 역사적 지식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보통이다’가 24%,‘매우 그렇다’가 27%로 높았다. 높은 응답률인 상위 세 가지의 선택지가 모두 역사 팩션이 역사적 지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전 장에서 역사 팩션의 개념과 영향을 다루며 팩션의 양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팩션이 대중의 역사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순기능이기도 하며,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5>에서는 최근에 시청한 역사 팩션의 역사적 왜곡이 심한가를 묻고 있다. 해당 문항도 앞 문항과 동일하게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결과는‘보통이다’가 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그렇다’24%,‘아니다’9%,‘전혀 아니다’6%,‘매우 그렇다’4%의 순으로 높았다. ‘보통이다’는 5개의 척도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보통이다’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평소 역사 팩션의 왜곡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깊게 생각한 경험이 적을 수 있다. 또는 팩션 속 사실과 허구에 관심이 적거나, 시청한 팩션의 역사적 왜곡 정도가 본인의 기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지 제작 과정에서도 여러 영화를 살펴봄에 영화 속 허구와 진실을 살펴보았다. 나름대로 역사적 고증을 잘 해낸 영화도 많았으며, 역사적 사건에 더한 허구성으로 의미를 더해주

는 영화도 존재하였다. 반대로 창작으로 만들어 낸 인물이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여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도 있었고, 역사적 왜곡이 들어간 영화도 존재하였다. 많고 많은 팩션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팩션을 역사적 고증을 잣대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역사 팩션은 역사를 미디어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지만, 오락성과 상업성 같은 특성이 더해진다. 그 과정에서 허구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창작자의 세계관이나 창작 의도가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과 허구를 모순된 관계보다는 양면성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팩션의 평가 기준이 역사적 고증에 너무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팩션의 양면성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역사적 왜곡’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평가와는 별개로 창작과 수용 단계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논의들은 대부분 역사적 왜곡을 이유로 팩션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팩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역사적 왜곡이 오히려 허구성으로 주는 효과를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 왜곡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역사 팩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역사학과 팩션의 발전의 추구이다.

<문항-6> <남한산성> 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은?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인조 당시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다. 청의 침략을 전후로 한 주전과 김상헌과 주화파 최명길의 논쟁을 녹여냈다. 남한산성에서의 항전과 삼전도에서 항복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재현한 영화이기도 하다.⁵³⁾ 해당 영화의 경우에는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시청하였다. 선택지 중의 역사적인 사실은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피난 간 장소’이다. 해당 역사적 사실은 영화를 보지 않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따라서 64%라는 높은 비율의 참여자가 역사적 사실을 정

53)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68.

확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구성된 문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등장한 허구를 사실로 믿고 선택한 참여자도 꽤 있다. ‘김상헌이 인조가 항복을 하러 가는 소식을 듣고 할복’했다는 문항이 27%로 18명이 해당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 문항을 통해서 대중이 허구성 중에서도 특히 어떠한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 허구인 두 문항은 모두 영화 속에서 등장한 장면이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김상헌이 칼로 배를 찢러 할복하는 장면이다. ‘김상헌’이라는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이기에 해당 문항을 골랐거나 혹은 자극적인 장면 중 하나여서 기억에 남아서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역사에서 김상헌은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당시 할복을 시도했던 인물은 이조참판 정온이다. 김상헌의 신념과 주장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최후로 영화 속 내용이 각색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참여자 중 6명(9%)은 최명길의 항서를 바치기 직전에 남한산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역사적 사실로 골랐다. 영화에서는 최명길의 항서를 바치기 직전에 남한산성의 성벽이 무너지며 함락될 위기에 처한다. 이후 최명길의 항서를 받은 청 태종이 공격을 멈추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실제 남한산성 전투에서 청군이 성벽 장악을 시도하여 병력을 퍼붓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군이 몰래 청군을 기습하여 청군이 적극적인 공성전에서 물러나 장기전 태세에 임한 일도 있었다.

잘못된 선지를 고른 이유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교과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한 단원에서 다루며, 양난으로 변화하는 정세를 서술한다. 병자호란의 배경과 결과, 영향을 인과 관계 위주로 서술하지만, 남한산성에서 보낸 45일간의 항전이 세세하게 서술되지는 않는다.⁵⁴⁾ 범위가 넓고 양이 많은 과목이기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공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설문 결과의 일부 참여자처럼 영화 속 장면을 실제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증이 잘된 영화 장면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로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명길과 김상헌의 논쟁 장면은 토론 수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⁵⁵⁾ 역사적 왜곡이라고 비판만 하기보다는 영화적 요소로 받아들이되 팩션 소비자들의 역사적 통찰력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까닭이다.

54) 『중학교 역사2』, 2020, 미래엔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참고.

55)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68.

<문항-7> <명량>의 내용 중 허구인 것은?



김한민 감독의 <명량>은 조선시대의 정유재란이 배경이다.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된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이며,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영화는 참여자 중 16%가 시청하였다. 총 51명으로 절반 이상이자,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에 속한다. <명량>은 영화 선정 당시에 관객 수가 1,000만 이상으로 흥행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택지 중 허구는 '이순신 장군 암살 사건의 주모자 배설 장군'이었다. 참여자 중 48%, 절반 가까이가 정답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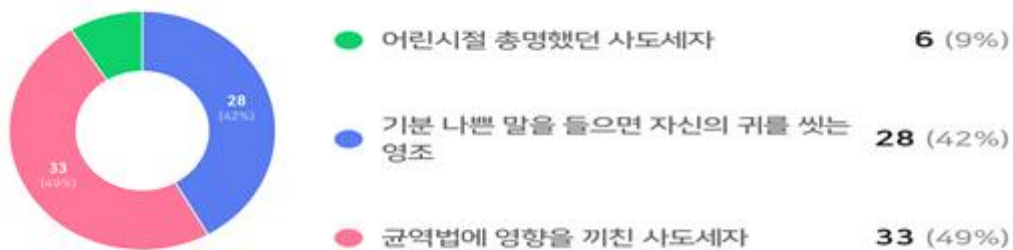
해당 허구사항은 실존 인물인 배설을 과장하여 역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실제 역사에서 배설이 여러 사유로 인해 처형당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배에 불을 지르거나 이순신의 암살을 시도한 것은 악역을 위한 허구이다. 이러한 이유로 배설의 후손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무혐의로 판결 났다. 영화의 오락성을 위해 자극적인 요소를 넣었으나 논란이 된 사례를 담은 문항이었다. 개봉 당시의 고증과 관련된 논란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답률이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영화 내용만큼이나 영화 관련된 논란과 고증에 관심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오답률을 가진 34% 문항은 '정유재란 당시 조선의 존망이 달린 명량해전'이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골랐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명량>과 같은 이순신 시리즈로 기획된 <한산: 용의 출현>과 <노랑: 죽음의 바다>와 헷갈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또는 실제 역사보다 영화 속에서 위기를 더 극대화하여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 선지를 골랐을 수 있다. 그러나 정유재란의 초기에 일어난 명량해전은 왜군이 장악한 전쟁 주도권을 저지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다음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번역본의 일부 문장이다. "우리의 여러 배들이 일제히 북을 치며 나아가면서 지자포·현자포 등을 쏘고, 또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그 소리가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 적선 서른 척을 쳐부수자 적선들은 물

러나 달아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천행이다.”⁵⁶⁾ 명량해전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영화 <명량>은 교과서의 텍스트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자세한 해전의 내용을 영화적으로 구성하였다. 영화적인 역사 재현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건의 기억에 도움이 된다.

조사 전에 ‘판옥선과 거북선의 외관 묘사’를 고른 응답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명량해전의 거북선 등장과 관련하여 여러 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항이 내포하는 의미는 ‘명량해전의 거북선 등장’보다는 역사적 기록에서의 ‘판옥선과 거북선의 묘사’에 가깝다. 헛갈릴 만한 요소였으나 예상과 어긋나게 세 가지 문항 중에서 가장 적게 선택받았다. 판옥선의 경우는 실제 일본군 군선과의 체급 차이까지도 나뉘어 고증하였다. 판옥선이 왜군의 세키부네보다 0.5~1층 정도 더 높게 묘사된다. 거북선도 목이 긴 거북선이 아니라 목이 짧은 거북선이다.

<문항-8> <사도>의 내용 중 허구인 것은?



이준익 감독의 <사도>는 조선시대 영조 당시의 임오화변이 배경이다. 대부분의 팩션은 사도세자를 봉당정치와 연결하여 희생물로 그렸다. <사도>는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부자갈등과 교육을 둘러싼 가치관 차이를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별성이 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에 매력적인 팩션 소재이다.⁵⁷⁾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34명이 시청하였다.

해당 설문에서 허구인 문항으로 정답인 것은 ‘균역법에 영향을 끼친 사도세자’이다. 선택한 참여자는 49%로 정답률이 높다. 그러나 오답이자 역사적 사실인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자신의 귀를 씻는 영조’ 문항 또한 42%로 선택한 사람이 많다. 마지막으로 ‘어린시절 총명했던 사도세자’가 9%로 비교적 적은 사람이 선택하였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정답률만큼 오

56) 이순신, 『난중일기』, 1597, 충무공 이순신, http://www.choongmoogonggleesoonsin.co.kr/sub_04/sub_04_01_02.asp?boardidx=1504&mod_yy=1597&mod_mm=9.

57)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75.

답률이 높다.

교과서에서도 영조의 균역법에 대해 나온다. 대부분 참여자는 영조의 균역법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이다. 균역법 배경과 원인이 사도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집중하여 다루는 부자관계의 갈등과 애뜻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넣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업적을 영화적으로 해석하여 각색한 경우이다. 팩션 소비자들은 실제 역사로 착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은 왜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자신의 귀를 씻는 영조’의 장면을 허구라고 생각할까? 해당 장면은 한번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꽤 여러 번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과서에 자세하게 서술되지 않기에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운 적이 없기에 허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에 해당 문항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한다. 영화 팩션을 통한 사실이나 허구를 판단하는 몫은 오롯이 팩션 소비자의 몫이다. 영화 팩션을 통해서 오직 역사적인 고증만을 목표로 한다면, 팩션이 가지는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도세자의 말을 듣고 귀를 씻는 영조의 버릇은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길한 말을 주고받거나 들으시면 들어오실 때 양치질을 하시고 귀를 씻으신 다음, 먼저 사람을 부르시어 한마디라도 처음 말씀을 하신 후에야 안으로 들어오셨다.”, “동궁께서 대답하시면 그 대답을 들으신 후 귀를 그 자리에서 씻으시고 그 물을 화협 웅주가 있는 집의 마당으로 버리시기도 했다.”가 관련 기록이다.⁵⁸⁾ 때로는 허구 같은 일이 실제 역사이기도 하다는 사례이다.

‘어린시절 총명했던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기록이 많다. 이를 허구로 선택하였다면 총명했던 사도세자가 정신적인 분열을 겪고 망가지는 과정을 과대 해석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조실록』에 따르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칭찬하는 영의정에게 “경의 말이 옳다. 근일에 문왕장(文王章)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일찍이 명주와 무명베를 보고 사치와 검소를 구분하여 무명옷 입기를 청했으니, 매우 기특하다. 만약 잘 인도한다면 성취할 것을 바라겠으나, 나는 본래 학문이 없으니 오직 보도(輔導)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뿐이다.”⁵⁹⁾라고 말한다. 따라서 해당 문항은 역사적 사실이다.

58) 혜경궁 홍씨, 『한중록』, 스타북스, p.88.

59)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45권, 영조 13년, 9월 10일 을미 1번째,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id/kua_11309010_001.

<문항-9> <안시성>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은?



김광식 감독의 <안시성>은 삼국시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다. 당 태종에 맞서 안시성을 지켜낸 성주와 고구려 관민의 항쟁을 담고 있다. <안시성>도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34명이 시청하였다. 실제 안시성 전투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영화적 상상력이 동원된 장면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을 조사하기에 적합한 영화 중 하나이다.

특히 앞의 <문항-6>, <문항-7>, <문항-8>과는 달리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월등하게 높았다. 역사적 허구를 사실이라고 믿고 선택한 참여자가 52%이고, 참여자의 절반을 넘었다. 해당 문항은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양만춘’이라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안시성 성주로 등장하는 양만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기에, 실존 인물의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비롯한 역사서에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있지 않다.⁶⁰⁾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문항의 정답은 ‘당 태종의 발언’이다. 참여자 중 정답자 비율은 37%이다. 오답을 고른 52%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꽤 크다. 당 태종의 “요동(高句麗)만 빼고 천하를 평정하였다.”라는 발언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실이다.⁶¹⁾ 정주에 도착한 당 태종이 주변의 신료에게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와 관련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항이었다.

‘안시성 성주의 여동생을 대장으로 한 여군 노병대’라는 오답 문항을 선택한 사람은 21%이다. 노병대 키워드에 주어진 ‘虜兵’이라는 한자로 인해 전문적인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화 속에 등장한 해당 장면은 감독의 창작이다. 삼국시대의 여군의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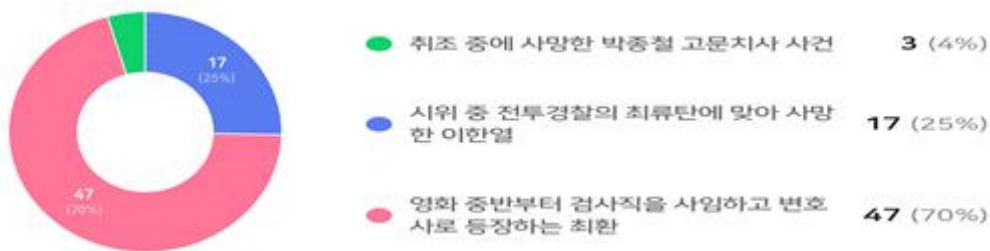
60)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33.

61) 김부식, 『삼국사기』, 권 제21 「고구려본기」 제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sg&types=r&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sg_021r_0020_0150&position=-1

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진 바가 없다. 확정할 수는 없으나, 알려진 역사 내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규 여군이 편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문항을 선택한 사람들은 삼국시대의 군대 편성에 여자가 있었다는 역사적 왜곡 인식과 오해를 하였다. 원인 제공은 영화에서 하였으나, 이것을 창작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교육을 탓할 수도 없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언급하는 바와 같이 팩션의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주체는 팩션 소비자이다. 어느 문항에서나 적용된다. 정확히는 팩션 속의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노력과 탐구가 필요하다.

<문항-10> <1987>의 내용 중 허구인 것은?



장준환 감독의 <1987>은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배경이다. 6월 민주항쟁은 부정부패한 독재 정권을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하는 것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였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6월 민주항쟁으로 표출된 것이다.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의 실천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원동력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주인공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영화는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다수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⁶²⁾ 해당 영화를 본 참여자는 12%로, 전체 참여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시청하였다.

【문항-10】은 허구를 올바르게 고르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참여자의 70%의 사람이 영화 속 허구로 ‘영화 중반부터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등장하는 최환’을 선택하였다. 이는 허구가 맞다. 실존 인물인 최환 검사는 1990년대 말까지 검사로 활동하였으며, 은퇴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나머지 두 문항에서도 실존 인물인 ‘이한열’과 ‘박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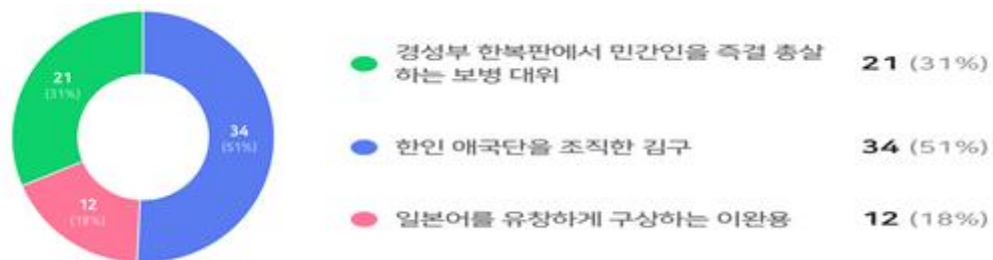
62)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184-186.

에 대한 내용이다. 문항의 인물들이 모두 실존 인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 과정에서 사람들이 역사적 왜곡 부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논란’과 연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논란은 실존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형태였다. 논란은 잘못된 역사 왜곡을 깨닫는 방안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창작과정에서 팩션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논란은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창작자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모티브할 때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란은 누군가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퍼지게 된다. 논란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영화를 바라보는 과정이 존재한다.

‘취조 중에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시위 중 전투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전자를 택한 참여자는 4%, 후자를 택한 참여자는 25%였다. 최환을 선택한 70%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다. 박종철보다 이한열의 이야기를 허구로 택한 참여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인물이 이한열이다. 이한열은 시위 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국민의 분노로 이어졌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하였을지 살펴보았다. 교과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4·13 호헌 조치와 시민의 저항, 이한열의 죽음, 항쟁의 폭발, 6·29 선언의 순으로 서술한다.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끌어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⁶³⁾ 교과서의 내용⁶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본적 역사적인 지식은 역사적 왜곡을 판단하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11> <암살>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인 것은?



63)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188.

64)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2020.

최동훈 감독의 <암살>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열 투쟁에 목숨을 바친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광복 이후 친일과 청산이 되지 못한 아쉬움을 영화적 상상력을 해결한 영화로 평가받기도 한다.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영화를 시청하였다.⁶⁵⁾

역사적 사실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김구’이다. 정답자는 51%로 참여자 중 절반 정도이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도 하였다. 김구는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며, 그의 업적 또한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등장하는 영화 속 주인공의 대부분이 가상 인물이지만, 시대적 설명을 위하여 역사 속의 실존 단체와 인물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은 문항에서 가상 인물을 실존 인물로 착각하지 않는지 구분하도록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항-11】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정답으로 내세우며, 허구를 고른다면 어떤 선지를 고를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많았던 허구는 ‘경성부 한복판에서 민간인을 즉결 총살하는 보병대위’이다. 21명이 선택하였다. 일제 강점기라는 배경 때문에 이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1920년대에 활동하였던 의열단원들의 의거는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며 한국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의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제의 감시가 더욱 철저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열단은 노선을 수정하여 해외에서 의열 투쟁을 하였다.⁶⁶⁾ 영화의 배경의 1930년대이다. 영화 속의 카와구치 슌스케가 조선인 소녀와 부딪히자 권총으로 쏘 죽이는 장면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모욕이나 폭행 후에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경찰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자리에서 즉결 총살하는 것은 감독에 의해 창작된 허구이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참여자가 가장 적었던 선지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완용’이다. 영화에서 이완용은 일본인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인물로 그려진다. 친일파라는 점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함으로 감독의 각색 의도를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본어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영화 속에 그려지는 인물과 실제 인물의 차이에서 혼란이 일어난 경우이다.

<암살>은 대중이 잊고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명한 김원봉의 경우에는 영화 이전까지 대중에게 생소한 인물이었다. 해당 영화는 김원봉이 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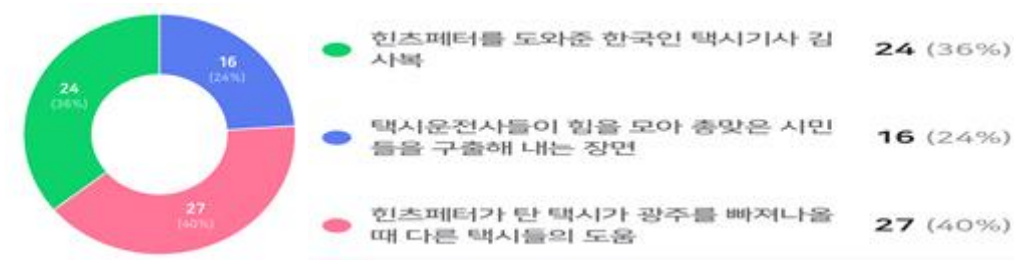
65)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110.

66)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121.

영화 팩션의 순기능이다.

팩션은 김기봉이 언급하였듯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장치이기도 하다. 동시에 꿈을 꾸게 만드는 장치라고도 생각한다. 영화 <암살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도구로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팩션이 실제 역사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모티브로 하였는지 비교하며 팩션을 수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문항-12> <택시 운전사> 내용 중 허구인 것은?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는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현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눈으로 담아냈다. 영화 속 주요 등장인물은 김사복과 위르겐 힌츠페터이고, 실존 인물들이다. 독일 공영 방송 ARD의 기자인 힌츠페터는 취재를 위해서 택시를 타고 광주에 잠입한다. 피터가 탄 택시를 운전하는 인물이 서울의 택시 운전사인 김사복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설문 조사 결과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라는 것이다. 17%가 영화를 시청하였다. 전체 인원 67명 중에서 57명이 <택시 운전사>를 봤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설문의 결과는 의외였다.

선지 중에서 허구를 고르는 <문항-12>의 정답은 ‘힌츠페터가 탄 택시가 광주를 빠져나올 때 다른 택시들이 돕는’ 장면이다. 정답을 고른 사람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다. 해당 장면에서 끌어내는 감동적인 요소가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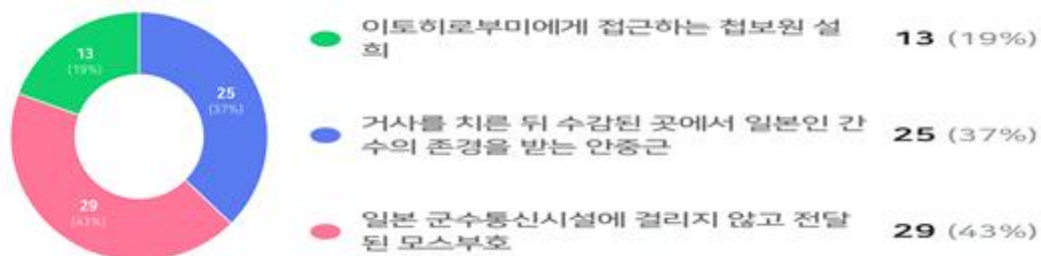
영화 속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힌츠페터를 도와준 한국인 택시기사 김사복’이라는 오답 선지를 고른 사람도 꽤 많았다. 36%가 응답하였으며, 정답자의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선택한 인원수도 세 명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예상 밖의 결과였다. <택시 운전사>의 영화 끝에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말과 함께 택시기사 김사복과 위르겐 힌츠페터의 자료가 나온다. 영화를 본 시청자라면 틀리지 않고, 헛갈리지 않을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답률만큼이나 큰 오답 수치가 나왔다.

김사복이라는 인물에 추가로 부여된 캐릭터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영화 개봉 이전에 김사복이라는 인물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이름과 힌트페터를 도와준 한국인 택시기사라는 직업뿐이었다. 즉 택시 운전자 영화 속 김사복의 캐릭터는 대부분 감독의 창작으로 완성되었다. 정보가 적은 만큼 인물에 관한 오류는 많을 수 있다. 오히려 영화 개봉 후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김사복에 대한 정보가 밝혀졌다. 실존 인물 김사복과 영화 속 김사복 간의 인물적인 오류를 알고 있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를 이유로 선지를 고른 참여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지는 영화 속 김사복과 실존 인물 김사복이 공유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담고 있다.

실제 역사를 고증한 '택시 운전자들이 힘을 모아 총 맞은 시민을 구출하는 장면'은 24%로 16명이 응답하였다. 이 장면을 허구라고 생각한 것은 영화적 요소 중 하나인 감정선을 위한 장면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오히려 소품 차량 문제로 인하여 실화보다 축소되었다. 영화에서 나온 장면처럼 5월 21일에 택시가 사상자를 호송하였다고 전해진다.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들어온 택시 운전자들도 계엄군에게 사살당하였다.⁶⁷⁾

<택시 운전자>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인물을 알리는 기능과 동시에 5·18 민주화 운동을 보편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냈다. 물론 영화 속의 감정선을 위해 창작된 장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는 실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료를 통해 팩션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창작자의 노력을 볼 수 있다. 계속 언급해왔듯이 근본적인 해결은 소비자의 몫이다.

<문항-13> <영웅> 내용 중 역사적 사실은?



윤제균 감독의 <영웅>은 1909년을 배경으로 안중근의 모습을 담아낸 영화이다. 원작은 류

67) 차경호 외 1명,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2021, p.182.

지컬이기에 뮤지컬의 영화화이다. 영화화 과정에서도 뮤지컬의 성격을 가져온 것이 특징이다. 안중근이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순국하는 과정까지의 1년을 영화로 표현하였다. 해당 영화는 참여자 중 9%가 시청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되는 영화 중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장 적게 본 영화이다. 시청한 참여자의 수가 다른 문항에 비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정답 문항은 ‘거사를 치른 뒤 수감된 곳에서 일본인 간수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이다.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3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항을 고른 사람이 더 많았다. 영화를 보는 시청자는 해당 장면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 한국인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일본인의 존경을 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역사이다. 안중근이 옥중에서 작성한 『안응칠 역사』에 해당 이야기가 나온다. 안중근을 존경한 일본인 간수는 치바 도시치이다.

가장 선택 비율이 적었던 선지는 ‘첩보원 설회’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다. 19%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설회는 만들어진 가상인물로 허구이다. 이에 대해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은 설회가 당시 조선인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느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말한다. 즉 설회는 역사적 고증보다는 당시 을미사변을 겪은 조선인들의 참담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다.⁶⁸⁾

허구이자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로 오해를 받은 문항은 ‘일본 군수통신시설에 걸리지 않고 전달되는 모스부호’가 나오는 장면이다. 문항의 선택자 비율은 43%로 높다. 해당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모두 긴장된 상태로 모스부호가 일본 측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정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바라본다. 앞서 언급했던 가상 인물 설회는 영화에서 모스부호를 사용하여 독립군에게 정보를 보낸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공영권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치밀한 일본에 맞선 설회의 모스부호는 현실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 영화 속에서 안중근을 포함한 독립군은 이토 히로부미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안응칠 역사』에서는 “러시아 일반 관리들의 호위를 받으며, 맨 앞에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가진 늙은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저것이 필히 늙은 도둑 이토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나는, 곧 단총을 뽑아 들고 그의 오른쪽 가슴을 향해 신속히 네 발을 쏘았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⁹⁾ 영화에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이 설회의 모스부호이다. 위기 속에서 긴장

68) 김혜선, “서경덕 교수가 밝힌 영화 ‘영웅’ 고증 포인트”, 일간스포츠, 2023.01.10, <https://v.daum.net/v/20230110060003607>.

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시청자에게 모스부호 장면은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해당 연출은 모스부호 덕에 거사가 실제로도 성공하였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2. 역사 팩션의 올바른 소비

설문 조사의 결과를 영화별, 문항별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사 팩션 기능의 다양한 예시를 알 수 있었다. 대중이 어떠한 것을 허구와 사실로 믿는지에 대한 경향도 파악하였다. 오답 비율이 많은 경우에는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 입장에서 살펴 보았다. 역사가의 역사서술과정이나 팩션 창작과정보다는 팩션 소비자의 수용과정이 중요하다고 파악하였다. 영화 속에 나온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문항을 구성한 만큼, 문항별로 응답률과 실제 역사를 근거로 들어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전에도 1차로 확인하였지만, 혹시나 문항의 오류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더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의 팩션 관련 선행 연구는 배경과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서 점차 기능에 대한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였으며, 팩션이 가진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방면에서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능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부각이 되는 역기능은 바로 역사 왜곡 문제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팩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바라보며 해결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해결방안을 역사가와 창작자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는 소비자의 측면 연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이제 는 더 나아가야 한다. 특히 영화 <택시 운전사>의 내용인 【문항-12】를 비롯한 모든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김사복은 실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36%의 사람들이 허구라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8개의 영화 중 참여자가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 또한 <택시 운전사>이다. 영화의 끝부분에는 배우가 아닌 실제 힙스터가 김사복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나온다. 해당 장면을 넣은 감독의 의도는 분명 역사적 고증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것이다.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사복은 영화 이후에 더 잘 알려지게 된 인물이기 하다. 따라서 영화 속 캐릭터는 실존 인물과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고, 참여자가 이 점을 헷갈릴 수 있겠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처럼 창작자의 노력과 의도와는 소비자의 수용은 제각각이다. 역사가와 창작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69) “‘영웅’안중근에 대한 팩트체크 10가지”, 디스패치, 2022.12.28., <https://www.dispatch.co.kr/2232640>.

제는 소비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둘째, 대중은 이슈화되거나 논란이 있는 실제 인물에 관심이 많다. 【문항-7】에서 제시된 <명량>의 배설 장군과 【문항-10】에서 제시된 <1987>의 최환 검사가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영화 <명량>은 실존 인물이었던 배설을 과장하여 역적으로 몰았다. 그의 후손들이 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1987>의 최환 검사의 경우에도 영화 중반부에서는 검사를 중간에 사직하고 변호사가 된 설정이지만, 실제로는 영화 속 배경에서 검사직을 계속하였다. 실제 인물을 모티브 하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교과서에서는 박종철, 이한열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만 최환 검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항의 정답률이 높았다. 역사적 고증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는 통로가 대부분 기사나 평론가, 역사가와 같은 다른 사람의 시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본적인 역사 지식은 역사적 통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모든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팩션의 교육적인 측면의 연구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팩션은 교육적 측면에서 역사교육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역사 팩션 속의 왜곡된 부분을 찾으면서 역사적 통찰력과 비판하는 사고를 기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하였던 설문 조사 결과와 분석을 참고하여, 소비자 측면의 올바른 팩션 소비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태도이다. 소비자는 팩션을 아무 생각 없이 보기보다는,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팩션을 소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 본 연구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던 ‘왜곡’과 ‘상상력’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차이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추론은 사실에 기초하지만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추론과 허구의 공통점은 둘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추론이나 허구가 사실에 기초한다면 상상력이 되고, 사실을 부정하거나 파괴한다면 왜곡이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추론이 학문적 정당성을 잃고, 허구가 역사와 멀어진다. 이 경계를 혼동하면 팩션이 더욱 위태로워지는 것이다.⁷⁰⁾ 왜곡과 상상력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역사적 통찰력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70) 오항녕,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 『역사와현실』, 2016, p.104.

<부록-2> 규비판단 모형



위의 모형은 연구를 진행하여 직접 개발한“규비판단 모형”이다. 팩션 소비자들이 팩션 속 허구와 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형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규’는 뒤에 모형이 효과인 ‘비판’과 연결되며, 개발자 이름‘규비’가 들어간다.‘비판’은 뒤에‘단’과 연결되어‘판단’으로도 읽힌다. 모형 개발자와 기대하는 효과를 모두 넣은 이름이다. 규비판단 모형은 기본적으로 4단계로 구성되며, 필요시에는 5단계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 모형의 단계 순서는 앞글자를 각각 따면 idea(아이디어)라는 단어로 완성이 된다. 아이디어는 모형의 성격을 잘 담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의 영단어이다. 단계의 순서를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1단계는 ‘idea(생각)’이다. 보통 비판의 시작은 물음표이다. 그 물음표조차도 자신이 아닌 타인이 제시한 것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팩션을 보면서 물음과 느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느낌을 끌어내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다. 영화 속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나서서 찾아보지 않는 대중을 위한 모형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영화를 보고나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을 생각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2단계는 ‘director(감독)’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감독이나 작가를 비롯한 팩션 창작자의 입장에 서보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장면의 연출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영화의

시사점과 장면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록 더 좋다.

3단계는 ‘evidence(증거)’이다. 앞 단계에서 선정하였던 장면을 역사적 고증의 측면에서도 찾아보고 탐구하는 것이다. 해당 단계는 특히 생각과 예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수집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는 ‘a star raitig(별점)’이다. 1-3단계에서 했던 것을 종합하여 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그 평가 방식은 별점 매기기이다. 별 다섯 개 중 몇 개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단계를 통해서 앞 단계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5단계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5단계는‘lead(연결)’이다. 다른 사람과 각자의 평가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활동이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찾아본 정보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 해당 단계를 거친다면 모형의 기대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단계의 앞글자를 딴‘idea’에 마지막 5단계의‘L’이 붙으면‘ideal’이 된다. 이 영단어는 이상적인, 완벽한이라는 뜻을 가진다. 5단계를 모두 진행할 시 더욱 완벽한 모형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모형은 팩션의 작품성을 역사적 측면에서만 따지지 않는다는 중요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창작자의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단계가 있다. 진정한 비판적 사고와 판단을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해당 모형을 통해 꾸준히 연습한다면, 역사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주제는‘역사 팩션의 왜곡과 소비자의 올바른 수용’이다. 팩션은 역사적 사실에 문학적 허구를 가미한 장르로, 예시는 대중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소설이나 역사영화, 사극 드라마, 역사 웹툰 등이 있다. 팩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팩션의 유행과 관련이 깊다. 팩션 유행의 원인은 네 가지의 주요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팩션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산물이다. 현대에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대중은 가상의 허구적인 이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원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해주는 역할이 팩션이다.

둘째와 셋째는, 프로슈머(prosumer)와 소통공간의 출현이다. 특히 프로슈머는 생산자와 소

비자의 합성어이다. 생산적 소비자를 뜻하는 프로슈머는 소통의 시대와 관련이 깊다. 현대에서 대중은 허구의 공간에서 자신을 구해줄 타자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찾기 쉽지 않기에 사이버 공간을 탐색하게 된다. 팩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장르이다.

넷째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single Source & Multi-Use)이다. 원 소스 멀티 유즈란, 특정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팩션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콘텐츠 산업이 각 분야의 단독존재보다 서로 연결될 때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 정리 과정에서는 양면성에 대한 탐구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역사가와 창작자의 입장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가와 창작자가 노력하여도,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소비자 측면의 팩션 수용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게된 이유이다.

팩션 연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념 이해이다. 역사학과 팩션의 관계를 탐구하며,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 입장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정하였다. 특히, 나인호가 예상하였던 앞으로의 역사 연구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앞으로의 역사 연구는 사실 기반의 상상력으로 독창성 있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작업에 더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역사학과 팩션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두 개념은 추구하는 목표에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플롯 문제를 직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존재하였다.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가가 언어적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사건을 재현하고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즉, 역사가도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시적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개념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팩션의 기능과 효과이다. 처음에는 여러 연구에서도 부각되었던 팩션의 단점, 문제점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나 팩션 이해 과정에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역사학의 위기는 다른 연구에서 팩션의 문제점이라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팩션이 역사학의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인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팩션의 양면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서‘양면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것도 본 연구의 색깔을 담고 있다. 양면성은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단어로 나뉘지 않는다.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뉜다. 여기서 역기능은 부정적인 기능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복어의 독과 전문 요리사의 비유처럼 대중은 안전한 복어, 팩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팩션의 순기능은 비교적 쉬운 접근성, 과거 경험을 통한 카타르시스, 실제 사건 소재의 경우엔 느낄 수 있는 현실감, 역사 인식 지평 넓히기 등이 있다. 역기능으로는 진실과 허구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역사 왜곡 중에서도 명예훼손이 그 예시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역사 왜곡을 조심하는 창작자의 노력이다.

그렇다면 양면성을 손질하는 올바른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팩션이 역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자 연구 계획대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상은 10-20대, 인원은 70명이었다. 팩션 영화는 전근대 영화 4편과, 근현대 영화 4편으로 골고루 선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시대 구분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서양과의 문호 개방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본 연구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팩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묻는 문항은 별점 5점 중에서 상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평균 별점은 3.7이었다. 설문 조사에 나오는 영화 중 시청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도 존재하였다. <택시 운전사>, <명량>, <암살>이 순서대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주목할 점은 제일 시청자 수가 적었던 <영웅>도 시청자 수만을 보았을 때,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팩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명해주는 결과로 분석하였다.

팩션이 미치는 역사적 지식에 영향에 대한 물음에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43%의 많은 참여자가 ‘그렇다’고, 팩션의 영향에 동의하였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가 24%, 매우 그렇다가 27%로 대부분의 참여자는 팩션이 자신의 역사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사실과 허구를 판단하는 문항 분석을 통해, 역사적 지식 또한 팩션을 시청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역사 왜곡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지도 조사하였다. 57%의 사람이 ‘보통이다’라고 대답했고, 다음으로는 ‘그렇다’, ‘아니다’ 순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사람마다 팩션에 대한 평가가 다르듯이 왜곡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다른 결과였다. 허구와 사실을 구분하는 문항에서는 주목할만한 점이 특히 많았다. 그중에서도 간단히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실제 인물과 관련된 논란에 관심이 많다. 둘째, 창작자가 실제 역사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도, 소비자의 수용 방법은 제각각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 ‘규비판단 모형’이다. 목적은 소비자들의 팩션 비판과 판단 활동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본적인 단계는 4단계로, 앞글자를 딴 idea(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암기하기 쉽다.

1단계는 idea이다.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생각하고 설정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2단계는 director이다. 창작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영화의 시사점과 해당 장면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3단계는 evidence로, 해당 장면의 역사적 고증 측면에서 찾아보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a star rating이다. 별점으로 종합 평가를 하는 단계로, 앞 단계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5단계 lead를 거칠 수 있다. 해당 단계는 서로의 평가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단계이다. 5단계를 거칠 경우,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5단계를 거칠 경우에는 앞글자를 딴 idea에 lead의 'L'이 붙는다. 'ideal'은 이상적이고 완벽하다는 뜻이다. 해당 모형은 팩션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작품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중요성을 담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였던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팩션 소비자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팩션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팩션을 자연스럽게 접한다. 앞으로는 시청과 더불어 역사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역사 팩션의 왜곡 문제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시청한 역사 팩션 속 왜곡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이다.

팩션의 바탕이 되는 1차적 생산자는 '역사가'이다. 2차적 전달을 받는 생산자는 '창작자'이다. 앞으로 주목할 사항은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3차적 전달은 '대중', '소비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할수록 팩션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그동안 선행 연구들은 역사가와 창작자가 해야 할 많은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갈 시기이다.

참고문헌

- 공병규(2016). 중학교 한국사 수업을 위한 역사영화의 선정과 활용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태경(2022). 역사 대중화와 역사 왜곡의 문제. 인문사회.
- 김기봉 외(2009).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만남. 시민인문학.
- 김기봉(2007). 팩션(faction)으로서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 김기봉(2009). 역사들이 속삭인다. 프로네시스.
- 김기봉(2016). 사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꿈꾸는 역사’로서 사극-. 인문콘텐츠.
- 김미경(2013). 역사문학의 글쓰기 전략 및 글쓰기 미학: 팩션과 기록극-안나 제거스의 <1431년 루앙에서의 잔 다르크 재판>을 중심으로-. 혜세연구.
- 김상민(2006). 역사 in 영화 - 영화로 보는 역사 신년특집 팩션 - 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3). 역사와 문화.
- 김시무(2009). ‘팩션’과 ‘픽션’의 거리. 현대미학사.
- 김혜선(2023). 서경덕 교수가 밝힌 영화 ‘영웅’ 고증 포인트”, 일간스포츠, 2023.01.10, <https://v.daum.net/v/20230110060003607>.
- 나인호(2010). 팩션(faction)과 역사교육. 대구사학.
- 류경미(2021).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뉴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유형 연구 -‘국내외 사적지 탐방 콘텐츠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 문홍술(2006). 역사소설과 팩션(faction). 문학과 환경.
- 박문정(2016). 팩션(faction)문학 콘텐츠의 현실 예측력과 과급력: 안토니오 타부키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영웅’ 안중근에 대한 팩트체크 10가지”. 디스패치, 2022.12.28, <https://www.dispatch.co.kr/2232640>.
- 오항녕(2016).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 역사와 현실.
- 이교신(2019).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팩션 역사영화의 활용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철(2017). 역사콘텐츠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 드라마와 영화를 토대로. 한국사상

문화학회.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45권, 영조 13년, 9월 10일 을미 1번째,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id/kua_11309010_001.

진은경(2022). ‘세종’팩션영화의 스토리텔링 유형과 전략. 인문사회.

차경호 외(2021).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해냄에듀.

충무공 이순신. 『난중일기』, 1597. http://www.choongmoogongleesoonsin.co.kr/sub_04/sub_04_01_02.asp?boardidx=1504&mod_yy=1597&mod_mm=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부식, 삼국사기, 21. 고구려본기, 9.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sg&types=r&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sg_021r_0020_0150&position=-1

한기호(2007). 왜 팩션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해경궁 홍씨, 『한중록』, 스타북스.

KOBIS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연도별 개봉일람, (www.kobis.or.kr).

The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ions and Their Use in History Education

Lee, Gyu Bi
Sheen, Joo Hyun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ions and their use in history education. In the process, we analyzed the background and ambivalence of factions, and identified ways to help consumers accept factions correc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factions have proliferated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information age, the rise of prosumers, and the development of one-source multi-use. While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se factions include catharsis through past experiences and expansion of historical awareness, the negative functions include blurring the lines between historical fact and literary fiction. In particular, the issue of factional distortion has been discussed consistently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e conducted a survey to find out the perception and reality of such factional distortion. When asked about their perception of history, most respondents said that factions affect their historical knowledge. This suggests that faction distortion can give consumers a false sense of history. We considered how to utilize the net functions of factions and turn their negative functions into positive effects. The resulting 'Gyubi Judgment Model' helps consumers to accept factions critically and rationally.

Keywords: History education, Faction, Prosumer, Movie, Historical Distortion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기초수학 지도 방안 연구 - 대구·경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

김래용*

요 약

대학 기초수학은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 학문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하는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전공 교육의 핵심적 토대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 등 교육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지방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권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수학과 일반 교양수학 교과목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 기초수학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이후 전공 학습에 필요한 수학적 배경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수학 교과목의 수업 모델을 제시한다.

핵심어: 대학 기초수학, 교육 환경, 기초 학력, 대구·경북권 대학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I. 서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교육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대구·경북권 대학을 포함한 지방 대학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수학적 사고력은 이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의 논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수학적 기초를 다지지 못한 상태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공 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있다.

대구·경북권 대학들의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기본 학습 능력 저하와 연계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김영철, 이민환, 2003). 또한, 입시 위주의 학습 구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의 확산은 학생들의 자율 학습 능력을 크게 요구하였지만, 이는 학습 동기가 낮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학업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김인경, 황인아, 2022). 따라서, 지방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기초 학습 능력에 대한 강화가 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권 대학을 포함한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학업 준비도가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효과적인 기초수학 교육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학업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초수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수법과 학습 전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준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학습과 실용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설계를 통해, 수학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에게 수학 학습의 흥미를 유도하고, 기초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초수학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미경(2023)은 토픽 모델링 방법을 통하여 수학 교과에서 기초학력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 부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초학력 프로그램 체계화와 교육자의 전문성 신장을 제안하였다. 심상길과 고애영(2019)은 수학과 교육과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험의 변화로 인한 대학 신입생들의 기본 수학 능력의 변화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초 및 일반 교양수학 관련 교과목 현황 분석과 교양수학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근영(2017)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른 기초수학 성취도를 분석하고 기초 학업적 배경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기대(2022)는 공과대학 신입생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과정 기초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교과 개발과 그 효과를 기본역량 점수화를 통해 입증하였다. 최혜윤과 심상길(2021)은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 대학의 기초수학 담당 교수자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기초수학 및 교양수학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권 대학들의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 개설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과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양하고, 이후 전공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수학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초수학 교육의 강화는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II. 본 론

1. 대구·경북권 대학의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 개설 현황 및 분석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 관련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기초, 기초필수, 학부기초, 학부선택, 교양선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박형빈, 이현수, 2009).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을 박형빈과 이현수(2009)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초 교양수학과 순수 교양수학으로 구분하였다. 기초 교양수학은 이공계열 학생들의 필수 과목인 미적분학의 선수 교과목 특징을 갖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순수 교양수학은 기초 교양수학을 제외한 과목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수학의 기초 지식을 활용해 해결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학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 교양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경북권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적 기초를 강화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대구·경북권 6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2024학년도 수학 교과목을 강의 제목과 강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초 교양수학과 순수 교양수학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대구·경북권 대학의 기초·교양수학 과목 개설 현황

대 학	기초 교양수학	순수 교양수학	비 고
경북대학교	기초수학1, 기초수학2, 수학I, 수학II	인문사회 기초수학 인문사회수학	신입생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따라 기초수학 수강 면제
금오공대	대학수학1, 대학수학2		기초수학은 온라인강의 (KOCW) 로 제공
영남대학교	기초수학, 미분적분학1,2		기초 학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계명대학교	일반수학, 공학수학, 미적분학1,2	수학으로 인문학읽기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초수학 집중교육
대구대학교	기초수학, 기초미적분학1,2	생활속의수학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수학	알기쉬운수학1,2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 과목은 순수 교양수학보다 기초 교양수학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기초수학은 본격적인 대학 수준의 수학 과목인 미적분학을 학습하기 전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내용을 다루며, 대학별 강의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함수, 삼각함수, 수열, 행렬, 기초 미적분 이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기초수학을 1학기 분량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경북대학교의 경우 기초수학1과 기초수학2로 나누어 2학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금오공과대학교의 경우 기초수학이 정규 과정으로 개설되지 않고, KOCW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로만 제공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업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계명대학교는 관련 수업 개설 외에도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초수학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기초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여러 대학에서 순수 교양수학 과목도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수 교양수학은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수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 교육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권 대학들의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 개설 현황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준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학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대학 교양수학의 개선 방안

기초 학력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 배경을 고려하여 기초수학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생 개인의 필요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한다.

우선, 학습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서종진과 조승희(2018)의 연구에 따르면, 기초 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도가 수학에 대한 태도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학적 배경 지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각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목표와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내용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이론 중심의 수학 교육을 넘어, 공학, 생물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수학적 개념과 도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의 실질적 유용성을 체감하고, 전공 학문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컴퓨터나 태블릿 PC의 이용이 보편화 된 현재 교육 환경에서는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컴퓨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조성의, 김종화(2011)와 강인애, 허정필, 최성경(2017)의 연구는 수학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e-러닝과 Flipped Learning을 통한 교육이 수학에 대한 흥미 및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 보다 학습 진도 상황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제 간 융합을 지원하는 수학 관련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학은 이공계 전공 학생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든 전공 학생들이 교양과 지성인의 기본 소양으로

서 수학을 배우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분야의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초수학 교육과정의 제안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 실용적 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학적 개념을 실제 생활이나 전공 교과목과 연계하여 지도 함으로써, 학생들은 수학 학습의 목적과 유용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전공 학습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3. 기초수학 수업 모델 제안 및 주차별 학습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교육에서 기초수학은 교육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권 대학을 비롯한 지방 대학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학력의 저하는 대학 전공 교육의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학습에 필수적인 수학적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초수학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전공 교육의 기초가 되는 미적분학 학습에 필수적인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 속의 흥미로운 수학 내용을 단원에 맞게 배치하였다. 13주차로 구성된 기초수학 수업 모델은 대학교재연구회(2019)와 Posamentier & Spreitzer(2018)를 참고하였다.

1) 1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수학의 역할

- 수업 진행 방법과 학습 목표 소개.
- 수학의 역사적 중요성 및 인류 문명에서의 역할.
- 수의 체계(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등).

○ 제안점

- 간단한 진단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수준을 파악.
- 수학 학습의 목적과 유용성 설명 및 학습 동기 유발.

2) 2주차: 명제와 집합

- 명제와 집합, 연산의 기본 개념.
- 시간과 달력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원리.

○ 제안점

- 명제와 집합 연습문제를 현실적 예시(캘린더 계산법, 시간 계산)와 연결.
- 활동형 학습(작은 그룹으로 달력 만들기 등)을 통해 실용성 강조.

3) 3주차: 수의 체계 및 실수와 복소수

- 수 체계의 확장(실수와 복소수).
- 수학적 모델링(문제 해결 과정) 소개.

○ 제안점

-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복소수 응용 사례(전기공학, 신호 처리) 소개.
- 단위 변환과 관련 활동을 통해 수의 체계에 대한 이해 강화.

4) 4주차: 함수와 경제생활

- 함수와 역함수, 주요 함수 유형.
- 경제 생활에서의 수학, 이자 계산과 72의 법칙.

○ 제안점

- 금융 계산 도구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이자 계산법 학습 및 재정 계획 수립 체험.
- 함수 개념에 대해 시각적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임.

5) 5주차: 삼각함수와 최적화

- 각의 측정, 삼각함수 정의 및 성질.
- 최적화 문제를 다룬 실생활 사례 연구.

○ 제안점

- 삼각함수를 길이, 높이 계산 등 실질적 문제와 연결.
- 그래프 계산기를 활용하여 삼각함수의 시각적 이해를 강화.

6) 6주차: 삼각함수의 그래프 및 확률 개념

- 삼각함수 그래프와 역삼각함수.
- 확률의 기초와 계산법.

○ 제안점

- 게임 확률 계산(예: 주사위, 카드게임)을 통해 확률의 개념 습득.
- 몬티홀 문제 등 퍼즐 학습을 통한 확률적 사고 훈련.

7) 7주차: 삼각법 응용과 스포츠의 수학적 접근

- 삼각법 공식과 항등식,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 삼각함수 방정식 풀이와 실생활 응용.
- 스포츠 속의 수학적 원리와 전략.

○ 제안점

- 삼각법을 활용한 지도 거리 계산, 스포츠 관련 분석.
- 스포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통한 실용성 강조.

8) 8주차: 극좌표 및 자연 속의 수학

- 극좌표와 지수·로그함수.
- 자연 속의 수학적 원리(피보나치 수열, Phyllotaxis 등).

○ 제안점

- 자연 현상 속 수학적 패턴 관련 시각적 자료 제시 및 흥미 유발.

9) 9주차: 해석기하학 및 원추곡선

- 원추곡선의 기초와 표준형의 이차곡선.
- 자연 및 예술 속 기하학적 패턴.

○ 제안점

- 건축과 예술 속 원추곡선의 사례 학습.
- 무지개의 원리.

10) 10주차: 방정식과 부등식

- 연립 선형 방정식·부등식 풀이.
- 방정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 제안점

-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방정식과 부등식의 응용 실습.

11) 11주차: 수학적 귀납법과 수열

- 수학적 귀납법, 이항정리, 등차·등비수열.

○ 제안점

- 수열의 실생활 활용 사례 학습.
- 귀납법 관련 연습문제를 프로젝트 기반으로 제시하고, 창의적 해결 방법을 모색.

12) 12주차: 극한과 연속

- 극한과 연속성의 기본 개념.

○ 제안점

-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시각화하여 이해를 도움.
- 대학 전공 교육에서의 수학의 중요성 설명.

13) 13주차: 심화학습

- 미적분학 기초, 벡터와 행렬.
- 전체 내용 요약 및 토론.

○ 제안점:

- 전공 학문과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응용 문제를 제공.

IV. 결론 및 제언

대구·경북권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력 저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의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 수학 교육은 학생들이 학문적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도 수학은 데이터 분석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유용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초수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문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구·경북권 대

학들은 이미 기초수학 및 일반 교양수학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전공 교육으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학 교육의 접근 방식에 대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 배경과 학습 수준을 면밀히 평가하여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기초수학 학습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수학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적·사회적 맥락에서 수학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 도구를 통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제 중심 학습(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참여적이고 자기 주도적 교육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이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기초수학과 일반 교양수학은 단순히 학문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교육적 도전을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수학 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애, 허정필, 최성경. (2017). Flipped PBL과 Flipped Learning 간의 흥미도 및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대학교양수학수업 사례. *교양교육연구*, 11(3), 331-375.
- 김근영. (2017). *대학수학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수학 태도와 수학 성취도에 관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부경대학교.
- 김기대. (2022). 학습역량 저하 공과대학 신입생을 위한 기초역량 증진 복습교과목 개발 및 효과성 분석. *공학교육연구*, 25(4), 35-41.
- 김영철, 이민환. (2003). 지역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 경제력 유출 효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19(2), 119-141.
- 김인경, 황인아. (2022). 코로나19 전후 기초미적분학의 내용 영역별 수학 학업 성취도 비교 분석-지방 대학교의 공과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16(5), 231-244.
- 대학교재연구회. (2019). *기본부터 다지는 기초수학*. 경문사.
- 박형빈, 이현수. (2009). 대학생들의 교양수학에 대한 인식과 교양수학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 *수학교육 논문집*, 23(4), 999-1014.
- 서종진, 조승희. (2018). 개별지도가 대학수학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와 수학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1(3), 287-301.
- 심상길, 고애영. (2019).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교양수학 개선 방안. *교양교육연구*, 13(4), 143-160.
- 조미경. (2023). 빈도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수학 교과에서 기초학력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수학교육논문집*, 37(4), 615-633.
- 조성익, 김종화. (2011). 수학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e-러닝 활용 방안.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3-196.
- 최혜윤, 심상길. (2021). 이공계열 1학년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변화에 따른 기초 교양수학 개선 방안. *교양교육연구*, 15(5), 85-95.
- 황인아, 김인경. (2022). 코로나19 이전 대면 수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의 수학 학업 성취도 비교분석: 공과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열린교육연구*, 30(4), 215-239.
- Posamentier, A. S. & Spreitzer, C. (2018), *The Mathematics of Everyday Life*. Prometheus, USA.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Basic Mathematics in Universities with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Universities in Daegu-Gyeongbuk Provinces

Kim, Rae Yong

<Abstract>

Basic mathematics in college provides a core foundation for education in all majors, regardless of the field that forms the basis of academic thinking beyond simple computational skills. However, due to the recent rapid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Seoul-Kyungki area, the decline in basic academic ability among new students entering local universities is evident.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basic mathematics and general liberal arts mathematics courses provided by universities in Daegu·Gyeongbuk provinces, and discuss ways to improve basic mathematics in universit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presents a teaching model for basic mathematics subjects that can increase students' interest in mathematics and cultivate the mathematical background necessary for future major studies.

Keywords : University basic mathematics, Education environment, Decline in academic ability, Universities in Daegu-Gyeongbuk provinces

예비 수학교사를 위한 기하학 교재 분석 및 지도법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

김래용*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중 기하학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하학 관련 개정 교육과정은 공간적 사고 및 시각화 능력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강화하여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고등학교 학습 내용 사이에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습 내용에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 관련 내용을 일정 정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기하학의 본질적인 학습 목표인 공간과 도형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도형의 방정식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형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학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수학교사들의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기하학 지도를 위해 대학 전공 교과목 관련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업 모델은 중등학교 기하학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심화로 구성하였으며,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교사들은 이미 학습한 해석 기하학 관련 내용들은 쉽게 이해하였으나,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 및 이를 활용한 증명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대수적인 계산에는 익숙하였으나,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형의 기하학적 성질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기하학 교육을 위해 예비 교사들이 유클리드 기하학 및 논증 기하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핵심어: 중등학교 교육과정, 기하학, 예비 수학교사, 수업 모델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I. 서론

공간과 그 공간 속의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인 기하학은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수학 분야 중 하나이다. 경작지 경계의 측정 또는 건축물의 설계와 건설이라는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기하학은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공리적 체계가 정립되고 그 이후 모든 수학 분야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Lee, 2007). 삼각형, 원 그리고 사각형과 같은 기본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평면 기하학과 구, 원뿔 그리고 다면체와 같은 3차원 구조를 탐구하는 입체 기하학 등 유클리드 기하학에 그 기초를 둔 기하학 연구는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 좌표계가 도입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좌표계의 도입을 통해 수학자들은 기하학적 물체를 대수적으로 표현하고, 대수학 분야에서 개발된 도구를 기하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4차원 이상의 공간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좌표계를 활용하는 해석 기하학은 편리함과 실용성이 높은 기하학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 기하학은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비유클리드 기하학, 미분기하학 그리고 위상수학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였고, 과학, 기술,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미래 사회에서도 기하학은 새로운 수학적 도구 제공이라는 본연의 학문적 가치에 더해 AI와 기계 학습에의 활용, VR과 AR 기술 그리고 나노 기술을 활용한 생명과학에의 응용 등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역할과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기하학 교육은 공간적 사고, 논리적 추론 그리고 시각화 능력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학생들은 기하학 학습을 통해 공간 추론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력과 공간에 대한 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Shin & Shin, 2010). 또한, 도형의 성질과 구조에 대한 시각적 이해는 학생들의 직관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자극한다(Yun, Kang, & Kim, 2010). 이를 바탕으로 기하학 학습은 문제 만들기 활동 또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문제 해결 경험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 및 효능감을 높이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수학과 중등 교육과정에서 기하학 교육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응용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MOE, 2022). 초등학교에서는 기본 도형의 소개와 그 성질을 학습하고, 중학교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의 성질과 활용 능력을 배양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함수 학습에 필요한 기하학적 도구를 배우고, 평면좌표와 벡터를 활용한 도형의 기하학적 분석, 입체도형의 성질과 공간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학습한다. 이는 기하학 교육이 단순히 학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앞서 언급한 과학, 기술 그리고 예술 등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기하학적 사고를 활용하는데 든든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최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학습 자료 개발에서부터 혁신적인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하학 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심화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데 효율적인 기하 영역이 고등학교 수학 교육에서 필수가 아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정됨으로써 기하학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KAST, 2018).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기하학 교육 내용과 설명 방식에 대한 차이가 크다. 중학교에서는 기본 도형인 삼각형, 원, 사각형 그리고 이에 관련된 기초적인 기하학 개념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나, 고등학교에서는 기하학의 본질적인 학습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함수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기하학의 활용과 좌표평면 또는 좌표공간에서 도형을 다루는 해석 기하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개념 암기에만 급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Jung, 2013; Hong & Park, 2007). 이는 직관적인 기하학적 사고에서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사고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가져와 학생들이 도형의 본질적 구조를 발견하거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Sim & Park, 2011), 학생들의 단계별 사고 발달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등학교 기하학 교육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하학교재분석및지도법” 교과목을 위한 수업 모델을 제시한다. 해당 수업 모델을 바탕으로 2024년 2학기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예비 수학교사들의 강의 내용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중 기하학 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2. 예비 수학교사들을 위한 관련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운영 결과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중 기하학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는 아직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교과서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이전 2015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2022년 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하고, 2015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판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중학교 수학 교과서는 Hwang et al.(2018)이고,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Hong et al.(2018), Jeon et al.(2018) 그리고 Hwang et al.(2019)이다.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기하학교재분석 및 지도법” 교과목에 활용할 수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수업 모델에 제시된 내용은 중등학교 기하학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부에 의해 제시된 교육과정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을 교과목 목표로 하여 구성되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도형과 측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기하 교과목의 해석 기하학 내용을 학습하고 심화하는 내용이며, 미적분학을 비롯하여 대학 수학 이상의 수학적 도구는 배제하였다. 13주차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학교 기하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심화와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결성을 위해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도형에 대한 논증기하학 내용을 첨가하였다. 수업 모델은 Park(2020)과 Coxeter & Greitzer(1974)를 참고하였다.

설계된 수업모델을 바탕으로 2024년 2학기 경상북도 소재 D대학 예비 수학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총 13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수업 중 중등학교 기하학에 관련된 심화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모니터링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 상태와 교과목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고등학교 기하학 관련 교육과정 분석

교육부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처리의 5개 핵심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 이 중 연결 역량은 기존의 창의·융합과 가치 및 태도 역량이 삭제되고 추가된 것으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간의 연결성과 타 교과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의 적용 및 응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영역도 기존 5개 영역에서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의 4개로 변경되었으며, 초·중학교 내용 영역 통합을 명시한 것은 초·중학교 수학과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침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용 영역에서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라는 명칭이 삭제된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표 1>은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요약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총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 문제해결 : 수학적 지식을 이해·활용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핵심 교과 역량	총괄목표 :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 추론 : 수학적 사실에 근거한 추측과 정당화를 통한 추론
	세부목표 :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처리	- 의사소통 : 수학적 사고와 전략에 대한 의사소통과 수학적 표현의 편리함 인식
내용 영역	초·중학교 내용 영역 통합	- 연결 :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간의 관련성 탐구 및 실생활과 타 교과에 대한 적용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 정보처리 : 목적에 맞는 도구나 도구의 활용 및 자료 수집·처리를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
목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처리	

<표 2>는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목 구조이다.

<표 2> 중등학교 수학 교과목 구조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공통수학 1,2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기본수학 1,2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대수, 고급 미 적분, 고급 기하	

이 중 기하학 관련 내용으로는 공통수학 1,2 중 “도형의 방정식” 부분과 진로 선택 과목 중 기하 교과목이 있다. “도형의 방정식” 부분의 내용은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

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과정 및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표3>) 기하학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함수 학습 및 이를 이용한 실생활과의 연결 또는 응용을 위한 도구로서 제시되어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또한, 2015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선분의 외분점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표 3> 공통수학 1,2 중 도형의 방정식 관련 내용

도형의 방정식	- 평면좌표 - 직선의 방정식 - 원의 방정식 - 도형의 이동
과정·기능	- 도형을 방정식과 연결하기 -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기 - 도형의 방정식을 실생활과 연결하기 -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기
가치·태도	- 실생활과의 연결을 통한 도형의 방정식의 유용성 인식 - 대수와 기하를 연결하는 사고의 전환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표4>는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 교과목에 대한 내용이다.

<표 4>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 기하 교과목

핵심 아이디어	- 원뿔을 절단하여 만든 곡선을 표현하는 것은 그 기하적 성질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 공간좌표와 식을 활용하는 것은 공간도형의 기하적 성질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을 나타내는 도구로, 위치벡터는 좌표평면과 좌표공간에서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데 활용된다.
이차곡선	-이차곡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	-벡터의 연산 -벡터의 성분과 내적 -도형의 방정식
과정·기능	-도형을 방정식과 벡터로 표현하기 -대수적 절차를 수행하여 값 또는 식 구하기 -연역적 추론을 통해 도형의 성질 증명하기

	-도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수학적 개념을 좌표로 표현하기 -연산 절차 수행하기 -수학적 개념을 연결하기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해결하기 -적절한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기하적 대상 탐구하기
가치·태도	-문제해결 도구로서 이차곡선과 벡터의 유용성 인식 -연역적으로 증명하여 논리성을 추구하는 태도 -평면을 공간으로 차원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흥미 -도형을 벡터로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의 간결함 인식

기하 교과목의 주요 학습 내용은 핵심 아이디어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하학적 물체인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기 위해 좌표평면과 좌표공간을 활용하고 이를 위해 벡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이차곡선 관련 내용도 이차곡선이 원뿔을 절단하여 만든 곡선이라는 것 외에는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고 대수적 절차를 수행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차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별식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다. 과정·기능에서 연역적 추론을 통해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고 도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 지각 능력과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기하학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대수적인 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이용하여 실생활의 문제와의 연결과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기본 도형인 삼각형, 사각형, 원의 성질 그리고 닮음, 삼각비 등의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를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좌표평면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형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과정(증명의 필요성 인식)을 통해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뿐만 아니라 건축물, 문화유산, 예술 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기하학 교육을 이수한다.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기하학적 방법론을 더 높은 단계인 고등학교 교육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해석 기하학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하학의 본질적인 성질인 직관적인 이해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기호와 계산에 치중하게 되어, 공간적 사고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할 수 있다(Ban, Shin, & Ryu, 2016). 또한 복잡한 대수적 조작과 추상적인 논리는 학생들의 수학 전반에 대한 학습 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Ku, 2021). 따라서, 고등학교 기하학 교육에서 기존 함수 분석 도구로써의 도형의 방정식, 해석 기하학을 바탕으로 한 좌표계와 벡터의 활용, 이차곡선에 대한 학습 뿐만 아니라

기하학 학습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논증 기하학에 대한 내용을 병행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수업모델 제시 및 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학습하는 기본 도형의 소개와 그 성질에 대한 내용과 고등학교에서 주로 학습하는 함수 학습의 도구로서의 기하학, 벡터와 좌표공간을 바탕으로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해석 기하학 사이에는 기하학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하 교과목 내용 중 이차곡선 부분 내용도 이차곡선의 기하학적인 의미 전달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극복하고, 학습자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기하학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학 전공 교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13주 분량의 “기하학교재분석및지도법” 교과목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1주차 : 평면기하의 기초

- 2차원 평면 상의 점을 표현하는 직교 좌표계와 극 좌표계를 소개한다.
- 평면 상의 점의 이동을 설명하는 해석적 도구인 벡터와 도형의 이동을 표현하는 행렬을 학습한다.
- 평행이동, 회전이동 그리고 대칭이동 등 도형의 이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응용한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공통수학 1,2 에서 함수의 그래프
- 공통수학 1,2 에서 도형의 방정식 중 평면좌표, 도형의 이동
- 기하 교과목에서 벡터

2) 2주차 : 직선과 삼각형

- 평면기하의 기본 곡선인 직선과 삼각형에 대해 학습한다.
- 직선을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 직선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중학교 도형과 측정 영역 중 기본 도형, 평면 도형의 성질
- 공통수학 1,2에서 일차 함수의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

3) 3~5주차 : 유클리드 기하학 기초

-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삼각형 학습의 기본 도구인 사인 법칙과 체바의 정리를 학습한다.
- 삼각형의 오심의 존재성을 증명한다.
- 원과 삼각형의 여러 성질을 유도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 공선성과 일치성에 대해 학습한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중학교 도형과 측정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논증 기하학의 기초
- 중학교 교육과정 중 기본 도형,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삼각비

4) 6주차 : 원

- 좌표평면 상에 위치한 원의 대수적 표현인 원의 방정식에 대해 학습한다.
- 원의 접선과 극선의 개념을 소개하고, 유도하는 방법을 배운다.
- 두 원의 관계를 탐구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적 접근과 비교한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중학교 교육과정 중 삼각비, 원의 성질
- 공통수학 1,2의 도형의 방정식 중 원의 방정식

5) 7~8주차 : 이차곡선

- 표준형의 이차곡선을 소개하고 그 성질을 탐구한다.
- 접선, 직경 그리고 극선의 개념을 소개하고 유도하는 방법을 배운다.
- 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이차곡선을 표준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운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기하 교과목의 이차곡선
- 공통수학 1,2에서 행렬과 행렬의 연산

6) 9주차 : 공간기하의 기초

- 3차원 공간 상의 다양한 좌표계를 학습한다.
- 벡터와 행렬을 좌표 평면에서 좌표공간으로 확장한다.
- 공간에서 도형의 이동에 대해 배운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중학교 교육과정 중 입체도형의 성질
- 기하 교과목 중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공통수학 1,2에서 도형의 이동

7) 10주차 : 공간 속의 직선과 평면

- 좌표공간 속의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 학습한다.
-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계산법을 숙지한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기하 교과목 중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기하 교과목 중 벡터의 연산

8) 11~12주차 : 이차곡면의 기초

- 표준형의 이차곡면을 소개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접평면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 경면과 중심의 개념을 소개하고, 유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기하 교과목 중 공간도형의 심화
- 기하 교과목 중 이차곡선의 심화

9) 13주차 : 이차곡면의 분류

-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이동에 대해 배운다.
- 이차곡면을 표준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공통수학 1,2에서 행렬과 행렬의 연산 심화
- 기하 교과목 중 이차곡선의 심화

3. 수업적용 결과 및 분석

“기하학교재연구및분석” 교과목은 예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기하학 관련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과 그

심화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수업이다. 1~2주차 수업 내용은 이미 예비 교사들이 중등학교 그리고 대학 전공 교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한 내용으로 많은 내용을 다소 짧은 시간 내에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몇몇 예비 교사들은 2주에 걸쳐 평면기하와 기본 곡선을 학습하는 것이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3주차 유클리드 기하학 기초 부분에서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이 수업 내용에 당혹감을 표현하였다. 예비 교사들에게 이미 익숙한 좌표계가 부재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색함이 그 이유인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심층 인터뷰 결과 예비 교사들이 좌표계의 부재보다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적인 내용으로부터 관련 명제를 증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인 법칙(그림 1)은 이미 예비 교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삼각함수 관련 공식이나, 이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원주각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것에 불편함을 표현하였으며, 체바의 정리를 충분히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바의 정리를 비교적 간단하게 적용하는 수심의 존재성에 대한 증명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하지 못하였다.(그림 2)

정리 (싸인의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삼각형 ABC 에 대하여

$$\frac{a}{\sin A} = \frac{b}{\sin B} = \frac{c}{\sin C} = 2R$$

이 성립한다.

<그림 1> 사인법칙

7. (다음 정리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남을 보여라.

(체바의 정리) 삼각형 ABC 에서 세 체비안 AX, BY, CZ 가 한점에서 만날 필요충분조건은

$$\frac{BX}{XC} \frac{CY}{YA} \frac{AZ}{ZB} = 1$$

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림 2> 체바의 정리를 이용하는 중간고사 문제

주어진 삼각형으로부터 정의되는 다양한 삼각형들, 오일러의 선, 공선성(Collinearity, 하나의 직선 상에 위치한 여러 점들)과 일치성(Concurrence, 하나의 점을 지나는 여러 직선들)에 관련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예비 교사들은 내용 학습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이를 이용하여 논증(증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답

하지 못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이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학습이 중학교 이후 사실상 전무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중등학교 기하학 교육을 위해서 예비 교사들에게 유클리드 기하학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 제안하는 바이다.

6~8주차의 강의 주제는 원과 이차곡선이다. 평면 상의 기본 곡선은 직선과 원이고, 원은 이차곡선의 특별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원과 이차곡선에 대해 이미 학습한 예비 교사들은 원의 방정식과 표준형의 이차곡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하지 않는 극선, 직경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접선과 같은 원리로 유도되는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이 공식을 암기한 후 단순 대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그림 3).

$$\begin{aligned}
 & \text{1. } (1, -1) \text{에서 원 } x^2 + y^2 + 6x + 2y - 6 = 0 \text{에 대한 극선을 구하라.} \\
 & x^2 + 6x = (x+3)^2 - 9 \\
 & y^2 + 2y = (y+1)^2 - 1 \\
 & x^2 + y^2 + 6x + 2y - 6 = (x+3)^2 + (y+1)^2 - 16 = 0 \\
 & \therefore \text{원의 중심 } (-3, -1) \text{ 반지름 : } 4 \\
 & 6 \cdot 1 + 2 \cdot (-1) - 6 = 6 - 2 - 6 = -2 \\
 & \therefore 6x + 2y - 2 = 0
 \end{aligned}$$

<그림 3> 극선 문제에 대한 학생 답안

극선과 직경 등은 이차곡선이 가지는 대표적인 기하학적 성질 중 하나이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기하학적 사고가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 계산 또는 암기를 기반으로 한 해석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도 좋지 못한 지도법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는 9주차 이후 공간기하와 이차곡면의 학습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들은 공간 상의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그리고 이차곡면의 학습에서 자신들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들의 이해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접평면과 거의 같은 원리에 의해 유도되는 경면의 방정식의 학습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차곡선과 달리 이차곡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탓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답을 유도하지 않고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작업이다. 실제 심층 인터뷰에서 많은 수의 예비 교사들이 해당 부분의 학습에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이차곡선과 이차곡면의 분류는 선형대수에서 배운 행렬의 기하학적 성질을 활용한다. 이미

선형대수학 교과목에서 직교행렬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 학습하였음에도 몇몇 예비 교사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기하학 관련 교과목에서 행렬의 기하학적 의미를 학습하고 수학에 대해 인지적 확장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에도 다소 놀라움을 표현하는 예비 교사들도 있었다.(그림 4) 선형대수학 교과목에서 대부분의 관련 내용들을 학습한 상태이나, 기하학 관련 교과목에서 행렬의 활용을 경험한 것은 예비 교사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지도와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6. 다음 행렬이 표현하는 회전변환의 회전축(직선)을 구하라.

$$\begin{pmatrix} 0 & 1 & 0 \\ \frac{1}{\sqrt{2}} & 0 & \frac{1}{\sqrt{2}} \\ \frac{1}{\sqrt{2}} & 0 & -\frac{1}{\sqrt{2}} \end{pmatrix}$$

<그림 4> 특수직교행렬의 기하학적 의미를 표현하는 문제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중 기하학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예비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기하학교재분석및지도법” 교과목을 위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주제로 중등학교 기하학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교육부에 의해 제시된 기하학 관련 교육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삼각형, 원 그리고 사각형 등 기본 도형의 성질을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고등학교 과정은 모든 학습자들이 이수해야 할 공통수학 1,2 중 도형의 방정식 부분에서 평면좌표, 직선과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학습하고,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 교과목에서 이차곡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그리고 벡터와 도형의 방정식을 학습한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학습하는 중학교 과정과 함수 학습의 도구, 해석 기하학을 학습하는 고등학교 과정 사이에 교과 내용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할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 문제에 대한 연역적인 추론과 논리적인 증명법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기하학 교육 관련하여서도 학습자들의 직관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

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차곡선 관련 내용도 기존 표준형의 이차곡선 소개와 접선의 방정식 내용 뿐만 아니라 이차곡선의 기하학적 성질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두 번째 연구 주제에서는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 수학교사들을 위한 대학 전공 교과목인 “기하학교재분석및지도법” 수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2024년 2학기 동안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업 내용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와 해석 기하학의 관련 내용 및 심화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적분학을 비롯하여 대학 이상 수준의 수학 내용은 배제하였다. 2024년 2학기 동안 D대학 예비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교사들은 해석 기하학 관련 내용은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였다. 하지만, 좌표계가 부재한 상황과 유클리드 기하학의 방법론에 관련된 논증 기하학적 내용에 대해서는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중학교 기하학 내용의 효과적인 지도와 중·고등학교 내용 사이의 유연한 연결을 위해 연역적 추론과 증명법에 관한 전공 학습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차곡선·이차곡면과 관련하여 예비 교사들은 이미 학습한 표준형과 접선·접평면의 방정식은 어려움 없이 학습하였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극선, 주축, 경면 등 기존 교육과정에서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와 활용에 일정 정도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예비 교사들이 대수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 계산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익숙하나, 기하학의 본질적인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추론과 문제 해결에는 다소 미숙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기하학 교육을 위한 교수법 그리고 관련 배경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대학 전공 교과목의 제공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Ban, E. S., Shin, J. H., & Ryu, H. C. (2016). Re-Interpreting the Descartes's Perspectives on the Connection of Algebra and Geometry. *數學教育學研究*, 26(4), 715-730.
- Coxeter, H. S. M. & Greitzer, S. L. (1974). *Geometry Revisited*. The Mathematical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 C., USA.
- Hong, J. G., Park, M. K., Ham, Y. D., Yoo, J. S., Song, C. H., Woo, A. S., & Jung, J. H. (2018). *공통수학 Ⅱ*[High School Mathematics II]. 천재교육.
- Hong, S. K., & Park, C. H. (2007). The Study on the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Misconception in the Learning of the Conic Sections. *School Mathematics*, 9(1), 119-139.
- Hwang, S. W., Kang, B. G., Yoon, G. J., Lee, K. Y., Kim, S. Y., Lee, M. H., Kim, W. I., Park, M. H., & Park, S. U. (2019). *기하*[High School Textbook]. MiraeN.
- Hwang, S. W., Kang, B. G., Yoon, G. J., Lee, K. Y., Jang, H. W., Jeong, J. S., & Cho, S. Y. (2018). *중학교 수학 I* [Middle School Mathematics I]. MiraeN.
- Jeon, I. T., Kim, D. J., Jang, H. S., Song, J., Park, S. H., Choi, E. A, Song, Y. H., & Kim, S. C. (2018). *공통수학 Ⅱ*[High School Mathematics II]. 천재교육.
- Jung, W. (2013), The Problem of Discontinuous Method of Mathematical Teaching: A Case on Concept of Continuity.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5(3), 521-542.
- Ku, N. (2021), *A Study on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Focusing on a Novice Teacher's Case*(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K. (2007). *A study on the teaching - learning method through the history of mathematics*(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Kwangju, Korea.
- Ministry of Education[MOE] (2022). *수학과 교육과정* [Mathematics Education Curriculum]. 교육부 고시 #2022-733 [Annex 8], Sejong, Korea.
- Park, K. S. (2020). *Introduction to Geometry*. Kyung-Moon Sa.
- Shin, K. M., & Shin, H. (2010). The Effect of Geometry Learning through Spatial

- Reasoning Activities o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Mathematical Attitude.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14(2), 401-420.
- Sim, W. K., & Park, M. G. (2011). An Analysis of Justification Process in the Proofs by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14(1), 13-26.
-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KAST] (2018). *Voice of the KAST*. 72, Seong-Nam, Korea.
- Yun, Y. J., Kang, S. P., & Kim, S. J. (2010). An Influence of Visualization on Geometric Problem Solving in the Elementary Mathematics.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13(4), 655-677.

A Study in Teaching Materials of Geometry for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 Based on Analysis in High School Textbooks

Kim, Rae Yong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geometry-related content in high school mathematic textbooks and the 2022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The revised curriculum on geometry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problem-solving skills by strengthening spatial thinking, visualization and logical reasoning skills. We also give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irst, in order to overcome the factors that impede continuity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learning materials, it is suggested that the high school curriculum include some content related to the basics of Euclidean geometry.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essential learning goal of geometry, which i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pace and shapes,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a learning experience on the geometric properties of shapes, rather than simply presenting equations. In addition, in this study, a teaching model related to university major subjects was presented for effective geometry instruction in the field of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and the operation results were analyzed. The class model consists of the content of the secondary school geometry curriculum and its enrichment, and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rospective teachers were able to easily understand the analytic geometry they had already learned, but they struggled to learn the basics of Euclidean geometry and prove its use. Second, although they were familiar with algebraic calculations, they struggled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explaining the geometric properties of shape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space. In order to effectively teach geometry in schools, it is suggested that prospective teachers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study Euclidean geometry and argumentative geometry.

Keywords: Mathematics curriculum, Geometry,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Class model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과학 교과 성취기준 분석

- 2015, 2022 개정 천문학 내용 중심으로 -

안성호*

요약

본 연구는 2015 개정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교육과정 변화의 방향성과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공통 교육과정의 축소 형태로, 일정 수준의 이론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구성된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론적 학습을 최소화하고 과학 탐구 활동에서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천문학 성취기준은 6개에서 3개로 축소되었으며, 지구와 달의 운동 및 우주 탐사와 같은 주제는 제외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각적 탐구와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천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론적 배경 학습의 기회 축소는 장애학생의 기본적인 과학 소양 함양을 제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취기준 변화를 통해 특수교육 과학 교육이 실생활과 연결된 탐구 중심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탐구 활동의 다양성을 확대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론 소양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내 천문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천문학,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탐구 중심 학습, 이론 소양 부족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I. 서론

천문학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고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학문이다. 천문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자극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된다. 특히, 천문학은 시각적이고 체험적 요소가 강해 학생들이 자연 현상과 과학적 원리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천문학은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학문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과학의 다양한 영역을 모두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천문학과 같은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이용섭, 2023). 이는 교사들이 천문학 지식을 습득하거나 천체 관측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한제준 외, 2012). 더불어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천문학 용어는 3차원적 공간 개념을 포함하거나 외래어 기반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에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다(강진철, 2005; 최행임 외, 2008). 또한, 은유적 표현이 포함된 천문학 용어는 오개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최영진과 신동희, 2020).

천문학적 개념을 가르치는 어려움은 특수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특수교육에서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학습이 강조되는데, 이로 인해 특히 시각장애학교에서 천문학 및 우주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유선해와 정진자, 2016).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의 천문학 내용은 일반 교육과정에서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결과 천문학과 같은 전문적이고 체험 중심의 내용이 종종 축소되거나 생략되었다. 하지만 천문학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적·정서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이러한 내용의 축소가 장애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15 개정에 따른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장애학생 대상 과학 교육이 일반 과학과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 개정에 따른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장애학생의 과학 교육 수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과학적 탐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 요소가 대거 제외되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내 천문학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적절한지 평가하고자 한다. 더불어 특수교육에서 천문학 교육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특수교육 과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특수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과정으로,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운영되는 공통 교육과정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은 대체로 일반 과학과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반면,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장애학생의 장애 수준에 맞춰 설계되었다. 2015 개정 전까지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누어 간단한 탐구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5 개정부터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성취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 내용 요소가 특수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과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된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2.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과 2022 개정에 따른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내용 요소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천문학 내용 요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천문학 내용 요소의 변화
- 천문학 성취 기준의 변화
- 천문학 내용의 기준 학년 변화

III. 연구결과

1.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 분석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는 과학 교과와 ‘지구와 우주’라는 영역 내에서 천문학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교육부, 2015). 이 영역은 ‘지구와 달’과 ‘우주’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 발달 수준에 따라 천문학 내용을 체계

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 학교 공통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많은 내용이 장애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축소되어 다뤄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이는 천문학이 장애학생들에게 학습적·정서적 효과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습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은 성취기준에 있어서 얼마나 학습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2015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지구와 달’ 영역에서는 지구와 달의 운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낮과 밤’ 및 ‘지구와 달의 모양’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지구와 달의 운동’과 그로 인한 다양한 현상을 학습한다. 첫 번째 성취기준인 ‘낮과 밤의 모습을 비교한다’는 낮과 밤의 차이를 관찰하게 하고, 지구 자전에 의해 낮과 밤이 생겨난다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한다는 과학적 개념을 학습한다. 이는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성취기준인 ‘지구와 달의 모양을 비교한다’는 지구와 달이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성취기준은 단순히 2차원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입체 모형 제작 및 활용을 권장한다. 학생들은 ‘구’ 형태의 모형을 통해 지구와 달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인 ‘[4수학02-02] 상자 모양, 공 모양, 둥근기둥 모양 등의 여러 가지 모양을 탐색한다.’와 연계되어, 학습 위계에 따라 도형을 먼저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모양을 학습하는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성취기준인 ‘지구와 달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조사한다’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을 생활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과정에서 지구 자전에 의해 낮과 밤이 생긴다는 기본 개념을 배운 것을 확장하여 지구 공전의 결과로 계절이 변화하고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학습한다. 또한 달의 공전으로 인해 달의 모양(위상)이 변화하며, 이러한 현상이 밀물과 썰물 같은 실생활의 자연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기준들은 학생들이 지구와 달의 운동이 단순한 과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관찰되고 경험되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천문학적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사고와 탐구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지구와 달의 운동과 관련된 실생활 현상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적 개념이 학생들의 일상과 연결되는 통합적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주’ 영역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 밖에는 우주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개

념과 우주와 관련된 과학적 이해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지구의 에너지원 태양’과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을 배우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우주 과학 및 우주 탐사’를 학습한다. 이 영역은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우주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첫 번째 성취기준인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인 사례를 관찰한다’는 태양이 지구에 제공하는 에너지원임을 실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열전구를 활용하거나, 태양 빛을 받을 때와 가릴 때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며 태양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활동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게 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사실을 생활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성취기준인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을 구분한다’는 태양계 행성의 이름과 특징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태양계 모형이나 행성 사진을 촬영하여 행성의 크기와 특징을 비교하고, 입체도형을 활용해 각 행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활동은 태양의 구조와 행성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천문학적 관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세 번째 성취기준인 ‘우주과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는 인류의 우주 탐사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우주탐사의 역사와 기술적 발전 과정을 배우며, 우주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지구 밖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우주 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영역의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태양과 태양계, 그리고 우주 탐사라는 주제를 통해 우주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각 성취기준은 실험, 모형 활용, 직업 탐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사고와 실생활 연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우주의 신비와 가능성에 대해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며, 천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 1> 2015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교육부, 2015)

핵심 개념	성취기준
지구와 달	[4과학05-04] 낮과 밤의 모습을 비교한다.
	[6과학04-04] 지구와 달의 모양을 비교한다.
	[12과학05-06] 지구와 달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조사한다.
우주	[9과학05-05]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인 사례를 관찰한다.
	[9과학05-06]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을 구분한다.
	[12과학05-07] 우주 과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2.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 분석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학 교과의 ‘지구’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성취기준 해설을 포함하고 있어, 성취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장에 정도에 따른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지도자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은 ‘지구 모습과 지각 변화’ 및 ‘천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태양, 달, 별 등 다양한 천체를 탐구하고, 밤하늘에서 별과 별자리를 관찰하며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지구 모습과 지각 변화’ 영역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영역의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구 모양이 둥글다는 것을 알고,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한다’는 성취기준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지구의와 우주에서 본 지구 사진 등을 활용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다양한 감각으로 이해하고, 지구의와 지도에 표현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지구와 관련된 과학적 주제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천체’ 영역에서는 밤하늘의 다양한 천체를 관찰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낮과 밤하늘을 관찰하며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달과 별자리를 탐구하며 밤하늘 관찰에 대한 호기심을 기르는 활동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성취기준인 ‘태양, 달, 별을 관찰하여 낮과 밤하늘의 특징을 구분하고, 하늘 관찰에 흥미를 갖는다’는 학생들이 지구의 운동 개념을 학습하지 않고, 낮과 밤하늘의 변화를 단순히 관찰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하늘 관찰을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고등학교 과정의 성취기준인 ‘달의 특징과 별자리의 여러 모양을 알고, 밤하늘 관찰에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심화된 천체 관측 활동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입체 달 모형을 활용하여 달이 둥근 모양이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받는다. 또한 다양한 별과 계절별 별자리, 북극성 등을 학습하고, 별자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여 천체 관측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성취기준의 설계는 이론적 배경 학습보다는 천체 관측 활동을 통해 과학 탐구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지구와 천체의 기본 특징을 탐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이를 확장하여 천체 관측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에게 과학적 탐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론적 개념 학습이 최소화되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표 2> 2022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교육부, 2022)

핵심 개념	성취기준
지구 모습과 지각 변화	[4과학04-02] 지구 모양이 둥글다는 것을 알고,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한다.
천체	[4과학04-04] 태양, 달, 별을 관찰하여 낮과 밤하늘의 특징을 구분하고, 하늘 관찰에 흥미를 갖는다.
	[12과학04-05] 달의 특징과 별자리의 여러 모양을 알고, 밤하늘 관찰에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낀다.

3) 2015 개정과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성취기준 비교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을 비교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 운영 방향성을 해석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 공통교육과정의 축소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일정 수준의 이론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성취기준에 포함하였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론적 소양을 최소화하고, 과학 탐구 활동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 부족이 인지 발달 수준보다 높은 내용의 학습 부담감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송옥, 김효남,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춘 성취기준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실생활과 연결된 과학 학습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개로 축소되었다. 특히, 지구와 달의 운동 개념, 우주 탐사 기술 및 우주 산업 관련 내용은 성취기준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이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분산되어 있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군과 고등학교로만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다뤘던 달의 모양과 환경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동하였으며, 달의 운동과 실생활과의 연계성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게 되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지구와 달의 운동을 실생활과 연결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었고, 우주 탐사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직업적 연계성을 강조하였기에, 이번 개정에서 이러한 성취기준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성취기준의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탐구 활동의 기회는 확대되었다.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에서 시각적 탐구활동이 가장 많이 활동된다는 연구 결과(박지민 외, 2020)에 따라, 낮과 밤하늘의 변화를 관찰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성취기준 해설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었다. 지구의와 달 입체 모형을 활용하는 활동, 별자리 모양을 탐구하는 활동 등 구체적인 탐구 활동 요소가 추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감각을 느끼는 학습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시각 장애학생을 위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천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즐거운 학습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 천문학 관련 성취기준을 분석했다. 성취기준이 학년 별로 명확히 기술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천문학 성취기준 비교를 통해 과학 교육이 단순한 이론적 학습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연결된 탐구 중심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 소양을 배양할 기회가 줄어든 점은 향후 교육과정 개선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강진철 (2005).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과학 오개념에 대한 연구: 천체의 운동방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교육부 (2015).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별책 3].
- 교육부 (2022).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별책 3].
- 박지민, 강병선, 박경옥 (2022). 2015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 교과용 도서의 내용분석: 기초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특수교육교과연구, 15(3), 1-23.
- 송영섭 (2016). 2015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과학’ 성취기준의 중요도와 적합도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공주.
- 송옥, 김효남 (2020).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인지발달 수준 분석.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25, 9-17.
- 유선혜, 정진자 (2016). 시각장애학교 고등학교의 융합형 과학 교과 운영 실태 및 과학 교사의 인식 조사. 시각장애연구, 32(1), 109-141.
- 이용섭 (2023). 초등예비교사들의 천문영역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16(1), 143-152.
- 최영진, 신동희 (2020). 중학교 천문학 용어에 대한 학생의 오개념 유형 탐색. 과학교육연구지, 44(3), 289-299.
- 최행임, 이효녕, and 조현준 (2008). 10학년 과학 교과서 지구과학 용어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29(4), 363-371.
- 한제준, 임성만, 양일호, and 채동현 (2012).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천체관측 경험 실태 분석.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5(2), 166-174.

Analysis of Scienc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

- Focused on Astronomy Content in the 2015 and 2022 Revisions -

An, Sung-Ho

<Abstracts>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astronomy-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15 and 2022 revised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a to evaluate th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curriculum changes. The 2015 curriculum followed a condensed version of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scientific literacy. In contrast, the 2022 curriculum minimized theoretical learning, focusing instead on fostering curiosity and enjoyment in scientific inquiry activities. As a result, the number of astronomy achievement standards is reduced from six to three, excluding topics such as the rotational and orbital motion of the Earth and the Moon and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The 2022 curriculum aims to engage students in visual and experiential activities at the elementary and high school levels, enhancing their interest in astronomy and understanding of natural phenomena. However, the reduction in learning theoretical background may limit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develop fundamental scientific literacy. This study confirms that special education science curricula are transitioning from theoretical learning to inquiry-based learning connected to real-life applications. While the increased variety of inquiry activities is a positive change, it is essential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lack of theoretical foundations. These findings provide foundational insights for advancing astronomy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Keywords: Astronomy,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 Inquiry-Based Learning, Theoretical Literacy Deficit

중·고등학교 천체 망원경 교육 및 활용도 조사

안성호*

요약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진로 선택과목인 ‘행성우주과학’에는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탐구활동이 단원마다 하나 이상 들어있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망원경을 활용한 탐구활동이 실제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37개 중·고등학교의 2023년과 2024년 천체 망원경 보유 여부, 사용 여부, 천체 관측 활동 지도 선생님 재직 여부, 천체 관측 동아리 유무 등 천체 망원경 교육 및 활용도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81%(30/37)의 학교가 천체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천체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47%(14/30)의 학교가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학교(28/30)에서 망원경 사용법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재직 중이었다. 천체 관측 동아리는 1/3(10/30)의 학교만 운영 중이었다.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 내 망원경 활용이 적었던 것이 위와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 이를 개선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천체 망원경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활동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핵심어: 망원경, 행성우주과학, 탐구활동, 활용도 조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I. 서론

망원경은 천체 관측의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인 도구이다. 1608년 한스 리퍼세이(Hans Lippershey)가 망원경을 개발한 이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를 활용하여 달, 목성의 위성, 금성의 위상 등을 관측하며 과학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Cartwright, 2023). 목성의 위성이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현상과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측한 결과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후 망원경은 관측 천문학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는 지상망원경을 넘어 우주망원경을 활용하는 시대로 발전하였다.

천체 관측 활동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태도 변화와 탐구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채동현, 2000; 신명렬, 이용섭, 2012). 이러한 이유로 천체 관측 활동은 한국 교육과정 내 초·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에 포함되어 왔다(심현진 외, 2023). 초등학교에서는 별자리와 별의 일주 운동과 같은 기본적인 천체 운동을 육안으로 관찰하며, 중학교에서는 망원경을 활용한 단순한 관측 활동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에서는 망원경 설치부터 천체 관측, 데이터 분석까지 보다 심화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며 망원경 활용 탐구활동은 점차 축소되거나 교육과정 후반부로 밀려났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만 망원경 관련 활동을 다루며, 고등학교에서는 망원경 활용이 배제되었다(교육부, 2015).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망원경 활용 탐구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천문학 교육의 어려움, 교과서의 후반부 배치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수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망원경 활용 활동이 부활하였으나, 이는 진로 선택 과목인 ‘행성우주과학’에 한정되어 해당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제공된다. 더욱이 천체 관측의 기초인 좌표계 개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제외되면서 학생들이 천체 관측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지 못한 채 탐구활동에 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망원경 활용 탐구활동의 축소 우려가 실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망원경 보유 여부와 활용도를 분석하고, 교육 현장에서 망원경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금까지의 망원경을 활용한 학교 현장 연구는 망원경 활용 영재 교육, 학생들의 교육

효과에 관한 내용 위주였고(김승환 외, 2008; 최동열, 윤마병, 2019),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망원경이 얼마나 보급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례는 부족하다.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망원경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의 망원경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미래 천체 관측 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2023년과 2024년의 학교 현장을 경험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의 망원경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망원경을 활용한 대면 수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2년간의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D대학교에서 학교 현장 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 그리고 D대학교 졸업 후 교직에서 근무 중인 교사들이 경험한 학교 현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총 37개 학교의 망원경 교육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2. 설문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명과 지역, 망원경 보유 여부, 망원경 활용 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 학교가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망원경 사용법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재직 여부
- 천체 관측 동아리 운영 여부
- 망원경을 활용한 활동의 연간 빈도

<표 1>은 망원경 교육 현황 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 양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망원경 교육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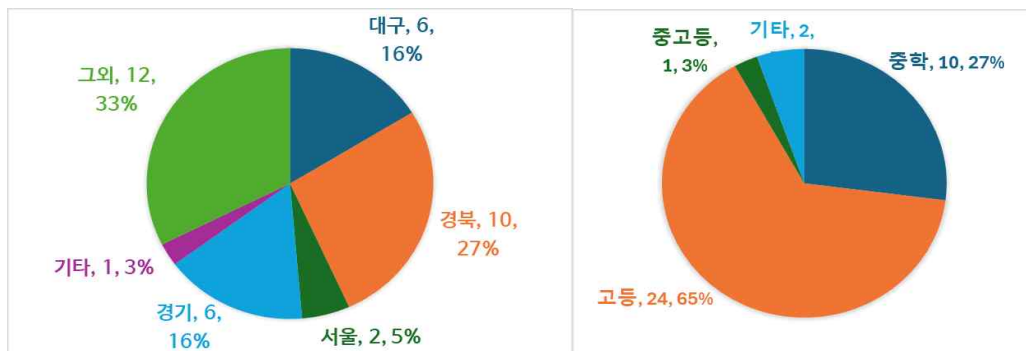
질문 내용	보기 내용
지역 및 학교명을 적으시오.	(주관식)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아니오, 예(1대), 예(2대 이상)
학교에 망원경 사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재직중입니까?	예, 아니오
망원경을 활용하는 천체관측 동아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1년에 망원경을 사용한 활동을 얼마나 많이 진행합니까?)	활용하지 않고 있음, 1년에 한 번, 1학기에 한 번, 1학기에 2~3회, 동아리(학생)가 원한다면 맘을 때 자유롭게 사용 가능

III.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의 학교 분포

조사 대상 37개 학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이 43%(16/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울·경기 지역이 22%(8/37)를 차지하였다(<그림 1> 왼쪽). 그 외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남, 세종, 제주, 충남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역 분포는 대구·경북 지역 교육청의 과학 교과 운영 정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에 따른 망원경 보유 현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 종류로는 고등학교가 65%(24/3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27%(10/37), 중·고등학교 통합 학교는 1곳이었다(<그림 1>, 오른쪽). 또한 조사 시 학교명을 표기하지 않은 2개 학교는 기타로 분류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망원경 교육 현황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간 망원경 활용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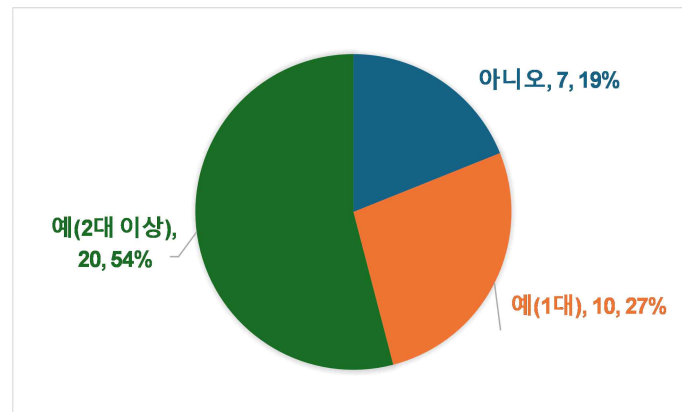


<그림 1> 조사 대상의 학교 지역 분포(왼쪽)와 학교 종류 분포(오른쪽)

2. 망원경 보유 현황

37개 학교 중 30개 학교(81%)가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7개 학교(19%)는 망원경을 보유하지 않았다(<그림 2>). 망원경이 과학 실험실의 기본 기자재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20%의 학교에 망원경이 없다는 결과는 다소 의외였다.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은 어려우나, 2023년 기준 약 5,600개의 중·고등학교에 적용하면 약 1,000개 학교가 망원경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원경을 보유한 학교 중 2대 이상 보유한 학교(20개)가 1대만 보유한 학교(10개)보다 더 많았다. 이는 단순히 실험실 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1대만으로 충분하지만, 학생들과 천체 관측 활동을 진행하려면 2대 이상의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학교가 추가 보유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망원경 보유 현황

3. 망원경 지도 가능 교사 재직 여부

망원경을 보유한 30개 학교 중 망원경 사용법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는 28개(93%)였다. 단, 2개 학교는 관련 지도 교사가 없었으며, 이는 두 학교 모두 공립학교로, 이전에 망원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교사가 타 학교로 발령된 데 기인한다. 이로 인해 망원경만 남아 교육이 중단된 상태였다.

4. 천체 관측 동아리 운영 여부

망원경을 보유한 30개 학교 중 천체 관측 동아리를 운영 중인 학교는 10개(33%)였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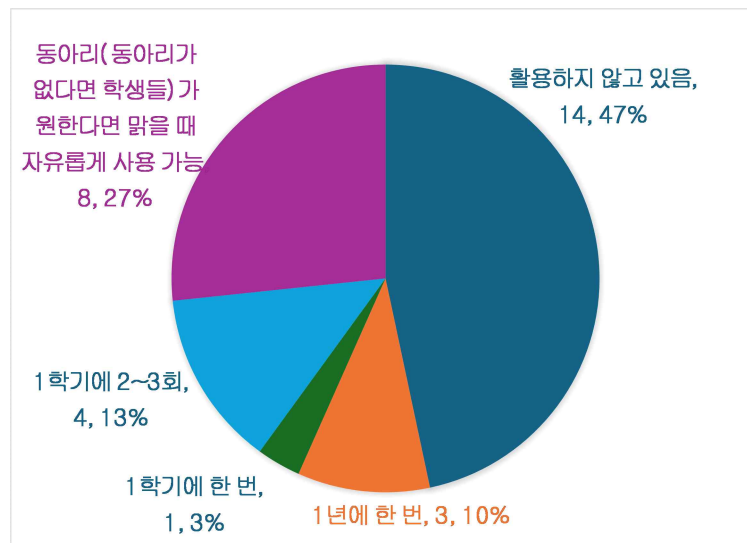
중·고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3개, 학교명을 미표기한 경우가 1개였다. 학교 종류별로 살펴보면, 망원경을 보유한 20개 고등학교 중 30%(6/20)가, 8개 중학교 중 38%(3/8)가 동아리를 운영 중이었다.

특히 중학교의 동아리 운영 비율이 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망원경 활용 천체 관측 활동이 탐구 활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망원경 활동이 명시되지 않았다(교육부, 2015). 또한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과정 외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적 제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 망원경 활용 빈도

망원경을 보유한 30개 학교 중 실제로 망원경을 활용하는 학교는 16개(53%)에 불과했다. 이 중 맑은 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교는 8개로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천체 관측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지도 교사의 추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약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4개 학교는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았다. 이 중 9개 학교는 2대 이상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 망원경은 과학 실험실 내에 방치된 상태였다. 이는 망원경 활용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 망원경 활용 빈도

IV. 결론 및 제언

중·고등학교의 천체 망원경 교육 및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학교가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학교는 망원경을 활용한 관측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는 교사가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구가 교육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망원경 활용 활동이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4년 학교현장실습에 다녀온 D대학교 재학생의 보고에 따르면, 실습 지도교사가 “천체 관측 활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망원경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실습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언급한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부(2022)의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자연 현상과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그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인 ‘행성 우주과학’에 망원경을 활용한 탐구활동이 다수 포함되어, 향후 망원경을 활용한 교육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교육부, 2022).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예비 교사를 다상으로 한 망원경 교육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망원경 사용법을 숙달한 뒤 학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천구 좌표계 개념을 다시 교육과정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마병(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천체 관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측 활동에 앞서 천구 좌표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구 상에서 천체의 움직임과 태양과의 상대적 좌표 차이를 이해해야만 망원경 설치와 관측 대상의 탐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탐구활동이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 교육부 (2022).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9].
- 김승환 외 (2008). 고등학교 천체 관측 동아리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관측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표준화 계수 결정 프로그램. 한국지구과학회지, 29(6), 495-505.
- 김지현, 김지나 (2014). 과학 분야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의 과학관련 태도 변화. 과학교육연구지, 38(3), 471-489.
- 신명렬, 이용섭 (2012). Thinking Maps 사고기법을 활용한 천체 관측 수업이 초등과학영재의 과학탐구능력과 메타인지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4(1), 41-60.
- 심현진 외 (2023). 한국 과학과 교육과정 내 천문학 내용 분석. 천문학논총, 38(3), 125-145.
- 윤마병 (2011). 고등학교 천체관측 관련 개념의 지식상태 분석에 따른 교수-학습 효과. 한국 지구과학회지, 32(7), 902-912.
- 채동현 (2000). 천체관측을 통한 학습이 천문성취도, 천문교수효능에 대한 신념,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 18(2), 79-101.
- 최동열, 윤마병 (2019).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천체 관측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소형 망원경을 활용한 산개성단의 거리 탐구. 한국지구과학회지, 40(3), 300-312.
- 한제준 외 (2012).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천체관측 경험 실태 분석.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5(2), 166-174.
- Cartwright, M. (2023). The Telescope & the Scientific Revolution. World History Encyclopedia.
- Nam-Hwa Kang (2019). A review of the effect of integrated STEM or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education in South Korea. Asia-Pacific Science Education, 5, 6.

Survey on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Astronomical Telescop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An, Sung-Ho

<Abstracts>

The career elective course "Planetary and Space Science," introduc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mandates at least one inquiry-based activity utilizing astronomical telescopes in each unit. This study evaluate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such activities in schools by surveying 37 middle and high schools in 2023 and 2024. The survey assessed telescope ownership and utilization, the availability of qualified teachers for guiding astronomical observations, and the presence of astronomy-related extracurricular clubs. Results indicate that 81% (30/37) of schools possess astronomical telescopes, yet 47% (14/30) of these schools do not actively use them. While most schools (28/30) employed teachers capable of instructing telescope operation, only one-third (10/30) supported astronomy observation club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limited integration of telescope-based activities und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fforts should focus on expanding and supporting telescope-based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s to align with the goal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eywords: Telescope, Planetary and Space Science, Inquiry-based Activity, Utilization Survey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교육과정 인식에 대한 비교: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 및 과학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최규환*

박종근**

요 약

본 연구는 변화되는 학교 현장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학생 설문, 교사의 설문 및 면담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 그리고 과학과 비교과 활동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학생들의 학교 현장 차이에 따른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등을 알기 위해 지구과학 교과를 중점으로 과학중점학교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두 분류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과학 혹은 통합과학 교과 수업하는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시행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고체지구 영역의 난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쉬운 편으로 응답하였으며, 유체지구 영역이 실생활과 가까워 유용하다고 느꼈다. 교사의 경우 지구과학 두 과목 모두 천문 영역이 가장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교사가 생각하는 인식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교사가 생각한 학교 현장 인식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학교 현장의 차이에 따라 인식의 차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2015 교육과정, 지구과학교육과정, 과학교육, 과학중점학교, 학교현장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서 론

오늘날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정되고, 그 내용 또한 수정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기에,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을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과목은 개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과학과 교과인 지구과학의 경우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에서 지구과학,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과목명, 내용과 구성까지 변경되고 많은 교과가 생기다 보니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실질적인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별로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어, 학생의 진로, 적성을 살리고, 자기주도능력 향상 등 많은 측면에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 실정은 다르다. 과학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2024년 현재 과거에 비하여 기간제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기에 초임 교사나 경력이 짧은 교사가 현장에서 수업하는 실정과 더불어 일부 교과의 경우 기간제 교원이 구해지지 않아 기존의 교원을 대체하지 못하여 희망자가 있더라도 개설되지 않거나,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그리고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외부 강사와 보조 교사를 초빙할 여건이 부족하여 학교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이재림, 이현서, 2017).

또한 과학 교과목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인 II과목 수업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대비하여 I과목을 수업하는 사례도 있으며, 지질답사와 같이 교육과정 문서상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학교의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시하기에는 힘들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과학실이 없거나, 과학교구 구매 불가, 안전의 문제 등이 존재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대체 한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단순히 국가교육과정의 소비자가 아니라 교수학습의 생산자이자 수업 실행의 주체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은정, 정대홍, 2014). 즉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수활동으로 구현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현장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실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교실을 구성하며, 수업을 구성하는 주체인 만큼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여 별개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보다 교사와 학생의 시선으로 여러모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의 인식에 대하여 면담으로 구성된 연구들(이주연 외, 2017; 이현주 외, 2020; 최지연, 2021) 또한 꾸준히 발표되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과학 교과에 한정하여서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 교사들의 인식, 선택 과목 운영실태(이일, 곽영순, 2020; 이일, 곽영순, 2021) 등의 학교 현장 기반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구성하는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여 별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인식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에 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다룬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 따른 과학 교과 및 과학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학중점학교와 일반고등학교라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차이를 비교군으로 두고 진행하였다. 이는 과학중점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학 시수 및 지원이 많아 보다 학생이 보다 과학 교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수업의 경우 과학 교과 전 과목이 다 개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우선하여 교원이 배치되며, 예산, 수업시수 등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연구(곽영순 외, 2019; 박현주 외, 2019)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해당 연구를 근거로 하여 일반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학생 설문, 교사의 설문 및 면담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비교를 시행하였으며, 학교 현장과 학생-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관계를 검증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학교 현장 개선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구과학 학생과 교사 간의 교육현장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학생들의 인

식 비교를 위하여 학생 모집단을 과학중점학교, 이외의 학교 경우로 분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중점학교와 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과학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39명이 해당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시행 당시 35명(89.7%)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4명(10.3%)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교과목 선택 현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의견 수집의 경우 학교에서 현재 지구과학 혹은 통합과학 과목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 한정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표 2>). 이를 통하여 2015 지구과학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 Student's personal information for surveys

구분	응답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지구과학 I 선택	지구과학 II 선택
과학중점학교 재학	18 (46.1%)	14 (40%)	4 (100%)	18 (46.1%)	8 (80%)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1 (53.9%)	21 (60%)	0 (0%)	17 (53.9%)	2 (20%)
총합	39 (100%)	35 (100%)	4 (100%)	39 (100%)	10 (100%)

<표 2> Teacher's personal information for surveys & interview

교사	과목	경력	특이사항
교사 A	물리	25년 이상	現 과학중점교 교사
교사 B	지구과학	10~15년	前 과학중점교 과학부 부장 교사, 現 일반교 교사
교사 C	지구과학	5~10년	前 과학중점교 교사, 現 중학교 교사
교사 D	지구과학	5년 미만	現 일반교 교사
교사 E	지구과학	5년 미만	現 일반교 교사
교사 F	지구과학	5년 미만	現 자율형 공립교 교사
교사 G	지구과학	5~10년	前 과학교 교사, 現 일반교 교사
교사 H	지구과학	5~10년	現 일반교 교사
교사 I	지구과학	15~20년	現 일반교 교사

2. 설문지 및 면담 질문지 개발

학생 설문지 문항은 선다형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제작하였다. 현재 지구과학 교과목에서 2015 과학과 개정 교육과정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현장 적용 실태분석’(곽영순 외, 2019)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지구과학 I 과 지구과학Ⅱ 교과목의 세부 영역별로 난이도, 실험 등 다양한 활동과 지구과학 수업 중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의 내용과 범주는 학생 문항은 <표 3>에, 교사 문항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Content of survey questionnaire (Students)

범주	조사 내용	문항 유형	문항수
배경변인	성별, 학년, 학교 유형, 지구과학 수강 여부, 희망 진로	선다형	6개
학교 교육과정	학교별 과학 교과목 교육과정, 과학 행사 및 활동	선다형	7개
지구과학 I	과학과 5대 핵심역량, 교과목의 인식, 지구과학 세부 영역별 교육과정(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선다형	49개
지구과학Ⅱ	과학과 5대 핵심역량, 교과목의 인식, 지구과학 세부 영역별 교육과정(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선다형	50개

<표 4> Content of survey questionnaire (Teachers)

범주	조사 내용	문항 유형	문항수
배경변인	성별, 전공(자격증), 현 근무 교육청, 학교 유형, 교직 경력, 현재 강의하는 과학 교과목	선다형	6개
지구과학 I	장단점, 난이도 및 분량, 수업시수, 과학과 핵심역량, 학업과 진로, 흥미도, 실험 및 실습활동	선다형+자유서술	20개
지구과학Ⅱ	장단점, 난이도 및 분량, 수업시수, 과학과 핵심역량, 학업과 진로, 연계성, 흥미도, 실험 및 실습활동	선다형+자유서술	21개
학교현장	교육과정 개정,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 활동	선다형+자유서술	3개

3. 자료수집 및 분석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교육부에서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설문조사, 교사는 설문조사와 면담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응답을 수집하였다.

학생이 응답한 설문조사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Google forms)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학교에 방문하거나 요청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는 리커트(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점수의 평균값으로 문항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과학과 교사를 대상으로는 서술형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서 교사의 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사의 경우에는 먼저 설문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다음, ZOOM 혹은 대면 면담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과학과 설문의 항목별 응답 결과를 전체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를 분야별 응답에 대하여 나누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학생 설문 결과

1) 과학 과목 실태

설문 응답에서 학생의 경우 71.8%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 수강인원에 따라 내신을 걱정할 경험 있음 확인하였다. 과학중점학교로 한정시킨 경우, 83.3%로 더욱 높게 응답하였다. 희망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수가 적어서 해당 과목이 폐강되기도 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만을 수강하는 학생은 43.5%에 그쳤으며, 반대로 희망하지 않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17.9%로 응답하였다. 지구과학 I 과목에서는 대부분 학생이 지구과학 I 교과에 맞는 내용을 학습하였다고 응답했지만, 지구과학 II 과목은 지구과학 II 과목의 학습이 아닌, 수능과 입시 대비를 위해 지구과학 I의 문제집을 풀거나 복습한 경험이 20.6%를 기록하였다. 실험, 관찰 및 관측 수업이 가능한 장비나 장소가 있다는 응답은 과학중점학교 재학생의 경우 61.1%,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19%로 응답 차이가 있었다.

2) 과목별 결과 분석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을 고체지구 영역, 유체지구 영역, 천문 영역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구과학 I 과목에 대한 인식 및 영역별 이해에 어려움 정도 다음과 같다. (<표 5> & <표 6>)

<표 5> Response results on the recognition of Earth Science I by curriculum area (student)

구 분		<i>M</i>	<i>SD</i>	<i>f</i>	<i>p</i>
난이도의 어려움수준	고체지구 영역	2.19 ^b	0.82	9.071***	0.000
	유체지구 영역	2.59 ^a	0.85		
	천문 영역	2.65 ^a	0.89		
흥미도의 정도	고체지구 영역	3.04 ^a	1.05	0.493	0.612
	유체지구 영역	3.18 ^a	1.03		
	천문 영역	3.19 ^a	1.14		
진로 진학에 도움	고체지구 영역	2.41 ^a	1.02	1.891	0.156
	유체지구 영역	2.79 ^a	1.00		
	천문 영역	2.77 ^a	0.90		
대학 학업에 유용	고체지구 영역	2.51 ^a	1.14	0.879	0.418
	유체지구 영역	2.79 ^a	0.95		
	천문 영역	2.77 ^a	1.01		
실생활의 유용성	고체지구 영역	2.92 ^a	1.11	3.757**	0.026
	유체지구 영역	3.51 ^b	0.88		
	천문 영역	3.02 ^a	1.04		

* $p < .1$, ** $p < .05$, *** $p < .001$, $a < b$

각 세부 영역별로 비교한 경우, 영역별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p < .001$) 및 실생활의 유용성($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난이도의 어려움 수준’ 항목의 ‘고체지구’ 영역($M=2.19$ $SD=0.82$)이 ‘유체지구’ 영역($M=2.59$ $SD=0.85$), ‘천문’ 영역($M=2.65$ $SD=0.89$)에 비해 쉬운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응답 결과 중 상대적으로 유체, 천문의 내용에 비해 ‘고체지구’ 영역은 물리학의 요소가 덜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느껴졌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물리학적 내용이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는 ‘실생활의 유용성’ 항목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유체지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온도, 강수와 날씨 및 여름철 태풍 등에 대한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에 타 영역에 비하여 더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6> Response results on the recognition of Earth Science I by school type (student)

구 분		종 류	<i>M</i>	<i>SD</i>	<i>t</i>	<i>p</i>
난이도의 어려움 수준	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2.30	0.96	1.292	0.200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09	0.66		
	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2.67	0.80	0.903	0.368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52	0.90		
	천문	과학중점학교 재학	2.78	0.93	1.251	0.215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52	0.86		
흥미도의 정도	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3.25	1.00	1.666	0.100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86	1.07		
	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3.28	0.85	0.779	0.438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3.10	1.16		
	천문	과학중점학교 재학	3.31	1.12	0.810	0.420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3.10	1.16		
진로 진학에 도움	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2.72	1.07	1.824*	0.076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14	0.91		
	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3.00	0.91	1.187	0.243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61	1.07		
	천문	과학중점학교 재학	3.06	0.87	1.897*	0.066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52	0.87		
대학 학업에 유용	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2.72	1.13	1.060	0.296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33	1.15		
	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2.89	0.83	0.567	0.574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71	1.06		
	천문	과학중점학교 재학	3.17	0.86	2.410	0.021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43	1.03		
실생활의 유용성	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3.11	1.02	0.979	0.334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76	1.18		
	유체지구	과학중점학교 재학	3.44	0.92	0.442	0.661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3.57	0.87		
	천문	과학중점학교 재학	3.22	0.94	0.544	0.280
	영역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86	1.11		

* $p < .1$, ** $p < .05$

‘난이도의 어려움 수준’, ‘흥미도의 정도’ ‘실생활의 유용성’ 부문의 세부 영역에서는 학교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결과 평균에 따라 공통으로 과학중점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긍

정적 응답 경향성이 나타나지만, 학교별 유의미한 차이는 크게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세부 영역의 경우는 학교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과학중점학교의 재학생이 ‘고체지구’($M=2.72$ $SD=1.07$) 및 ‘천문’($M=3.06$ $SD=0.87$) 영역에서 과학중점학교 이외의 재학생($M=2.14$, $SD=0.91$), ($M=2.52$ $SD=0.87$) 보다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대학 학업에 유용하다.’ 부문의 경우 ‘천문’ 영역에서 과학중점학교 재학생($M=3.17$ $SD=0.86$)이 과학중점학교 이외의 재학생($M=2.43$ $SD=1.03$)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과학중점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지구과학에 접할 기회가 많기에,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하는 학생이 지구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 가지 영역 중 ‘천문’ 영역에서 이런 차이가 보이는 것은 진로 진학과 대학 학업에서 천문 영역이 학생의 경험 차이와 대학교 교양수업, 학생의 희망 전공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중점학교 학생의 경우 수업 중이나 비교과 활동으로 인해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를 관측하거나 천문대를 방문하는 등 상대적으로 이외 학생보다 ‘천문’ 영역에 더욱 경험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과정 덕분에 ‘천문’ 영역의 경험 차이와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Survey Response Earth Science II recognition

구 분		<i>M</i>	<i>SD</i>
난이도의 어려움 수준	고체지구 영역	3.40	0.55
	유체지구 영역	4.20	0.84
	천문 영역	4.20	0.84
흥미도의 정도	고체지구 영역	3.10	0.55
	유체지구 영역	3.40	0.42
	천문 영역	3.20	0.76
진로 진학에 도움	고체지구 영역	2.60	0.89
	유체지구 영역	3.00	1.00
	천문 영역	3.20	0.84
대학 학업에 유용	고체지구 영역	2.60	0.89
	유체지구 영역	3.00	1.00
	천문 영역	3.20	0.84
실생활의 유용성	고체지구 영역	3.20	0.84
	유체지구 영역	3.20	0.84
	천문 영역	3.60	0.55

지구과학 II 과목의 인식 결과와 학생의 이해 어려움 정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의 크기가 작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문 결과의 경우 다음과 같다. 난이도의 어려움 수준 영역에서는 ‘고체지구’ 영역이 3.40 점으로 ‘유체지구’ 영역, ‘천문’ 영역들에 비해 점수가 0.80점 정도 낮은 편으로 난이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으로 응답 되었다. ‘흥미도’ 영역의 경우는 ‘고체지구’ 영역이 타 영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차이는 0.10~0.30점으로 난이도 영역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차이는 협소하였다. ‘진로 진학’ 영역과 ‘대학 학업’ 영역에 관한 응답으로는 ‘고체지구’ 영역은 2.60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인식하기에 진로, 대학 학업적 측면에서 ‘고체지구’ 영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실생활의 유용’ 정도는 ‘천문’ 영역이 타 영역과 비교해 0.4점이 높았다. 전체적인 평균값은 지구과학 I 과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런 응답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20.6%가 지구과학 II 과목의 학습이 아닌, 수능과 입시 대비를 위해 지구과학 I을 문제집을 풀거나 복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며, 두 번째로는 실제 수능에서 잘 선택하지 않는 영역이며, 세 번째로는 지구과학 교과와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지구과학 II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더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3) 과학 비교과 활동 실태

<표 8> Science Extra-curricular Education Survey

구 분	종 류	M	SD	t	p
비교과 활동 만족도	과학중점학교	3.78	0.81	2.85*	.007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96	0.98		
흥미도 및 이해력 증진 정도	과학중점학교	3.72	0.96	2.53*	.016
	과학중점학교 이외 재학	2.90	1.04		

* $p < .05$,

과학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학생이 느끼는 만족도와 흥미도 및 이해력 증진을 살펴보고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Table 8), 만족도의 경우 과학중점학교의 재학생이($M=3.78$ $SD=0.81$) 과학중점학교 이외의 재학생($M=2.96$, $SD=0.98$) 보다 비교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흥미도 및 이해력 증진의 경우 과학

중점학교의 재학생이($M=3.72$ $SD=0.96$) 과학중점학교 이외의 재학생($M=2.90$, $SD=1.04$) 보다 비교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과학중점학교의 다양한 실험 및 과학을 접할 기회 및 비교과 활동의 난이도 및 빈도수의 차이로 보인다.

3. 교사 설문 및 인터뷰 결과

1) 지구과학 교육과정

교사 대상으로 모집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지구과학 I의 ‘고체지구’ 영역 경우 난이도는 2.5점으로 가장 난이도가 쉬운 것으로 응답되었다. 흥미도는 3.0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양한 실습 및 실험의 진행 응답은 3.5점으로 활동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편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지구과학 II ‘천문’ 영역이 실습 및 실험의 진행에서 4.17점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사 H는 “천문 영역의 지구과학 교과서에서 실린 실험 활동 중 하나인 ‘풍선을 활용한 우주팽창에 관한 실험’은 고등학생들에게 흥미를 끌어올리기 힘들며, 과학 중점 학교도 아닌 곳에서 지구과학 수업에 실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였다.

<표 9> Response results on the recognition of Earth Science (Teacher)

구 분	영역	<i>M</i>	<i>SD</i>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지구과학 I	고체지구 영역	2.50
		유체지구 영역	3.20
		천문 영역	3.00
	지구과학 II	고체지구 영역	4.00
		유체지구 영역	3.50
		천문 영역	4.60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지구과학 I	고체지구 영역	3.00
		유체지구 영역	3.00
		천문 영역	3.50
	지구과학 II	고체지구 영역	3.20
		유체지구 영역	3.83
		천문 영역	3.60
다양한 실습 및 실험의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가?	지구과학 I	고체지구 영역	3.50
		유체지구 영역	2.00
		천문 영역	3.27
	지구과학 II	고체지구 영역	3.40
		유체지구 영역	3.40
		천문 영역	4.17

2009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의 경우 교사 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구과학 I의 공통점으로는 난이도, 분량 및 접근성이 개선 되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천체 난이도가 쉬워져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리해졌으나 평가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암석 단원에 마그마의 생성 단원이 추가되어 판 구조론 설명하는데 편리해진 부분이 있다.”(교사 D), “내용이 쉬워져서 학생들이 더 쉽게 지구과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교사 G), “양이 줄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교사 H)

지구과학 II의 경우에는 “교과 내용이 영역별로 더 구조적으로 구성되었다.”(교사 B), “어려운 내용이 지구과학 II로 올라가서 전문적인 학습을 하는 느낌을 받는다.”(교사 D)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사 G: “예를 들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룬 좌표계가 지구과학 II로 올라가게 되면서 천문학이 전반적으로 쉬워졌으며, 통합과학과의 연계성이 높아져 1학년 때 다뤘던 내용(엘니뇨와 라니냐, 별의 진화, 우주팽창 등)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 B: “지구과학 II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행성의 궤도 운동이 천문 영역에 포함되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달리 기존 내용의 삭제로 인하여 학습 분량의 감소한 것은 동의하지만, 지구과학 I의 난이도는 조금 상승하였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천문 영역에서는 난이도가 쉬워졌지만 타 두 영역이 기존과 비교해 난이도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교사 E: “고체 지구와 유체 지구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II에서 내려와서 기존과 비교해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천체에서는 지구과학 II에서 일부 내용이 내려왔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천체관측이 지구과학 II로 올라가면서 난이도는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상승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였을 때 일부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교사 E의 경우 만족도를 표하였다.

교사 E: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환경, 발전, 자원, 생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학습 내용을 집어넣어 단원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삭제되고 각 단원의 구성이 이론적 내용으로 많이 재편되어 단순 암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이해와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점에서 이전과 비교해 더 효율적인 수업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선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지만, 2015 개정에선 화성암의 분류같이 암석과 관련된 교육과정 영역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 한반도의 여러 지형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축소되어서 아쉽다.”(교사G) 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내용 위계 관계의 불일치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교사 G: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단원에서 지구 자전축 경사 변화를 설명할 때 2009 개정에선 남중고도를 90° -위도+적위 개념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2015 개정에선 적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교사 H: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끔 지구과학Ⅱ의 내용을 끌어와서 설명하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더 흥미로워하고 이제야 이해된다는 표정을 짓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다 지구과학Ⅰ에 있던 내용인데 지금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 원리는 지구과학Ⅱ로 올라가고, 결과만 지구과학Ⅰ에 남아 학생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식이라 가르치는 입장에서 곤란하다. (...) <중략>

교사 I: 천체를 학습하며 필요한 기초 개념은 오히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문의 위계 관계가 맞았던 거 같다고 생각한다. 지구과학Ⅱ의 경우 진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수능 과목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측면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시 과목으로써의 의미는 퇴색된 상황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의지 및 성취동기 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외의 문제점으로는 “작아진 학습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고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교사E) 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 학교 현장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을 고려한 개정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많은 편으로 제시되었다.

교사 A: 학생들의 특정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지 대학 입학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아쉬운 점이 있다.

교사 C: 옳은 결정이었다면 현장이 따라 적응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개념 전달 위주 및 주제로 묶인 것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교과 내용이나 난이도 면에서는 좀 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 E: 과학사와 생활과 과학 수업을 하는데, 수업 내용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과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시수가 줄어들어서 일부 과학과 과목이 개설되지 못해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 G: 개정 교육과정에선 과정형 평가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선 매우 부담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든 과목에서 한 학기당 과정형 수행평가를 2가지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데, 실시 시기가 보통 중간고사 이후 혹은 기말고사 이후로 몰려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과정형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학생들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교내에서 운영하는 과학과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 활동의 저해 요인으로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10>. 참조) 공통적으로는 학교 여건과 상황으로 충분하지 못한 예산 등이다. 이외에도 제도적 여건의 미흡과 학교관리자의 압박에 의한 활동/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온전히 진행하기에는 교사에게 부담이 되고, 학생도 즐거워하지 않는 활동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표 10> Factors that hinder non-curriculum activities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저해의 요인	
교사 A	모든 활동에 선수학습의 지나친 제한을 둔다든지, 충분하지 못한 예산, 학생들의 대입제도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 결여 등이다.
교사 B	과학과의 활동 특성상 준비 과정(준비물 구입, 연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다른 업무(학생 지도, 교재 연구 등)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교사 C	비교과 활동 중 하나인 교내 과학탐구대회는 상을 주기 위한 도구로써, 상위권 학생들이 상을 받을 수 있을만한 종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활동을 계획하여 순수하게 과학을 즐길 수 없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창체 역시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고 단순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한다.
교사 D	양질의 실험 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 풀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든 제도적 여건 미흡하다.
교사 E	교육과정 내에서는 저해하는 요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내의 여러 탐구 활동을 활용하여 비교과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과정보다는 근무하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사 F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관심 없는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진도 나가기도 빠빠한 학습량이라고 생각하며, 교사의 안일함도 책임이 있다.
교사 G	일반계 고등학교에선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인데, 교육청의 여러 사업을 따내야지만 다양한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처지이다. 또한 과학실(물,화,생,지) 또한 이과생들이 방과 후나 자율 동아리 활동에서 모두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더군다나 한 학교의 과학 교사 수는 10여 명인데,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수는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수가 부족하다. 게다가 이런 활동들은 젊은 과학 교사에게 물리는 경향이 있고, 방과후에 지도하는 것도 젊은 과학 교사의 몫이다.
교사 H	실험 교구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 문제가 일단 크다. 예전에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속 과학적 개념을 분석하고자 할 때 학교 관리자(교감 교장)가 주는 무언의 압박(수업시간에 영화 보여주지 말라든지..등)이 존재하였다.
교사 I	과학 활동의 특성상 운영 시간의 부족 및 학생 중심 활동의 활성화로 인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프로그램들이 확대 다양화된 점 역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과학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의 장점으로서는 예산의 확보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이재림, 이현서, 2017)에서 과학중점학교에서 제시된 문제점이 교사의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아닌,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를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A: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있어 코로나와 같은 일이 없다면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어느 정도 대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사 B: 수학, 과학 교과에 많이 할당되는 수업 시수와 풍부한 체험 활동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학, 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해 과학중점학교가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사 C: 과학교사 수가 많아서 심화 과목 및 전문교과 등이 개설되어도 1인당 최대 2과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용이하다. 또한 과학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 1등급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없어 성적 산출이 용이하다. 다양한 비교과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금전적, 시간적으로 지원이 많다는 점 또한 큰 장점 중 하나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학생 설문, 교사의 설문 및 면담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지구과학 교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용을 비교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보다 자세히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과정에서 과학중점학교와 이외의 학교에서의 결과 일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구과학 교육과정 및 과학 비교과 활동을 비교하여 현실태를 보다 자세히 탐색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의 설문 응답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이도의 경우에는 지구과학 I 과목에서 고체지구 영역의 난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쉽다고 학생들이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 두 가지 영역(유체, 천체)의 공통점인 물리학적 요소가 고체지구 영역에서는 적다는 점이 학생이 체감하게 하는 난이도를 낮게 만들었다고 추론된다. 그리고 유체지구 영역에서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도에 대한 응답 값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평상

시 접하는 다양한 기상 현상과 날씨 등과 같은 유체지구영역이 타 영역들과 대비하여 실생활에 보다 밀접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두 번째로 교사들의 경우 지구과학 교육과정 측면에서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 내용에 대하여 지구과학 I과 통합과학 간의 연계성이 향상되어 복습의 효과가 있고 수업을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구과학 I의 내용이 원리가 없이 결과만 제시되어 암기식 수업이 주가 된다는 것과 지구과학 II의 천체 부분의 난이도가 상승하여 학생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 지구과학 I과 지구과학 II의 위계 관계 문제를 단점으로 주로 삼았다. 이러한 점을 통합하여 보았을 때 2015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 개정이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에 교사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교사가 생각하는 인식과 대비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과학중점학교의 장점과 특징이 학생들의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과학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과학중점학교 재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과학중점학교의 장점인 과학과 실험, 실습, 창의적 체험 활동, 비교과 활동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많다는 점은 학생의 긍정적인 응답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대비하여 과학중점학교가 아닌 학교 재학생들의 설문 응답 결과는 교사가 생각하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이 원인이 되어 과학중점학교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응답 결과가 나타난다. 교사가 인식하는 문제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예산의 문제, 학교별 상황과 제도적 여건, 관련 교원 수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에게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경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교사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과 과학중점학교와 대비하여 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현장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편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생각한 학교 현장 인식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학교 현장의 차이에 따라 인식의 차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경우 모집단 인원의 부족에 따라 지구과학 II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며, 모집단의 학생과 교사가 모든 이를 의견을 반영, 대표하지 않는 만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의 면담은 질적 연구로써 수집된 자료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나 선입견이 포함되어 양적 연구와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훈식, 이수영, 김희경, 이성희, 박영순 and 신영준. (2019). 과학선도학교 사업이 학생의 과학긍정경험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교육과정 요소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2), 279-293..
- 고은정, 정대홍 (2014). 과학교과에서의 핵심역량에 대한 세계의 동향에 준거하여 우리나라 현장 교사들의 인식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4(6), 535-547.
- 고은정, 정대홍 (2019). 핵심역량 관련 국내 과학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현장과학교육, 13(4), 359-37
- 박영순 and 이일. (2021). 2015개정 과학과 선택과목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1(3), 183-192.
- 박영순, 신영준, 강훈식, 이수영 and 이성희 (2019). 학생들의 과학긍정경험에 영향을 주는 과학중점학교의 특성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4), 525 - 534.
- 박영순, 이현주, 유선아, 신영준, 이일, 하지훈, 백종민 and 손현준. (2019)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현장 적용 실태분석(보고서 번호: BD20070005).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교육부 (2015a).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 (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중점학교 운영 및 STEAM 가이드, 2017
- 김연화 (2019). 지구과학 고등학교 선택과목 재구조화:고체지구영역을 중심으로. 현장과학교육, 13(3), 283 - 302.
- 김지희, “과학중점학교에서 비교과 체험활동 인식조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제주
- 박현주, 심재호, 최혁준, 임희준, 박지선, 안희정 and 양승원. (2019).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번호: BD19030006).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신영준, 김희경, 남경식, 이수영 and 이성희. (2017) 학생의 과학 긍정경험지수 연구 최종보고서(보고서 번호: BD17020012).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신태선.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핵심역량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8. 서울
- 심재호, 박현주 and 이준기. (2015).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학 선택 과목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조사. 과학교육연구지, 39(2), 133-150.

- 오혜란 and 김희백. (2011). 과학중점학교의 과학 관련 비교과 체험활동 운영 실태. *현장과학 교육*, 5(2), 73-83
- 이재림 and 이현서. (2017).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16(3), 37-50.
- 이주연, 이근호, 이병천 and 가은아. (2017). 역량기반 학교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 특징 분석: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0(1), 1-30.
- 이진경.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비교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 대구
- 이현주, 백종민, 곽영순.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교사들의 과정중심평가 실행 및 어려움에 대한 인식 탐색. *과학교육연구지*, 44(2), 133-144.
- 최임정 and 이현주. (2021). 과학중점학교 담당교사 관점에서 본 운영 효과 및 교육적 의의에 대한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1(2), 171-181.
- 최지연.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핵심역량에 대한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인식 및 실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하민수, 박현주, 김용진, 강남화, 오필석, 김미점, 민재식, 이윤희, 한효정, 김무경, 고성우 and 손미현. (2018).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과학과 핵심역량 조사 문항의 개발 및 적용.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8(4), 495-504.

Comparison of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 of the Curriculum in School Settings: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Earth Science Curriculum and Science-Focused High Schools

Choi Gyuhan
Park Jonggeun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he curriculum based on a surveys and interviews about science-focused high schools and the 2015 revised Earth Science Curriculum. To achieve this, three keywords were compared: science-focused high schools, the 2015 Revised Earth Science Curriculum, and science-relat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students' perceptions and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ir school setting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tudents attending science-focused schools and those from other types of schools. Additionally, a survey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cience teachers who teach Earth Science or Integrated Science courses. Students responded that the difficulty of the Solid Earth area was easier than other areas, and they felt that the Fluid Earth area was useful because it was close to real life. Teachers mostly said that the Astronomy area was the most difficult in both Earth Science subjects.

Keywords: 2015 Curriculum, Earth Science Curriculum, Science Education, Science-focused School, School Setting

중학교 과학과 수업에 적용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 사례 연구*

박선영**

차정호***

요 약

이 연구는 학생 동료 교수와 코티칭을 결합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경상북도의 군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의 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에 적용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중학교 3학년 4학급 73명이었다. 연구 과정에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과정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평가지를 분석하여, 새롭게 개발된 교수 전략이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된 교수 전략은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도와 협력적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주도적인 수업 설계와 조별 활동, 토론을 통해 동료 교수의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동료 교수법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새로운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과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협동심도 향상되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수업 흥미와 참여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과정 중심 평가 절차와 평가 자료의 개발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수-평가 연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상호 동료 교수, 코티칭, 중학교, 과학 수업, 과정 중심 평가

* 이 연구는 박선영의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석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 학생 성취도 평가 연구인 TIMSS 2011 분석 결과를 보면 국제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성취도가 낮아지고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가 교과를 학습하는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숙 외, 2013). TIMSS 2019 분석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초등학교에서 형성되지 않았던 과학 교과의 정의적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환기를 거치면서 발생했다. 이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특정 교과인 과학에 대한 부정적 정의적 태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학습 자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서민희, 2021). 과학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와도 관련이 있다. 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과학 개념과 용어,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되어야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중학생의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는 과학에 대한 태도와 학습 동기에 영향을 받으며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 학습 동기를 높이는 정의적 특성과 자기 조절 학습 전략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정수, 2014).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방법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과 핵심 역량은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으로 구성된다(교육부, 2016).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신영준 외, 2016).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수·학습의 방향 부분에서 학생이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2).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과학 수업을 통해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 중심 수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민, 2009)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생 중심 수업 방법으로 플립 러닝(Flipp-learning,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수업, 동료

교수법(Peer instruction), 또래 교수학습 등이 있고 이러한 수업 방법을 과학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와 학업성취도, 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교과 학습 성취도의 향상과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기준에 제시되었던 동료 교수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도입하였다. Edagar Dale(1946)이 제안한 학습 피라미드(learning pyramid)에서는 가르치기(teaching others)의 방법이 가장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데 이는 학습자가 최대한 많은 맥락적 단서를 들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을 수업에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박상준, 2016). “가르치기(teaching others)”와 관련 있는 교수학습에 대해 살펴봤을 때 동료 교수법(Peer instruction), 또래 교수학습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학습법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일대일의 개념 학습으로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교사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에 대한 어려움과 과학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동료 교수를 통해 오개념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임 교사에 대한 교육 방식인 코티칭에 대해 주목하였다. 코티칭은 본래 예비 교사 또는 초임 교사에 대한 교육 방식으로 제안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공동으로 계획·준비하고, 진행하며, 반성·평가를 한다(Roth, 2002).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의 동료 교수법(Peer instruction)과 코티칭(coteaching) 수업 모형을 접목하여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을 시키는 과정과 수업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과정 중심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제시하여 교수학습 과정 및 평가를 연계하는 적용법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수 전략이 중학생들이 과학 학습과 관련한 학습 이해도와 같은 인지적 영역과 학습동기 및 과학적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서의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여 그에 대한 효과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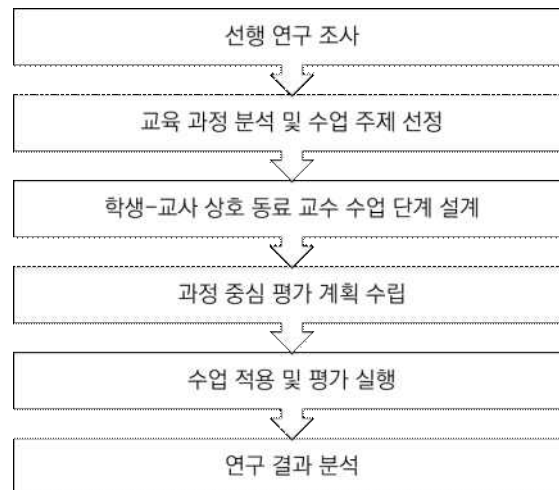
이 연구는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의 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실제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여 과정 중심 평가에 반영하였고 이렇게 적용한 교수 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과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의 군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 학생 73명이다. B 중학교는 남녀공학이며 3학년은 4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1개 학급은 18명 또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급은 동일한 대단원에 대해 수업을 하며 학급 내에서 3~4명씩 조를 이루어 조별 활동으로 각각의 소주제에 대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 전에 수업 전략 단계를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하며 이에 맞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과정 중심 평가를 함께 진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을 활용한 수업 과정 및 과정 중심 평가에 적용 방안을 연구한 선행 연구(강소연, 2020)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중학교 과학 3 교과목의 ‘IV. 자극과 반응’ 단원을 총 6개의 소주제로 분류한 후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전략을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수업 단계의 설계 후 수업 단계에 맞는 과정 중심 평가 계획 수립하고 채점 기준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평가는 수업 준비 단계부터 수업 발표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걸쳐서 진행하였다.



<그림 1> 연구 절차

이와 같이 실행된 교수 전략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업 준비 학생용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지’, ‘수업 발표 학생용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 학생들이 작성한 여러 가지 평가지의 응답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각 평가지에서 수업 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 문항은 <표 1>과 같다.

<표 1> 과학 수업 활동 평가지 개요

내용	영역
수업 준비 및 발표 활동은 과학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인지적
수업 준비 및 발표 활동과 같은 수업 방식에 대해 어떠한 점을 느꼈는가?	정의적

III. 연구 결과

1. 동료 교수법과 코티칭을 접목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

1) 선행연구 조사

동료 교수법과 코티칭을 접목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강소연, 2020)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 간 상호 동료 교수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 간 동료 교수에 교사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 전략을 재구성하였다. 수업 전체의 핵심 과정인 수업 준비, 수업 발표, 질의응답은 학생-학생 중심으로 진행하고 교사가 적절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하는 코티칭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수업 전략을 설계하였다.

2) 교육 과정 분석 및 수업 주제 선정

예 수업 단계를 설계하기 전에 어떠한 수업 주제가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과 과정 중심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탐색하였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내용을 분석하여 중학교 3학년 과학 IV. 자극과 반응’ 단원을 선정하였다. 이 단원을 핵심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6개의 학습 주제로 분류하여 <표 2>와 같이 각 주제별 핵심 개념 또는 소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2> 6가지 학습 주제와 주제별 핵심 개념 및 소주제

순	학습 대주제	주제별 핵심 개념 및 소주제
1	눈의 구조와 기능	눈의 구조와 기능
		눈의 조절 작용
		시각 관련 실험하기
2	귀, 코, 혀의 구조와 기능	귀의 구조와 기능
		소리를 듣기까지의 과정, 귀에서의 평형 감각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
3	피부와 구조와 기능 뉴런의 구조와 기능	피부의 구조와 감각점의 분포
		뉴런의 구조와 자극의 수용 및 전달
		기능에 따른 뉴런의 종류
4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말초신경계와 상황에 따른 자율 신경의 작용
		중추신경계 모형 만들기
5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찾기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하기
6	호르몬의 조절 작용	항상성과 호르몬, 호르몬의 특징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의 종류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 비교

3)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수업 단계 설계

학습 대주제와 주제별 핵심 개념 선정 후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수업 단계와 각 단계 별 교수 학습 과정을 설계하였다. 수업은 <표 3>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크게 수업 준비 단계와 수업 발표의 2단계로 진행된다. 전체적인 수업이 코티칭의 형태로 진행하므로 주요 학생 활동과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과 정리하였다.

<표 3> 차시별 교수 학습 활동 및 교사의 역할

차시	수업 단계	주요 학생 활동	교사 역할
1	수업 준비 단계	조별 대주제 선택 및 역할 분담	조 편성 및 주제 안내, 수업 단계 안내
2~3		소주제별 핵심 개념 요약정리하기	요약정리 자료 피드백
4~5		역할 분담에 따른 발표 자료 준비	발표 자료 확인 및 피드백
6~11	수업 발표 단계	조별 수업 발표 및 질의응답	수업 내용 정리 및 추가 질의응답

1차시에는 조 편성 및 주제, 수업 단계를 안내하였다. 임의로 1조당 3~4명으로 이루어진 6개의 조를 편성한 후 <표 3>의 학습 주제를 제시한 후 각 조에서 맡을 학습 주제를 선택하게 하였다. 같은 조에서는 하나의 대주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학습하면서 학생 1명당 1개의 소주제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조 내에서 수업 준비 단계에서 하여야 할 역할을 3가지로 나누었다. 핵심 개념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 주는 자료 수집 담당, 수업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편집하는 수업자료 제작 담당, 수업 발표 중에 학생들이 질의할 수 있는 예상 질의응답 내용 정리 담당으로 나누어 1개의 역할을 반드시 맡게 하였다. 다음 <표 4>는 조별 주제 선택 및 역할 분담 시 조별로 나누어준 자료 중 일부이다.

<표 4> 조별 주제 선택 및 역할 분담 자료 예시 (1차시)

대주제	교과서 페이지	핵심 주제 및 탐구활동	소주제 담당 역할 분담
1조 눈의 구조와 기능	138쪽	1. 눈의 구조와 기능, 물체를 보는 과정	
	139쪽	2. 눈의 조절 작용 (1) 밝기에 따른 동공 크기 변화 (2)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변화	
	140~141쪽	3. (탐구활동) 시각 관련 실험하기 맹점 확인하기, 빛의 양 조절 확인하기	
2조 귀, 코, 혀의 구조와 기능	142쪽	1. 귀의 구조와 기능	
	143쪽	2. (해보기) 소리를 듣기까지의 과정 설명하기, 귀에서의 평형감각	
	144쪽~145쪽	3.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 4. (해보기) 맛을 느끼는데 사용되는 감각	

이 자료에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수업에 대한 교과서 페이지와 학습해야 할 핵심 주제 및 탐구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맡아서 수업 준비를 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2~3차시에서는 교과서를 읽고 학습해야 할 핵심 개념을 파악한 뒤 자신이 맡은 소주제에 대해 요약하여 정리한다. 교사는 요약정리된 내용을 읽어보고 오개념이 없는지, 빠진 내용이 없는지 파악하여 피드백하였다. 요약정리 작성이 완료되면 전체 내용에 대해 조원 간에 상호 설명하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림 2>는 학생들이 작성한 주제별 핵심 개념 요약정리의 일부이다.



<그림 3> 학생들이 제작한 수업 발표 자료 (눈의 구조와 기능)

6~10차시에는 조별 수업 발표를 실행하였다. 발표는 조별로 진행하되 자신이 맡은 소주제를 발표하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수업 발표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1개의 조당 최대 30분의 발표 시간을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표 학생은 준비한 발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청중 학생들은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을 작성한다.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데 청중 학생들은 조별로 1개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은 발표 학생 조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 학생

의 응답이 오개념이거나 대답하지 못할 경우 교사가 다시 한번 응답하였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교사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빠진 내용이나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짚어주었다.

2.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과 과정 중심 평가의 적용 방안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인 수업 전략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을 과정 중심 평가에 적용한 방안을 알아본 선행 연구(강소연, 202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성취 수준과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이것을 과정 중심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단계에서 제시한 평가 과정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도구를 재구성하여 과정 중심 평가에 적용하였다.

평가 단계는 크게 2단계로 수업 준비 단계와 수업 발표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평가는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한 개별 평가지와 동료 평가지를 교사가 기록한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교사의 평가가 타당한지 확인한 후 평가 기준표에 따라 최종적으로 채점하였다. 학생 평가지의 결과를 비교해서 반영하면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평가 점수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표 5>는 각 수업 단계별 교사 평가 및 학생 평가 방법이다.

<표 5> 수업 단계별 교사 평가 및 학생 평가

차시	수업 단계	교사 평가	학생 평가
1~5차시	수업 준비 단계	관찰평가지, 핵심 개념 요약정리 (관찰평가, 포트폴리오평가)	학생용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지 (개별평가, 동료평가)
6~11차시	수업 발표 단계	관찰평가지, 수업 발표 자료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업 청중 학생용 평가지 수업 발표 학생용 평가지 (개별평가, 동료평가)

수업 준비 단계에서 교사는 수업 준비 과정을 관찰하고 채점 기준안에 따라 관찰평가를 하며 작성한 주제별 핵심 개념 요약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채점하였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평가지를 개별 작성하게 하였다.

수업 발표 단계에서는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발표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발표 과정과 질의응답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수업 발표 및

질의응답이 끝나면 발표 학생은 수업 발표 학생용 평가지 작성을 청중 학생은 각 조별로 1장씩 평가를 작성하였다.

3.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의 수업에서의 적용 결과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가를 작성하게 하고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1)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 수업이 과학 학습에 미친 영향

‘과학 수업 활동 평가지’에서 ‘수업 준비 및 발표 활동은 과학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문항에 학생 73명의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 준비 및 발표 활동이 과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학생은 63명(86.3%)이며 과학 학습에 부정적 형태의 응답은 10명(13.7%)이었다. 학생들 응답 중 과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유형으로는 ‘스스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하기가 더 쉬웠다’(32명), ‘모둠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11명), ‘요약정리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9명), ‘질의응답 과정을 준비하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6명),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어 헷갈렸던 것들이 확실하게 기억이 남았다’(5명) 등의 응답이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유형으로는 ‘모둠 활동이 이해하는데 더 힘들었다’(4명), ‘어려운 내용이라서 혼자 이해하기 어려웠다’(3명), ‘내가 조사한 내용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힘들었다’(2명), ‘친구들에게 이해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1명) 등의 응답이었다.

첫 번째 문항의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 첫 번째 문항의 응답 분석 결과

응답 유형	비율	내용 (빈도순)
긍정적 응답	86.3%	• 스스로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도 향상 • 모둠 활동의 학습 효과 향상 • 요약정리 과정에서의 학습 효과 향상 • 질의응답 준비 과정에서의 학습 효과 향상 • 교사의 추가 설명으로 인한 학습 효과 향상
부정적 응답	13.7%	• 모둠 활동의 어려움 • 난이도 높은 내용은 개별 학습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학생의 스스로 조사한 내용의 정확도 문제 • 쉽게 설명하는 방법의 어려움

다음은 과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학생들의 응답 중 일부이다.

학생 1: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찾아보고 인터넷과 책에서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다.

학생 2: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읽고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인지 찾아내고 요약정리 하는 과정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요약정리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깨달았다.

학생 3: 친구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서 이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다.

학생 4: 내가 준비한 호르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가고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주체가 아니라 학생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수업 준비를 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높아져 과학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5: 조원들과 같이 자료 조사를 하고 PPT를 만들고 질의응답을 준비하면서 더 자세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

학생 6: 같은 조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수업 준비를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친구에게 물어보면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선생님이 설명할 때보다 이해가 더 잘되는 것 같다.

학생 7: 수업 발표를 할 때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질문하게 될지 몰라 다양한 질문지에 대해 찾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학생 8: 질의응답을 할 때 나는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같은 조 친구들이 알려주면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았다.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조별 활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서로 토론하고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상호 간의 개별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과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9: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인 반응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다. 선생님의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헛갈렸던 내용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수업이었다.

학생10: 친구들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안되는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 주셔서 좋았다.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에서 교사의 피드백 과정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학생의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학생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교사가 수업 준비 과정과 수업 발표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피드백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을 줄일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과학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학생들의 응답 중 일부이다.

학생11: 모둠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나 혼자서 내용을 찾아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많아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였다.

학생12: 내가 정리는 잘 못하는데 그 부분을 맡아서 아쉬웠다.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지 못해서 같은 조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학생13: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알겠는데 질의응답을 위해 새로운 자료를 찾는게 어려웠다.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고 시간이 부족하였다.

학생14: 수업 발표를 위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하고 보기 쉬운 자료도 찾아야 하는데 그 점이 까다롭고 어려웠다.

조별 활동이 전반적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모둠 구성원에 따라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학습이 모두 되어야 모둠 전체에서 내용 정리도 가능한데 각 조에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조별 활동 진행이 힘들었다. 또한 어떠한 것이 중요한 학습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워해서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

‘과학 수업 활동 평가지’에서 ‘수업 준비 및 발표 활동과 같은 수업 방식에 대해 어떠한 점을 느꼈는가?’에 대한 문항에 학생 69명의 응답 분석 결과 중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53명(76.8%)이며 부정적인 응답은 16명(23.2%)이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의 유형으로는 ‘내가 직접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좋았다’(15명),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다’(11명), ‘협동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9명), ‘내가 선생님이 되어 발표하는 활동이 흥미로웠다’(7명), ‘새로운 수업 방식이라 새로웠다’(6명), ‘조별 활동으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5명) 등이 있었고 부정적인 응답의 유형으로는 ‘친구들 앞에서 수업 발표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고 어려웠다’(8명), ‘발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4명), ‘모둠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힘들다’(2명),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2명) 등이 있었다.

첫 번째 문항의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7> 두 번째 문항의 응답 분석 결과

응답 유형	비율	내용 (빈도순)
긍정적 응답	76.8%	• 자기 주도적 수업 준비 과정의 즐거움 (15명) •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11명) • 협동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음 (9명) • 학생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수업하는 과정의 흥미로움 (7명) • 새로운 수업 방식의 신선함 (6명) • 조별 활동으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음 (5명)
부정적 응답	23.2%	• 수업 발표에서 오는 긴장과 부담감 (8명) • 발표 준비 과정에서의 힘들 (4명) • 모듈원들의 참여도 문제 (2명) •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2명)

전반적으로 학생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조별 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학생 개개인이 수업 발표를 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협동 학습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모듈 활동 수업에 대한 경험은 자주 있었으나 자신이 선생님의 역할이 되어 교실 앞에서 주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험은 부족하여 발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에서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의 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예시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실행된 교수 전략이 학생의 과학 학습에 대한 인지적 및 정의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학습자와 교사가 원활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수 학습 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얻고

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교수 학습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와 같이 전문적인 교수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교수 활동 과정과 평가 방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세밀한 수업 계획과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은 학생들의 과학 학습의 인지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업 준비와 수업 발표 활동을 학생 주도로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과학 학습 효과를 높였으며 조별 활동에서 토론 활동 및 동료 교수로 인해 학생 상호 간의 개별 학습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학습의 이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둠 구성원 선정이나 모둠 역할 부여 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학생 중심의 동료 교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이 정확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계에서 교사의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학생들의 응답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교수 전략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을 경험해 봄으로서 주도적인 참여 과정을 경험해 보고 친구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부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교수 학습 전략 연구에 주는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학생-교사 상호 동료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후 서술형 설문을 통한 결과를 정리하였으므로 이 수업 전략이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부분의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양적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중학교 3학년의 '자극과 반응' 단원에 한정하여 교수 학습 전략을 적용한 것으로 전체 학년 또는 다른 주제의 과학 수업 주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더 효과적일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적용한 교수 전략이 전체적인 학습에 참여도를 높이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나 발표 수업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며 평가할 것인지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소연(2020). 상호동료교수 전략을 활용한 중학교 창의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숙영(2010). 또래교수 학습이 과학 학습 부진아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지나(2016). 질문중심 하브루타 과학수업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및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2015).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연수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어떻게 할까요? (ORM 2017-19-2).
- 교육부(2022).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9]
- 권대훈(2015).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3판). 학지사.
- 김영미(2021). 자유학기제 교육봉사 활동을 통한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들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연구: 예비교사 양성기관,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연계 활동,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1(18), 129-144.
- 김우순(2008). 쓰기활동 및 쓰기-상호동료교수활동이 학업성취도와 과학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정, 장원형, 홍훈기(2019).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한 2015 과학과 교육과정 평가 분석 및 논의: 과정 중심 평가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2(3), 225-250.
- 김성숙, 김수진, 박지현(2013). TIMSS 2011 결과 분석에 근거한 수학·과학 학습 흥미 향상을 위한 제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상준(2016). 고등학교 과학 거꾸로 수업 교수학습모델 개발 및 적용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상희(2017). 동료교수법(peer instruction)을 활용한 고등학교 화학과 플립러닝 수업이 학업 성취도, 과학적 태도,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반재천, 김선, 박정, 김희경(2018).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과정평가 연구**, 21(3), 105-130.
- 서민희(2021) TIMSS 2019 결과 및 변화 추이 심층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영준, 하지훈, 이성희(2016).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에서 교사들이 겪는 인식과 어려움 분석. **과학교육연구**, 36(1), 159-166.
- 양찬호, 강훈식(2013). 중등 초임 과학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코티칭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 수업 반성의 특징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3(2), 373-389.
- 이성희(2015). 코티칭을 활용한 학급내 수학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16). 동료교수법을 적용한 수준별 과학수업에서 개념변화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2학년 일과 에너지 영역.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수(2014) 중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 학습 동기 및 자기조절학습 전략과 과학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민(2009). 학습자 중심 수업이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재영, 윤지현(2009). 중등 과학에서의 코티칭 수업 과정 분석. **과학교육연구지**, 33(1), 152-163.
- Dale, E. Audiovisual methods in teaching. Holt, Reinhart & Winston, New York.
- Roth, W. M. (2002) Being and becoming in the classroom. Westport, CT: Ablex Publishing.
- Roth W. M., Tobin, K., Carambo, C., & Dalland, C.(2004) Coteaching: Creating resources for learning and learning to teach chemistry in urban high school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1(9), 882-904.
- Roth, W. M., & Tobin, K. (Eds.) (2005) Teaching together, learning together. New York: Peter Lang.

Case Study of Student-Teacher Mutual Teaching Strategies Applied in Middle School Science Classes

Park, Sunyoung

Cha, Jeongho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tudent-teacher mutual teaching strategy that combines co-teaching with student peer tutoring. This strategy was then applied to science classes for third graders in a middle school located in a rural area of Gyeongsangbuk-do. The study included 73 students from four classes in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Throughout the research process, both the student-teacher mutual teaching process and evaluation materials were developed and applied in actual classroom settings. Additionally, the evaluation sheets completed by the students were analyzed to examine whether the newly developed teaching strategy promoted learning participation, interaction with teachers, and enhanced learning effectiven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veloped teaching strategy had a positive impact not only on students' cognitive learning outcomes and their class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ve learning attitudes. Students experienced the benefits of peer teaching through student-led lesson planning, group activities, and discussions, where the teacher's timely feedback played a crucial role. In particular, students reported that peer teaching helped them to understand scientific concepts more clearly and increased their interest in science. The new teaching method contributed to boosting students' confidence and interest in science learning, as well as improving their cooperation skills. This study suggests that innova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can effectively enhance stu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classes. Furthermore, by developing process-oriented evaluation procedures and materials, the research presents applicable strategies for linking teaching and assessment in school setting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nhance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facilitating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learning process. The strategy demonstrated potential for use in various educational contexts, underscoring its broader applicability.

Keywords : mutual peer teaching, co-teaching, middle school student, science leaning, process-oriented evaluation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순*

요 약

본 연구는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완벽주의가 갖는 매개효과를 조사하고자, 예술중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1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 Flett, 1991),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이정순, 1988),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척도(Harren, 1984)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의사결정 유형(합리적, 의존적 및 직관적)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완벽주의 하위 요인들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자가지향 완벽주의를 보이는 학생일수록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기대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보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존적 의사결정 혹은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을 보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완벽주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자가지향 완벽주의를 보일수록,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보일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보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매개효과의 크기에 대해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관계를 매개하는 완벽주의의 영향을 고려하여, 음악영재의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에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진로의사결정 유형, 완벽주의, 스트레스, 음악영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

I. 서론

음악영재의 영재성(혹은 음악성)이 유능성 차원을 넘어서 예술적 및 전문성의 진로 차원으로 발전하려면(Subotnik & Jarvin, 2005; Subotnik, Jarvin, Moga, & Sternberg, 2003),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다른 영역의 영재성에 비해 음악영재성은 비교적 일찍 나타나며(이미순, 2012; Jarvin & Subotnik, 2010; Subotnik et al., 2003), 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자신의 미래 및 진로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기 때문에(이미순, 2011; Berger, 1989; Kelly & Cobb, 1991; Silverman, 1994; Willings, 1986), 음악영재가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음악영재의 일찍 발현된 음악성과 진로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능성 차원을 넘어서 예술적이며 전문적인 음악가로서 진로를 결정하려면 음악영재로 하여금 음악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에서 더 나아가 내재적 동기와 카리스마를 키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음악가로서의 내재적 동기는 연주 혹은 작곡으로 자신의 미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지각에도 불구하고, (음악자체 혹은 음악연주에서 얻는 즐거움을 넘어서)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의사소통하려는 목표지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청중을 음악으로 혹은 자신에게 끌어들이 수 있는 능력으로서(Jarvin & Subotnik, 2010; Subotnik & Jarvin, 2005; Subotnik et al., 2003), 이상의 음악성, 내재적 동기, 그리고 카리스마는 음악가로서의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시간, 노력과 지원(지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적성, 성격 및 외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지지에 근거하여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한다(이기학, 1997; 이미순, 2011; 이미순, 정자영, 2012; 지용근, 2004; Herr, Cramer, & Niles, 2004; Jarvin & Subotnik, 2010; Subotnik, 2002). 마찬가지로 음악영재도 부모 및 역할모델의 지원(태진미, 2010; Gillespie & Harman, 1999; Ploumis-Devick, 1983), 예술관련 경험을 통한 자신의 적성과 성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음악가로서의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진호·정완규, 2009; Holloway, 1984; Land, 1979).

진로 의사결정이란 개인의 진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한 준거에 의거하여, 비교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심리적인 ‘결정과정’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음악영재 역시 음악가로서의 정체성과 진로 결정을 하려면, 자신과 음악분야 및 음악관련 문제 상황에 대해 현실적이며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향자, 1992; 박경애, 2010; 왕가년, 1996; 이기학, 1997; 이미순, 2012; 이미순·정자영, 2011; Harren, 1984; Krumboltz, 1994; Lewis & Gilhousen, 1981; Nevo, 1987).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rational decision making style)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자아나 상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자는 정보 활용에 기초하여 사려 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한다(고향자, 1992; 어진이, 2015; Harren, 1979). 그러므로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음악영재일수록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한 의사결정에 대한 의무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한다. 그러나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까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intuitive decision making style)은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의 감정, 정서적 자각 혹은 직관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직관에 근거하여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음악영재일수록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다소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갖는다(고향자, 1992; 어진이, 2015; Harren, 1979).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dependent decision making style)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한다. 의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음악영재일수록 수동적이고 동조적이며, 사회적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음악영재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의사 결정에서 비롯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특히, 음악영재는 타고난 음악성, 흥미 및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음악관련 진로결정 활동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못에 대한 두려움(Buescher, 1991; Siegle & Schuler, 2000; Silverman, 1994), 이상 및 잠재력의 실현에 이르지 못하기도 모른다는 확신 부족(Buescher, 1991; Delisle, 1982; Ford, 1989; Karnes & Oehler-Stinnet, 1986; Kerr, 1990), 지나친 외부 기대에 대한 부담감(Kerr, 1991), 그리고 기대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때 경쟁자로부터 받는 적대감(Clinkenbeard, 1991; Ford, 1989)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이미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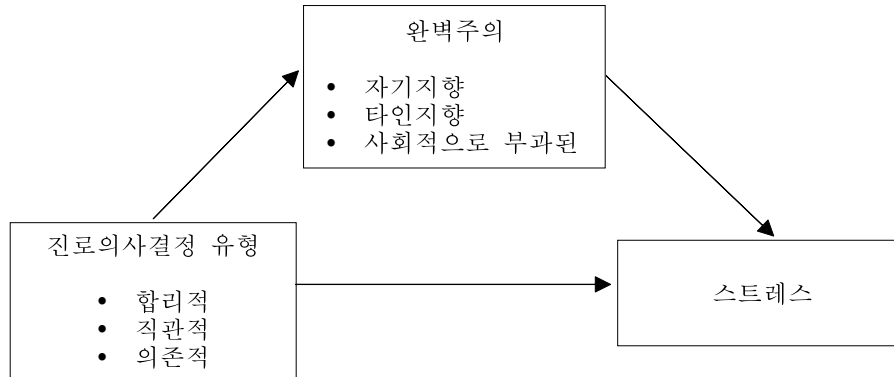
한편, 완벽주의는 수행 혹은 성과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 혹은 기대를 부여하는 사고와 행동의 결합체로서(Burns, 1980), 지금까지는 완벽주의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간주해왔다(Adderholdt-Elliott, 1991; Burns, 1980; Pacht, 1984). 그러나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성향도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이미순, 2012; 조무정·김도희·최선일, 2017; Adler, 1973; Bransky, Jenkins-Friedman, & Murphy, 1978; Dabrowski, 1964;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amachek, 1978; Maslow, 1970; Parker & Stumpf, 1995; Roedell, 1984; Schuler, 2000; Silverman, 1990). 즉, 완벽주의는 좌절과 무능력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만족감과 창의적 산출물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순, 2012; Green & 이미순, 2010; Blatt, 1995; Dixon, Lapsley, & Hanchon, 2004; Hewitt & Flett, 1991; 조무정 외, 2017; LoCicero & Ashby, 2000; Rice & Lapsley, 2001; Schuler, 2000, 2002).

사실 완벽주의가 영재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지속되고 있다. 성인 및 영재를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김혜영, 2008; 박혜옥, 2009; 이정림, 2005; 현진원, 1992; 홍혜영, 1995; Addholdt, 1984; Brown, 1993; Ford, 1989; Hewitt & Dyck, 1986; Hewitt & Flett, 1993; Hollingworth, 1926; Lovecky, 1994; Lynn, Bielings, & Wallace, 1994; Mendaglio, 1994; Webb, Meckstroth, & Tolan, 1982; Whitmore, 1980), 완벽주의와 불안,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자아효능감, 또래관계, 학업성취 및 만족도, 그리고 진로 선택과는 부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uler, 2000, 2002; Siegle & Schuler, 2000; Webb et al., 1982; Whitmore, 1980). 반면에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최정임, 1998)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려고 더 노력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Adderholdt-Elliott, 1987; Bransky, 1989; Dixon et al., 2004; Maddi, 1976; Schuler, 2000, 2002).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악영재가 예술적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음악영재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음악영재의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스트레스, 그리고 완벽주의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합리적, 직관적, 의존적)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자기 지향, 타인 지향, 사회적으로 부과된)가 갖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n = 166$)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영재 중학생을 성으로 구분하였을 때, 남자가 37명(22.3%) 그리고 여자가 133명(77.7%)으로 나타났다. 학년수준으로 구분하면, 중학교 1학년이 46명(27.7%), 중학교 2학년이 65명(39.2%),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55명(33.1%)이었다. 음악전공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악 전공이 91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악이 59명(35.5%)으로 나타났다. 음악영재 중학생에게 장래 희망을 질문하였을 때, 68명(41.0%)의 학생이 연주가를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사 혹은 교수를 희망한 학생이 63명(38.0%)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학년, 전공 및 장래 희망별 학생의 분포

구분	중 1			중 2			중 3			전체
	기악	작곡	성악	기악	작곡	성악	기악	작곡	성악	
연주가	20	0	0	18	6	6	1	1	16	68
교사/교수	21	0	0	17	6	2	1	1	15	63
음악 사업가	2	0	0	4	0	3	1	1	8	19
기타	3	0	0	3	0	0	0	1	9	16
전체	46			65			55			166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완벽주의 행동이 하나 그 이상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Bransky et al., 1978; Frost et al., 1990; Hamachek, 1978; Maslow, 1970; Parker & Stumpf, 1995; Schuler, 1994, 2000), 완벽주의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그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Hewitt & Flett, 1989, 1991)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3개 차원(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적으로 부가된)을 측정하는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중학생임을 감안하여, 문항 수를 조절하고 반응척도를 수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수정 및 조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자기지향(8문항), 타인지향(3문항),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가된(4문항) 완벽주의를 측정한다고 판단되는 문항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15개 문항 3개 차원의 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는 .82~.87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음악영재의 중학생의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가정할 수 있었다.

음악영재 중학생의 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해, 이정순(1988)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음악영재 중학생의 개인 성향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의한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개인 외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진로 의사결정 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 Harren, 1984)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진로 의사결정 척도는 합리적, 의존적 및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3요인-합리적(4문항), 의존적(4문항) 및 직관적(4문항) 의사결정 유형의 16개 문항만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신뢰도는 .72~.8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설문지 자료와 후속 자료 분석 시 SPSS 24.0 Window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의 경향성을 조사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남·녀의 성비 그리고 학년별 전공분야가 불균등하여 성과 학년수준별로 분석하지 않았다.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스트레스 및 완벽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완벽주의가 갖는 매개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Baron과 Kenny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판정된 주요 변인과 하위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로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진로의사결정 유형, 스트레스 및 완벽주의의 상관관계

음악영재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스트레스 및 완벽주의에 대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표 2>), 진로의사결정 유형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완벽주의 하위 요인들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r_{\text{자기지향 타인지향}} = .313$, $r_{\text{자기지향 사회적}} = .332$, $r_{\text{타인지향 사회적}} = .368$).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258$), 의존적 의사결정을 할수록($r = -.285$) 혹은 직관적 의사결정을 할수록($r = -.194$)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완벽주의 하위 요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보일수록($r = .255$),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보일수록($r = .360$) 혹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보일수록($r = .332$)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진로의사결정 유형, 스트레스 및 완벽주의 간 상관

변인	1	2	3	4	5	6
1. 합리적 의사결정						
2. 의존적 의사결정	-.106					
3. 직관적 의사결정	-.056	.018				
4. 스트레스	.258**	-.285**	-.194*			
5. 자기지향 완벽주의	.230**	-.122	-.113	.255**		
6. 타인지향 완벽주의	.010	-.113	-.171*	.360**	.313**	
7.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46	-.089	-.181*	.283**	.332**	.368**

* $p < .05$, ** $p < .01$

2.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1)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beta = .192, p = .005$)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음악영재 중학생들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7.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음악영재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beta = .215, p = .002$)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음악영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영재 중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16.5% 정도 설명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3단계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beta = .190, p = .005$) 그리고 자기지향 완벽주의(매개변인)($\beta = .180, p = .025$)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며, 2단계 설명력과 비교하였을 때, 자기지향 완벽주의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19%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음악영재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음악영재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직접효과가 감소하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음악영재 중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통해서 전체 설명할 수 있는 음악영재의 스트레스의 변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Sobel의 검증을 실시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성 크기를 검증한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 = 1.91, p = .055$).

<표 3>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된		<i>t</i>	<i>p</i>	<i>R</i> ²
			β	표준오차			
1단계	합리적 의사결정	자기지향	.192	.067	2.849	.005	.072
	의존적 의사결정	완벽주의	-.070	.054	-1.292	.198	
	직관적 의사결정		-.080	.060	-1.329	.186	
2단계	합리적 의사결정	스트레스	.215	.070	3.087	.002	.165
	의존적 의사결정		-.202	.056	-3.615	<.001	
	직관적 의사결정		-.154	.062	-2.488	.014	
3단계(독립변수)	합리적 의사결정	스트레스	.190	.071	2.849	.005	.190
	의존적 의사결정		-.070	.055	-1.292	.198	
	직관적 의사결정		-.080	.062	-1.329	.186	
3단계(매개변수)	자기지향 완벽주의		.180	.079	2.270	.025	

2)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의 분석결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beta = -.195$, $p = .027$)이 타인지향 완벽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영재 중학생이 직관적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덜 보이며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도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beta = -.154$, $p = .014$)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영재 중학생이 직관적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음악영재의 진로의사결정 유형(합리적, 의존적 및 직관적)과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악영재의 타인지향 완벽주의(매개변인)를 투입함으로써, 설명하는 전체 스트레스의 변량은 증가하지만, 음악영재의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08$, $p = .071$). 다시 말해서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하나, 타인지향 완벽주의(매개변인)의 투입으로 설명하는 전체 스트레스의 변량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Sobel의 검증을 실시하여 타인지향 완벽주의(매개변인)의 효과성 크기를 검증한 결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 = -1.59$, $p = .112$).

<표 4>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된		<i>t</i>	<i>p</i>	<i>R</i> ²
			β	표준오차			
1단계	합리적 의사결정	타인지향 완벽주의	-.014	.098	-.142	.887	.041
	의존적 의사결정		-.114	.079	-1.450	.149	
	직관적 의사결정		-.195	.088	-2.228	.027	
2단계	합리적 의사결정	스트레스	.215	.070	3.087	.002	.165
	의존적 의사결정		-.202	.056	-3.615	<.001	
	직관적 의사결정		-.154	.062	-2.488	.014	
3단계(독립변수)	합리적 의사결정	스트레스	.219	.066	3.314	.001	.257
	의존적 의사결정		-.175	.053	-3.291	.001	
	직관적 의사결정		-.108	.060	-1.820	.071	
3단계(매개변수)	타인지향 완벽주의		.180	.079	2.270	.025	

3)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beta = -.145$, $p = .024$)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영재 중학생이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직관적 의사결정($\beta = -.154$, $p = .014$)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영재 중학생이 직관적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및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beta = -.123$, $p = .047$)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beta = .216$, $p = .004$)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2단계의 설명력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매개변인)를 투입할 경우,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량은 20.5%로 증가하였다. 음악영재의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인해 그 직접효과가 감소하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음악영재 중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매개변인) 성향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된		<i>t</i>	<i>p</i>	<i>R</i> ²
			β	표준오차			
1단계	합리적 의사결정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21	.071	1.693	.092	.056
	의존적 의사결정		-.55	.057	-.955	.341	
	직관적 의사결정		-.145	.063	-2.285	.024	
2단계	합리적 의사결정	스트레스	.215	.070	3.087	.002	.165
	의존적 의사결정		-.202	.056	-3.615	<.001	
	직관적 의사결정		-.154	.062	-2.488	.014	
3단계(독립변수)	합리적 의사결정	스트레스	.189	.069	2.751	.007	.205
	의존적 의사결정		-.190	.055	-3.471	.001	
	직관적 의사결정		-.123	.062	-1.998	.047	
3단계(매개변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216	.074	2.897	.004	

그러나 이상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Z*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Z = -1.807, p = .07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합리적, 의존적 및 직관적), 스트레스, 그리고 완벽주의(자기지향, 타인지향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음악영재 중학생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영재 중학생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자기지향 완벽주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음악영재 중학생이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할 때 매우 체계적으로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우며 실천할 일을 골똘히 생각할수록' 음악영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자신이 하는 일 혹은 수행에서 완벽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이상의 결과는 완벽주의와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입장(김혜영, 2008; 박혜옥, 2009; 이정립, 2005; 현진원, 1992; 홍혜영, 1995; Brown, 1993; Hewitt & Dyck, 1986; Lynn, et al., 1994; Schuler, 2000, 2002; Siegle & Schuler, 2000; Webb et al., 1982; Whitmore, 1980)과 대비되는 것으로, 오히려 음악영재의 경우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음악영재의 완벽주의와 스트레스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이미순, 2012; 조무정·김도희·최선일, 2017; 최정임, 1998; Bransky, 1989; Schuler, 20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영재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음악영재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로 인해 직접효과가 감소하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음악영재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영향이 나타나, (비록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설명하는 스트레스의 변량이 줄어들어도), 자기지향 완벽주의(매개변인)를 투입함으로써 전체 설명하는 스트레스의 변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음악영재 중학생의 스트레스 상담을 진행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물론 스트레스와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음악영재가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을 보일수록 그리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보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감정, 정서적 자각 혹은 직관’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영재 중학생이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을 보여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려고 하기 때문에(고향자, 1992; 어진이, 2015; Harren, 1979), 타인 및 타인의 수행에 대해서 완벽할 것을 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음악영재 중학생의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타인지향 완벽주의(매개변인)를 투입했을 때,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음악영재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이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투입으로 증가하지만, 음악영재의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음악영재 중학생이 받는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개효과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약화되고, 반면에 음악영재의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음악영재 중학생의 스트레스 상담을 진행할 때, ‘자신의 성향, 관심, 감정 및 직관’에 기초하여 진로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서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인해 악화되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영향과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음악영재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보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Clinkenbeard, 1991; Ford, 1989; Kerr, 1991),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을 보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부적상관 관계가 도출된 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을 보이는 음악영재의 경우 ‘자신의 흥미, 감정 및 정서적 자각과 직관’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부응하려는 완벽주의(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영재의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음악영재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인해 그 직접효과가 감소하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음악영재의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영향 외에도,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사이를 매개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영향이 나타나, (비록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설명하는 스트레스의 변량이 줄어들어도) 자기지향 완벽주의(매개변인)를 투입함으로써 전체 설명하는 스트레스의 변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음악영재 중학생의 스트레스 상담을 진행할 때, ‘자신의 적성, 정서 및 직관’에 의거하여 진로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렸으니 받는 스트레스가 적을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스트레스와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연구의 결과 및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전공분야에서 요하는 음악적 소양을 어느 정도 겸비한 상태에서 예술중학교에 입학한다. 음악영재는 음악가로서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이 설정해 놓은 궁극적인 예술적 전문성을 위해 시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미순, 2012; Subotnik, 2000, 2004; Subotnik & Jarvin, 2005; Subotnik et al., 2003) 완벽주의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예술적 전문가로서의 발전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Bastian, 1994;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7; Ochse, 1990), 능력과 실수에 대한 비판과 실망을 극복하는 방안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집착력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음악영재의 완벽주의와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이미순, 2012; 최정임, 1998; Bransky, 1989; Schuler, 2000).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한 음악영재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이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스트레스 및 완벽주의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이미순, 2012; Subotnik, 2000), 관악기, 성악 혹은 작곡을 전공하는 음악영재는 현악기 혹은 피아노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음악을 접하게 되며, 전공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신체 및 인지 발달 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여 연구관련 변인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영재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나, 실제 이들 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충분히 조명하지 않아(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도출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위 세 변인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갖는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Z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검증 방법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 본 연구의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Z 값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법이 유의하지 않았을 가증성이 있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08). 중학교 수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2010). 비구조화된 REBT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3, 123-134.
- 박혜옥(2009). 음악영재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완벽주의, 스트레스, 진로 결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가년(1996).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의식성숙도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진이(2015).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순(2012).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및 스트레스가 합리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22, 221-241.
- 이미순·정자영(2011). 수학 영재의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평가연구, 14, 79-100.
- 이정림(2005). 초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199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무정·김도희·최선일(2017).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영재교육연구, 27, 505-524.
- 지용근(2004).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71-88.
- 최정임(1998). 완벽주의 성향, 시험불안, 학업 성취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최진호·정완규(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태진미(2010). 초등 영재와 일반학생의 음악경험 및 음악흥미도의 차이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9, 35-58.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ddholdt, M. R. (1984).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upon the self-concepts of undergraduate women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Adderholdt-Elliott, M. R. (1987). Perfectionism: What's bad about being too good? Minneapolis, MN: Free Sprit.

Adderholdt-Elliott, M. R. (1991). Perfectionism and the gifted adolescent. In M. Bireley & J. Genshaft (Eds.), Understanding the gifted adolescent: Educational, developmental, and multicultural issues(pp. 65-75). NY: Teacher College Press.

Adler, A. (1973). Superiority and the social interest: A collection of later writings. NY: Viking Press.

Berger, S. L. (1989). College planning for gifted students. 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Bransky, P. S. (1989). Academic perfectionism in intellectually gifted adolescents: The roles of attribution, response to failure, and irrational belief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astian, H. G. (1994). From the everyday world and the musical way of life of highly talented young instrumentalists. In K. A. Heller & E. A. Hany(Eds.), Competence

- and responsibility: VOL 2: Proceedings of the Third European Conference of the European Council for high ability(pp. 153-163). Seattle, WA: Hogrefe & Huber.
- Bransky, T., Jenkins-Friedman, R., & Murphy, D. (1978). Identifying gifted students at risk for disabling perfectionism: The role of the school psychologist.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Brown, S. R. (1993). Perfectionistic thinking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uescher, T. (1991). Gifted adolescents. In N. Colangelo & G.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 382-401).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urns, D. D. (1980, November).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3, 70-76.
- Clinkenbeard, P. R. (1991). Unfair expectations: A pilot study of middle school students' comparisons of gifted and regular classe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5, 56-63.
-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 Whalen, S. (1997).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success and fail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browski, K. (1964). *Positive disintegration*. London: Little, Brown, & Co.
- Delisle, J. (1982). The gifted underachiever. *Roeper Review*, 4, 16-18.
- Dixon, F. A., Lapsley, D., & Hanchon, T. A. (2004). An empirical typology of perfectionism in gif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48, 95-106.
- Ford, M. A. (1989). Students' perceptions of affective issues impacting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school performance of gifted/talented youngsters. *Roeper Review*, 11, 131-134.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Gillespie, R., & Harman, D. L. (1999). Career choice among string music education students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 266-278.
- Green, M., & 이미순(2010). 영재상담. 한국교총영재교육원.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ren, V. A.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6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89).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Canadian Psychology*, 30, 339.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ollingsworth, L. S. (1926). *Gifted children: Their nature and nurture*. NY: MacMillan.
- Holloway, A. J. (1984). *A descriptive analysis of musical experiences, employment patterns, career aspirations, curricular content, and attitudes of doctoral aspirants in mus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 Jarvin, L., & Subotnik, R. F. (2010). Wisdom from conservatory faculty: Insights on success in classical music performance. *Roeper Review*, 32, 78-87.
- Karnes, F., & Oehler-Stinnet, J. (1986). Life events as stressors with gifted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23, 406-414.
- Kelly, K. R., & Cobb, S. J. (1991). A profile of the caree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young gifted adolescents: Examining gender and multicultural differences. *Roeper Review*, 13, 202-206.

- Kerr, B. A. (1990). Leta Hollingworth's legacy to counseling and guidance. *Roeper Review*, 12, 178-181.
- Kerr, B. A. (1991). *A handbook for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1, 149-153.
- Land, M. S. (1979). *The role of counseling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musicians: A case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 LoCicero, K. A., & Ashby, J. S. (200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in middle school age gifted versus non-gifted students. *Roeper Review*, 22, 182-184.
- Lovecky, D. V. (1994).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Different minds. *Roeper Review*, 17, 116-120.
- Lynn, E., Bieling, P. J., &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nati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297-316.
- Maddi, S. R. (1976).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 Homewood, IL: Dorsey Press.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Rev. ed.). NY: Harper & Row.
- Mendaglio, S. (1994). Gifted sensitivity to criticism. *Gifted Child Today Magazine*, 17, 24-25.
- Nevo, O. (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39-250.
- Ochse, R. (1990). *Before the gates of excellence: Determinant of creative geni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arker, W. D., & Stumpf, H. (1995). An examin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with a sample of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3, 372-383.

- Ploumis-Devick, E. (1983). Career development patterns of male and female music education majors at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 Rice, K. G., & Lapsley, D. K. (2001). Perfectionism, coping, and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 1-12.
- Roedell, W. C. (1984). Vulnerabilities of highly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6, 127-130.
- Schuler, P. A. (1994). Goals and work habits survey. Unpublished instrument. Storrs, C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Schuler, P. A. (2000). Perfectionism and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1, 183 - 196.
- Schuler, P. A. (2002). Perfectionism in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 Neihart, S. M. Reis, N. M. Robinson & S. M. Moon(E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What do we know?*(pp. 71-79).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Siegle, D., & Schuler, P. A. (2000). Perfectionism differences in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Roeper Review*, 23, 39 - 44.
- Silverman, L. K. (1990). The crucible of perfectionism. In B. Holyst (Ed.), *Mental health in a changing world* (pp. 39-49). Warsaw: The Polish Society for Mental Health.
- Silverman, L. K. (1994).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Denver, CO: Lover Publishing.
- Subotnik, R. F. (2000). The Julliard model for developing young adolescent performers: An educational prototype. In C. F. M. van Lieshout & P. G. Heymans(Eds.), *Developing talent across the lifespan*(pp. 249-276). PA: Psychology Press.
- Subotnik, R. F. (2002). Talent developed: Conversations with masters in the arts and science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5, 290-302.
- Subotnik, R. F. (2004) Transforming elite musicians into professional artists: A view of the talent development process at the Julliard School. In L. V. Shavinina & M. Ferrari (Eds.). *Beyond knowledge: Extracognitive aspects of developing high ability*(pp. 137-166). Mahwah, NJ: Erlbaum.
- Subotnik, R. F., & Jarvin, L. (2005). Beyond expertise: Conceptions of giftedness as great performance.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 (2nd ed., pp. 343-357).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botnik, R. F., Jarvin, L., Moga, E., & Sternberg, R. J. (2003). Wisdom from gate-keepers: Secrets of success in music performance. *Bulletin of Psychology and the Arts*, 14, 5-9.
- Webb, T. J., Meckstroth, E. A., & Tolan, S.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Columbus, OH: Ohio Psychology Press.
- Whitmore, J. R. (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Allyn and Bacon.
- Willings, D. (1986).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Enriched career search. *Roeper Review*, 9, 95-100.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Musically Gifted on Stress : A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Lee, Mi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musically gifted on str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70 musically gifted attending in the middle school of arts. Th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rational, intuitive, and dependent type) bu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self-oriented, others 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The higher self-oriented perfectionism was, the higher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others-oriented perfectionism were.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and stress. So, the more rational decision-making style was, the more musically gifted had stress. The more musically gifted showed intuitive decision-making style and dependent decision-making style, the more stress they ha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The more self-oriented, other-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musically gifted showed, the more they got stress. Meanwhile, when the role of perfectionism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 and stress was examined, self-oriented perfectionism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rational decision-making style on stress. Other-oriented perfectionism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 of intuitive decision-making style on stress.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intuitive decision-making on stress, which musically gifted got. However, with using Sobel test to examine mediation effects of perfectionism on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and stress,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size at $p = .05$.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Perfectionism, Stress, Musically gifted

참가자의 성찰일지를 통해 분석한 해외 교육봉사의 의미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방채홍*

요 약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의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사례로 예비교사들의 교육적, 개인적 성장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교육봉사는 예비교사들의 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 학생과의 상호 작용 역량, 그리고 다문화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해외교육봉사의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핵심어: 해외 교육봉사, 성찰일지, 예비교사교육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교수

I. 서론

해외교육봉사는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회가 된다. 봉사활동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하며 교수 역량을 기르고,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의 교육을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교육봉사는 글로벌 교육 협력과 교육적 나눔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해외교육봉사가 예비교사들의 교수 역량,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글로벌 마인드 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민정(2014)은 예비유아교사들이 해외교육봉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소명감과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으며, 박인심(2019)은 예비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도전적 인식과 변화의 기회를 경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재영과 임성민(2017)은 해외교육봉사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반성적 실천이 향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교육봉사는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협력적 수업 진행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코티칭 경험은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수업 상황에서 협력적 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준다(한재영, 2024). 또한, 봉사활동이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류민정, 2017).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필리핀 안티케 지역에서 의미 있는 교육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의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것으로, STEAM 기반의 융합교육과 문화교류를 통해 현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예비교사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의 해외교육봉사는 초기에 베트남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필리핀 안티케 지역의 여러 초등학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라살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의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를 병행하며 예비교사들의 실천적 교수 역량을 강화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중단 시기에도 온라인 교육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부터는 대면 봉사활동을 재개하여 더욱 적극적인 교육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필리핀 안티케 지역에서 실시된 해외교육봉사는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와 현지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STEAM 교육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 향상, 한국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현지 대학생들과의 협력 수업을 통한 국제적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봉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외교육봉사의 교육적 가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맥락

2023년과 2024년에 필리핀 안티케 지역에서 진행된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의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교육 역량 함양과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감수성과 현장 경험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었다.

2023년의 해외교육봉사는 11명의 예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들은 영어 교육, 기초 수학, 그리고 기초 과학 등의 다양한 과목을 중심으로 현지 초등 및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은 수업 준비부터 현지 적응과 실행, 그리고 사후 보고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다. 특히, 2023년 봉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창의적 교육 자료 제작과 현지 문화 적응 훈련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봉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4년에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확장되어 14명의 예비교사가 참여하였다. 이 해의 봉사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더욱 강화되어, 영어 및 수학뿐 아니라 예체능 활동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특별 활동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지 학교 교사들과의 협력 수업을 통해 코티칭(co-teaching)을 경험하며, 교육적 상호작용을 심화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현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학습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경험과 다문화적 이

해력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필리핀 안티케 지역의 교육 소외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이러한 피드백은 이후 봉사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2. 해외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1) 참가자 규모

2023년과 2024년 필리핀 안티케 지역에서 진행된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두 해 모두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현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가자 수는 2023년 11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증가하며, 프로그램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활동 내용

활동 내용 측면에서 2023년에는 영어, 기초 수학, 과학 등 교과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참여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의 기초 학습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창의적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반면, 2024년에는 기존 교과 중심 교육에 더해 예체능 활동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특별 활동이 추가되었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현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현지 학교와의 협력 형태에서도 두 해 간 차이가 나타났다. 2023년에는 현지 교사와의 간헐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에는 코티칭(co-teaching)을 도입하여 현지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공동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적 상호작용의 깊이를 더하고,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의 협력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23년 프로그램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창의적 교육 자료 제작과 현지 문화 적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는 봉사활동 초기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준비 과정으로 작용하였다. 2024년에는 코티칭 경험과 맞춤형 활동이 추가되면서 예비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수업을 설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전문적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두 해에 걸친 프로그램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현지 학생들에

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교사들의 다문화적 감수성과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현지 교육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참여 예비 교사들에게도 소중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항목	2023년	2024년
참가자 수	11명	14명
참여 대상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예비교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예비교사
주요 활동	영어, 기초 수학, 과학 교육	영어, 수학 교육 및 예체능, 팀워크 활동
현지 협력	현지 학교 교사와 간헐적 협력	현지 학교 교사와의 코티칭(Co-teaching)
기간	약 3주간	약 3주간
특징	창의적 교육 자료 제작 및 문화 적응 훈련 강조	코티칭 경험과 맞춤형 활동 추가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참여자들의 활동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활동보고서는 참여자들이 봉사활동 종료 후 제출한 공식 보고서로, 준비과정, 교육 실행 내용, 그리고 활동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보고서는 프로그램 전반의 구조적 분석과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둘째, 성찰일지는 매일의 교육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자 개인의 성찰과 경험을 기록한 자료이다. 성찰일지는 예비교사들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느낀 감정, 어려움, 그리고 성장 경험을 서술하며, 교육적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현지 관찰자료는 필리핀 안티케 지역의 교육기관과 교사들로부터 받은 피드백 및 평가 자료로, 프로그램이 현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자료는 현지 교육의 요구사항과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며, 준비 단계, 실행 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를 아우른다. 이러한 자료는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다각도로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질적 분석은 성찰일지와 현지 관찰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주요 주제를 귀납

적으로 도출하였다. 활동보고서와 성찰일지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의 공통적 패턴과 독특한 경험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양적 분석은 활동보고서에서 수집된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활동 빈도, 주요 활동의 시간 배분, 그리고 현지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봉사활동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집된 자료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와 현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교육 전문성 발달 측면

1) 수업설계 및 실행능력 향상

참여자들은 해외 교육봉사를 통해 제한된 자원과 낯선 환경에서도 창의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수업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며 현장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교육봉사가 예비교사들의 교육적 유연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스크립트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 김OO(2023년 참가)

"수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느낀 부족함은 오히려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 이OO(2024년 참가)

2) 학생이해 및 상호작용 능력 신장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었다.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교수법을 적용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과의 교감을 통해 예비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별히 수업 내용과 방식을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개별 학생들

에게 1:1 관심을 기울였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다." - 정OO(2024년 참가)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 수업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 박OO(2023년 참가)

3) 다문화 교육역량 강화

다문화 환경에서의 교육 경험은 예비교사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은 글로벌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수업,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다문화적 감각과 적응력을 기르게 되었다." - 강OO(2024년 참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 김OO(2023년 참가)

2. 개인적 성장 측면

1) 교직원 확립

봉사활동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봉사 경험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준비 과정과 실제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하루를 선물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느꼈다." - 최OO(2023년 참가)
"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 이OO(2024년 참가)

2)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참여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적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했다.

"현지 학생들이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봉사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연결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 박OO(2024년 참가)
"교육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음을 실감했다." - 김OO(2023년 참가)

3) 교육봉사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참여자들은 교육봉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자긍심과 교육자로서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다." - 강OO(2024년 참가)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 박OO(2023년 참가)

3.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측면

1) 현지 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

현지 안티케대학교와의 협력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4년에는 안티케대학교 학생들이 대구대학교를 방문하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간 교육 교류가 확대되었다.

"안티케대학교와의 협력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최OO(2024년 참가)

2) 교육 네트워크 확장

참여 학생들은 현지 교사들과의 협력적 코티칭을 통해 국제적 교육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글로벌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현지 교사들과의 코티칭 경험은 서로 다른 교육 방식에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 정OO(2024년 참가)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의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이 예비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제한된 자원과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적 환경에서의 교육 경험은 이들이 글로벌 교육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봉사활동을 통해 교직관을 확립하고,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재확인한 점은 예비교사 교육에 있어 해외교육봉사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첫째,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전교육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비교사들이 현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이해와 수업 설계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후속 관리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프로그램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해외교육봉사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참고 문헌

- 류민정(2017). 해외 교육봉사와 국내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을 통한 예비 체육교사의 역량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6(2), 243-258
- 김민정(2014). 예비유아교사에게 단기해외교육봉사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8(3), 257-282.
- 박인심(2019).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참여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경험과 인식. 글로벌교육연구 11(4), 110-140.
- 한재영(2012). 사범대학 예비교사의 삶과 정체성 변화 연구. 교사교육연구 51(1), 75-88
- 한재영, 임성민(2017). 문화역사활동이론을 통한 과학교사의 해외 봉사활동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3), 631-650.
- 한재영. (2024). 해외 교육봉사에서 나타나는 코칭 사례. 한국교육논총, 45(2), 145-169.

Analyzing the Significance of Overseas Educational Volunteer Teaching Through Participants' Reflective Journals: A Case Study of Daegu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FANG, CAIHO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and personal growth of preservice teachers through the overseas educational volunteer program at Daegu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ticipation in overseas volunteer work significantly enhances preservice teachers' competencies in lesson design and execution, student interaction, and multicultural awareness. Additionally, the program reinforced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and mission as educators, while equipping them with problem-solving skills in diverse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study highlights the educational value of overseas volunteering and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designing effective programs.

Key words : Overseas Educational Volunteer Work, Preservice Teacher, Multicultural Education, Reflective Journals, Educational Competency

학교교육연구 논문집 투고 규정

- 1. 투고자격** 본 연구소의 정회원이 제출한 논문이나 자료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2. 투고내용** 학교교육에 관련되는 논문, 종설, 자료 등을 게재하되 다른 학술지나 정기간행물에 발표된 것은 제외한다.
- 3.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인쇄분량, A4용지 16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원고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되 한글 초록을 첨부한다.
- 4. 원고작성** 논문의 형식은 APA방식을 권장하나 본 연구소의 방식에 따를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에서 작성한 내용을 **e-메일(또는 포털)**로 제출한다.
- 5. 게재결정**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이상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투고마감** 투고마감은 매년 2, 5, 8, 11월말로 하고, 발행은 3, 6, 9, 12월말 연 4회로 한다.
- 7. 기 타** 교정은 투고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논제와 성명은 한글과 외국어 두 가지로 만들어야 한다.
-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호

1. 본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1. 본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호

1.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교육연구 편집위원 선정 기준 및 논문심사 규정

제1 조 목 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의 학술지 “학교교육연구”에 관한 편집위원 선정 기준 및 논문 심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편집위원회의 선정 및 역할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중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장이 1인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별로 고루 선임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로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들과 협의 아래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술지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2인의 심사위원 선정
 -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심사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 처리
 - 기타 학회지 발행 관련 주요 사항

제3 조 논문심사 의뢰

-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중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 ③ 3인의 논문심사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 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4 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 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 ① 연구주제의 독창성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③ 논지전개의 논리성
- ④ 연구내용의 충실성
- ⑤ 논문초록의 명료성
- ⑥ 편집규정의 적합성
- ⑦ 논문의 완결성
- ⑧ 교육분야의 공헌도

제 5 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 ①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1차심사 후 ‘논문심사결과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③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 결과의 ‘수정 후 재심’은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 ④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논 문 심 사 결 과 처 리 표

1차 심사		2차심사 또는 재심	게재 여부 판정
1차심사 결과(1)	1차심사 결과(2)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심사 생략	(수정 후) 게재 함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재심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 결과에 ‘게재 불가’나 ‘수정 후 재심’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

제 6 조 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 7 조 기 타

- ① 학교교육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미 발표물에 한한다.
- ② 기타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논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다수 의사에 따른다.
- ③ 학술지의 편집 순서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첫째, 학교교육 일반 관련 연구
둘째, 국어교육 관련 연구
셋째, 영어교육 관련 연구
넷째, 사회과교육(역사교육, 지리교육, 일반사회교육) 관련 연구
다섯째, 유아교육 관련 연구
여섯째, 특수교육 관련 연구
일곱째, 수학교육 관련 연구
여덟째, 과학교육 관련 연구
아홉째, 환경교육 관련 연구
열째, 기타 순서대로 제시한다.

대구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윤리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학교교육연구)에 적용한다.

제 3조 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 4조 연구부정 행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조 연구대상자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심사자의 의무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7조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에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8조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소정양식 1]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에 해당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제 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부 칙 (2009.6.23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정양식 1]

『학교교육연구』 논문 투고신청서 및 윤리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			
	영문 :			
저 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1			
	2			
	3			
교신저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e-mail		이동전화	
	주 소 (별쇄본 수령지)		(우편번호:)	
투고논문의 학위논문 여부	수여학위		석사 () / 박사 ()	
	학위수여일자			
	학위수여학교			
	지도교수			
	심사위원			
		학위논문 아님()		
재 투고 여부	최초투고		권 호	재 투고 아님()
KCI 유사도 검사율	%			
투고료 입금	입금자 명		입금일	

본 연구자(들)는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교육연구』의 심사 및 투고 규정에 따를 것이며, 표절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본 논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연구소의 윤리규정에 따라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이양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교신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귀중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24학년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차정주(대구대 유아교육과)

편집위원 : 신주현(대구대 역사교육과), 장혜진(대구대 유아교육과)
옥민옥(대구대 특수교육과), 차정호(대구대 화학교육과)
김혜숙(대구대 교직부), 박소영(대구대 교직부)
오정숙(대구대 교직부)

학교교육연구

제14권(통권 22호) <비매품>

인쇄 : 2024년 12월 31일

발행 :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 대구대학교 총장 박순진

발행처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053-850-4245

ISSN 2093-5129

Journal of School Education Research

Volume 14 (Series No. 22), December 2024

Articles

The Way Forward for History Education, Beyond 'Hate' to 'Global Citizenship': Analyzing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Patterns of Hate as a Case Study	
Kim, Soo-ah · Sheen, Joo Hyun	1
Westerners' Perceptions of China's Education System in the 16th-19th centuries: A Focus on Assessing Perceptions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Kim, Soo-yeon · Sheen, Joo Hyun	17
The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ions and Their Use in History Education	
Lee, Gyubi · Sheen, Joo Hyun	37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Basic Mathematics in Universities with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Universities in Daegu-Gyeongbuk Provinces	
Kim, Raeyong	79
A Study in Teaching Materials of Geometry for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 Based on Analysis in High School Textbooks	
Kim, Raeyong	91
Analysis of Scienc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 - Focused on Astronomy Content in the 2015 and 2022 Revisions -	
An, Sung-Ho	109
Survey on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Astronomical Telescop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An, Sung-Ho	119
Comparison of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 of the Curriculum in School Settings: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Earth Science Curriculum and Science-Focused High Schools	
Choi Gyuhwan · Park Jonggeun	129
Case Study of Student-Teacher Mutual Teaching Strategies Applied in Middle School Science Classes	
Park, Sunyoung · Cha, Jeongho	149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Musically Gifted on Stress : A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Lee, Misoon	167
Analyzing the Significance of Overseas Educational Volunteer Teaching Through Participants' Reflective Journals: A Case Study of Daegu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Fang, Caihong	189